

#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단 평가 연구

2007. 4.

농림수산식품자료실



0018129

[재]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사] 세계농정연구원

#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단 평가 연구

2007 . 4

[재]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사] 세계농정연구원

# < 목 차 >

<요 약 문> .....	1
제1장 평가 연구의 개요 .....	15
제1절 평가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7
제2절 평가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9
1. 시범 사업단의 개념과 유형 .....	19
2. 평가 목적 및 평가 지표 .....	21
3. 평가 방법 .....	27
4. 평가 보고서의 내용 .....	28
제2장 평가 결과 개요 .....	31
제1절 평가 개요 .....	33
1. 평가 결과 총평 .....	33
2. 중간 평가와 최종 평가 비교 총평 .....	35
제2절 평가 항목별 분석 .....	38
1. 평가 항목별 분석 내용 .....	38
제3절 평가결과의 종합적 총평 .....	59
1. 시범 사업단 성과 .....	59
2. 시범사업단 사업 수행의 한계점 .....	60
제4절 향후 과제 .....	63

제3장 해외클러스터 모델현황과 새로운 모델 개발 ..... 65

제1절 해외클러스터 모델 현황 ..... 67

- 1. 오라선드(Oresund)의 식품 클러스터 ..... 67
- 2. 미국 메릴랜드 바이오클러스터 ..... 70
- 3. 영국기술그룹(British Technolgy Group, BTG) ..... 72
- 4. 샌디에고 바이오 클러스터 ..... 74

제2절 해외성공사례 모델 특징 ..... 78

- 1. 유형별 해외성공사례 분석 및 정리 ..... 78
- 2. 차별화 모델 개발 필요성 ..... 80
- 3. 지역농업클러스터 차별화모델 ..... 81

제4장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활성화 방안 ..... 87

제1절 비전 및 추진 세부과제 ..... 89

- 1. 비전 ..... 89
- 2. 모델별 세부 지원 방안 ..... 92

제2절 지역농업클러스터 개선 방안 ..... 94

- 1.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선정 시 고려사항 ..... 94
- 2.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활성화 방안 ..... 96

제5장 마무리 ..... 113

- <별첨 1>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만족도 조사 결과 ..... 116
- <별첨 2-1> 시범사업단 중간평가 서면평가지표 ..... 121
- <별첨 2-2> 시범사업단 중간평가 항목별 세부평가내용 ..... 122
- <별첨 3-1> 시범사업단 종합평가 서면평가지표 ..... 131
- <별첨 3-2> 시범사업단 종합평가 항목별 세부평가내용 ..... 133
- <별첨 4> 시범사업단 최종평가 총평 결과요약 ..... 146

## < 표 목 차 >

<표1> 시범 사업의 클러스터 유형별 분포 .....	20
<표2> 중간 평가 및 최종 평가의 비교 .....	25
<표3> 시범사업의 평가 가중치 및 평가주체 .....	27
<표4> 중간 평가와 최종 평가 방법 비교 .....	27
<표5> 중간 평가와 최종 평가 비교 .....	36
<표6> Rockville-Bethesda 클러스터 .....	71
<표7> BTG의 단계별 주요업무 .....	74
<표8> 차별화 모델 개발 필요성 .....	80
<표9> 지역농업클러스터 차별화모델 .....	85
<표10> 지역농업클러스터별 세부 지원 .....	93
<표11> 농기술 네트워킹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성절차 .....	107
<표12> AHP 평가지표의 가중치 추정(예시 안) .....	111

## <그 립 목 차>

<그림1> 평가 지표 주요 개념 .....	22
<그림2> 평가 진행 과정 .....	26
<그림3> 지역농업클러스터 차별화 모델 .....	89
<그림4> 차별화모델별 지원방안 .....	99
<그림5> IncuBranding System .....	104

## < 요약 문 >

### 평가 연구의 개요

#### ○ 평가 연구의 의미

- 국내 농업 환경은 DDA 협상, 한·미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생산기반 중심의 하드웨어 접근에는 구조적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시장 경쟁 체제하에서 생산 규모의 경쟁에 따른 비교 우위 접근에 한계를 나타내는 것임
- 보다 소비자 중심적이고 다양한 상황 변수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장 대응 위기관리 체계가 요구됨
- 따라서 지역 농업은 종래의 생산 및 거래비용 축소를 위하여 구상된 단순한 산업 집적지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기술혁신과 지식창출의 근원지 및 지역 복합 산업의 메카로서 기능 및 역할의 기대와 농업의 신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지역농업클러스터의 의미가 존재함

#### ○ 평가 연구의 범위

-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의 최종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지역 농업의 특성을 바탕으로 클러스터 운영 모델을 개발하며 시행과정의 한계점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본 사업의 효율적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평가 목적과 진행 과정

### ○ 평가 목적

- 중간 평가의 목적은 사업단의 구조와 사업 집행에 대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최종 평가의 경우에는 사업단의 성과 달성도, 기술(연구) 사업화 및 사업단 공동 브랜드 관리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효과성, 지역의 독자적이며 차별적인 정체성 및 농산업으로써의 지역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파급 효과에 중점을 두었음

### ○ 평가 지표의 주요 개념

- 주요 지표의 내용은 목적 적합성, 신뢰성, 비교 가능성(일관성) 및 편익/비용(Benefits>Costs) 비교가 있음

### ○ 평가 지표의 개념적 상호 관계

- 평가 지표의 주요 속성에는 목적 적합성(relevance)과 신뢰성(reliability)이 있는 데, 서로 상충 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음
- 예를 들어, 신뢰성을 강조하기 위해 평가 지표 개발에 중점을 두면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시간, 비용의 과대로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목적 적합성을 강조하면 신뢰성은 떨어지나 효율성은 높아 짐
- 따라서, 평가 지표 간의 개념적 특성을 반영하면서 상호 개념간의 조화로운 접근이 요구됨



- 편익/비용(**Benefits>Costs**) 비교는 투자 비용 대비 효과(편익)의 분석을 통해 투자에 대한 기대 효과를 판단하는 것이고, 유사한 성격 간 비교성을 높이는 비교 가능성과 유사한 성격의 기술에 대하여 동일한 측정 및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일관성(**Consistency**)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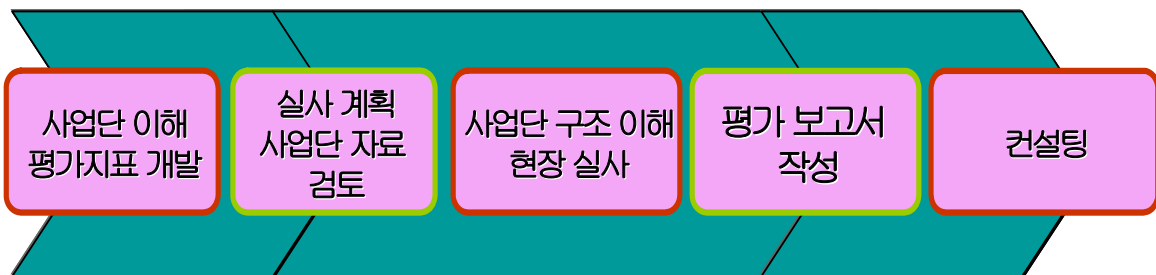
<그림> 평가 지표 주요 개념



- 평가 진행 과정
  - 첫째, 평가 지표를 지역 농업 클러스터에 맞게 보완 및 개발을 하고, 이에 따라 사업단의 현황을 파악 후 기초적인 이해를 함

- 둘째, 사업단 현장 실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실사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단의 중요 평가 사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사항과 실사 운영 실행 계획을 수립함
- 셋째, 평가 자료 중심의 검토와 사업단의 내부 구조를 이해하고 현장 실사를 통한 자료의 신뢰성, 사업단의 사업 진행 사항 등을 점검함
- 마지막으로, 평가 보고서 작성과 컨설팅을 수행함

### <그림> 평가 진행 과정



- 평가 지표의 비교의 경우 중간 평가의 지표는 준비 단계, 집행 단계로 나누어 평가되었으며 전년도 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평가 지표의 세분화를 하고 자료의 객관화에 중점을 두어 평가되었음
- 최종 평가는 집행단계 및 성과단계로 평가 지표를 세분화하여 사업 결과의 정성적 측면(사업단의 브랜드 관리 및 기술(연구)의 사업화 등)을 전문가 집단의 다면 평가를 통한 질적 보완을 하였음

**<표> 중간 평가 및 최종 평가 비교**

구 분	중간 평가	최종 평가
준비 단계	사업추진체계 구축	부 존재(최종 평가의 경우 준비 단계 평가는 배제)
	'06예산지방비 확보	
	사업추진을 위한 규정 및 제도정비 실적	
집행 단계	<b>① 사업추진 역량</b> -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일관성 유지 - 클러스터 참여농가 조직화 정도	<b>① 사업추진 역량</b> -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일관성 유지 - 클러스터 참여농가 조직화 정도
	<b>② 네트워킹 활성화</b> - 참여기관 네트워크 밀도 및 지원체계 활용 실적 - 타 농림사업·제도 연계 실적, 사업 홍보실적	<b>② 네트워킹 활성화</b> - 참여기관 네트워크 밀도 및 지원체계 활용 실적 - 타 농림사업·제도 연계 실적, 사업 홍보실적
	<b>③ 예산집행관련</b> - 사업비 집행·관리의 투명성 및 적정성, 자부담 정도 - 예산 집행실적, 단위사업별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b>③ 예산집행관련</b> - 사업비 집행·관리의 투명성 및 적정성, 자부담 정도 - 예산 집행실적, 단위사업별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성과 단계	부 존재(중간 평가의 경우 성과 단계 평가는 배제)	<b>① 사업단 성과 달성도</b> - 사업 목표의 달성도 - 해당 사업에 대한 파급 효과
		<b>② 기술(연구) 사업화</b> - 기술 수준 및 경쟁 우위도
		<b>③ 사업단 공동 브랜드 관리</b> - 브랜드 구성 요소 - 브랜드 시장성 - 브랜드사용지침 및 관리 실태

## 평가 총평

- 중간 평가 결과 최우수 사업단은 영동포도, 우수 사업단은 경북한우, 안성마춤, 그리고 장려 사업단은 보성녹차, 하동녹차, 강원한우 하이록으로 선정되었으며, 최종 평가 결과 최우수는 영동포도, 우수 사업단은 경북한우, 풍기인삼 그리고 장려 사업단은 정읍순환, 경남 쌀, 제주감귤, 전남 쌀이 선정되었음
  
- 중간평가 결과 사업단의 수행실적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나 사업비의 수행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사업단이 미비한 경향이 있었으며, 각 사업단의 네트워크나 홍보 활동은 '06년 혁신활동평가(2월)에 비해 크게 발전된 것으로 평가
  - 한편, 최종 평가 결과 일부 사업단의 경우 지속적 혁신 활동을 통해 중간평가 대비 비약적 발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 사업단이 있음
  - 풍기인삼과 제주 감귤의 경우는 지역 혁신 역량의 집적화와 2차 가공 및 산업화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경남 쌀, 전남 쌀의 경우는 지역 참여 주체 사업화 및 사업성과의 효율성 측면에서 혁신 기반을 조성하여 최종평가 시 우수한 결과를 획득
  
- 최종 평가의 경우 첫째, 사업집행 단계에서 사업추진 역량 및 네트워킹 활성화 분야의 경우 지속적 혁신활동의 결과로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조직구성 및 제도정비, 참여농가 D/B구성을 통한 교육 등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둘째, 일부 사업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클러스터 사업단은 혁신 체계 구축, 생산기반 정비를 통해 사업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 되었음
- 셋째, 사업기반을 바탕으로 한 산업화 및 마케팅을 통한 사업 성과 달성도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마지막으로, 사업추진 역량과 네트워크 자원은 우수하나 기존의 농림사업 분야와의 차별성과 추진주체의 역할 미흡, 사업 추진 지연 등으로 가시적 성과 창출은 추진 역량에 비하여 미흡한 사업단도 존재함

## 향후 과제

-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은 지역농업의 산업화 마인드 내재화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 여부가 향후 핵심 과제임
  - 종전의 농업 정책은 생산기반조성측면의 농자재·농가운영자금지원 등 경상보조성격과 개별지원방식에 치중하므로, 농산품의 급속한 제품 수명 단축 추세를 고려하지 않는 단순 생산 집적지 중심의 취약한 클러스터 사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인프라, 물류, R&D, 지식 기반 서비스 등의 취약으로 농기업의 다양한 수요 충족이 곤란한 상태임
- 시범사업단은 본 사업을 통해 생산기반, 품질관리, R&D, 유통, 브랜드 및 네트워킹이라는 산업화 지원 시스템의 기반 구축이 시급히 요구되며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되기 위한 자율적인 클러스터 중심의 학습의 장(場)이 함께 구축될 시점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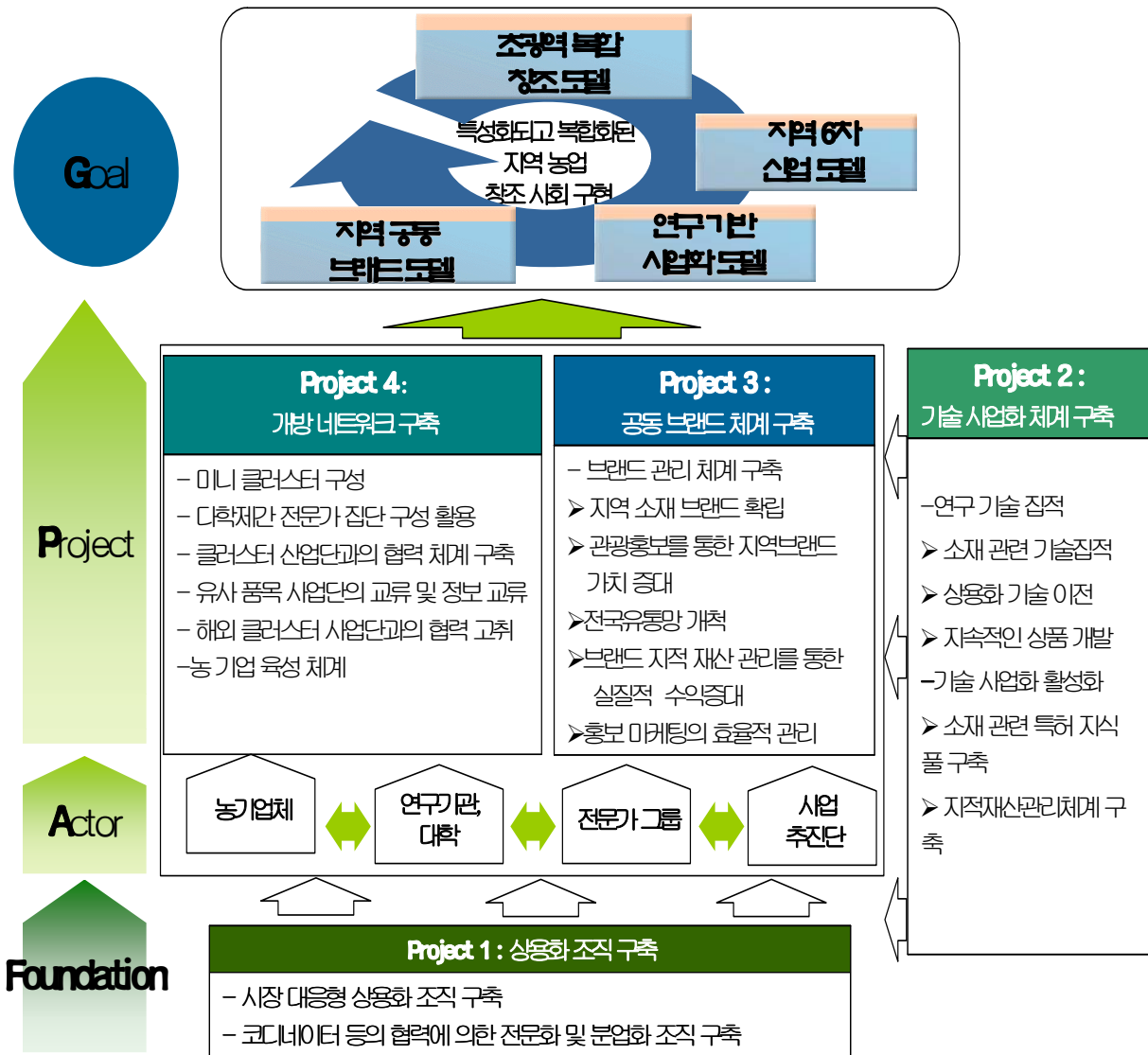
- 유형별로 해외 사례를 선정하여 그 성공요인과 시사점을 도출해 분석한 후 농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국내 모델 개발과 정책 지원방안 모색
  - 따라서 해외의 사례를 3가지 차원(자원 활용형 클러스터, R&D주도형 클러스터, 제조 기반형 클러스터)에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자원 활용형 클러스터의 성공사례로는 유럽의 오라선드 식품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분석하며, R&D주도형 클러스터의 성공 사례로는 샌디에고, 연구 결과의 사업화 성공 모델로는 영국의 BTG, 제조기반형 클러스터의 성공사례로는 미국 메릴랜드 바이오클러스터를 분석함

#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활성화 방안

## 1) 지역농업클러스터 차별화 모델 제시

- 사업단의 산업화 정도와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 공동 브랜드 모델, 연구기반사업화 모델, 지역 6차 산업 모델, 초 광역 복합 창조 모델로 분류될 수 있음

<그림> 지역농업클러스터 차별화 모델



## 2) 체계적 추진 전략과 실천 방안

### ○ 사업단의 책임 경영 체제 구축

- 현재 시범사업단의 경우 시장 지향적이고 마케팅적 대응을 원활히 수행함과 동시에 사업단의 중장기 사업 기획 및 집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인력이 부족한 시점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 대응형 조직을 구축하고(책임 경영 체제 확립), 전문 코디네이터를 통한 전문화 능력을 보완하는 것이 요구됨

### ○ 기술 사업화 기반 확립

-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으로부터 가공·유통 판매라는 가치 벨류 체인이 확립되어야 함
-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 사업화 체제 구축이 요구됨. 이는 낮은 단계의 농산물 가공 기술의 단계를 넘어 생산, 가공 및 향후 신약 개발 단계까지의 연구 설계 및 사업화 체계를 구축함에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상용화 기술 이전, 지속적인 상품 개발, 지적 재산관리 체계 구축 및 농 기술 특허폴 등의 활용이 요구됨

### ○ 농기업 보육 체계 선진화

- 외국의 사례 분석의 경우(예를 들어, 샌디에고 USCD Program) 처럼 지역 클러스터의 공고화는 기업 육성 체계에 상당 부분 달려 있음
- 따라서 지역 농업 클러스터의 공고화를 위해서는 농기업 지원 체계의 수립과 농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통한 매출 증대 및 고용 창출을 도와 줄 인큐베이팅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 지역 농업 클러스터의 경우 사업단의 목표에 대한 달성 부분에서 농 기업의 체계적 육성 결과 고용 창출과 매출 증대는 농 산업적 파급 효과에 대한 체계적 효과 측정 측면에서도 필요한 부분임

#### ○ 산업화를 달성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

- 사업단의 독자적인 공동 브랜드 관리 및 기술 사업화 능력을 제고하여, 사업단의 성장 모델에 의한 지역 농산업 클러스터 로써의 비전 및 추진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업 분야 이외의 다양한 전문가 및 전문 기관의 참여와 협력이 요구됨
- 따라서 다학제간 교류 확대, 미니클러스터 구성을 통한 품목별 산업화, 다양한 전문가(변호사, 변리사, MBA 출신 전문 경영 컨설턴트, 유통 전문가, 벤처 캐피탈 리스트 등)의 유기적 네트워크로 실시간 문제 해결 능력 공고화가 요구됨

### 3) 모델별 세부 지원 방안

#### □ 지역공동브랜드 모델

- 지역 공동 브랜드 모델에서는 자원 활용형 모델로써 해당 자원의 시장성을 확보하여, 판매에 중점을 두고 지역의 브랜드화를 통한 지원에 중점을 둠
- 따라서 생산, 제조, 설계, 디자인 서비스지원, 경영 등 지원 서비스 역량, 마케팅 역량, 지리적, 공간적 집적성이 중요한 요소임

#### □ 연구기반 사업화 모델

- 연구기반 사업화 모델에서는 연구 능력의 고도화를 통한 기술 집적과 확산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연구기반 역량보유, 농기업 활성화, 정보화역량, 인력공급역량, 기술정책 서비스 역량의 유기적 관계가 중요함

## □ 지역6차 산업화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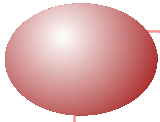
- 지역 6차 산업화 모델은 지역의 1차, 2차, 3차 산업이 상호 연관 관계를 조성하면서 2차 가공을 통한 농기업 육성이 요구되며, 산업화 기술 지원 역량,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대기업, 핵심기업 존재, 마케팅 역량이 요구됨

## □ 초 광역복합 창조 모델

- 초 광역 복합 창조 모델은 국제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특정지역만의 클러스터가 아니라 규모의 경제화가 요구되며 정책 조정 역량, 세계화 전략 보유, 주력산업의 활용 극대화, 사업화 협의를 위한 문화, 환경 수준이 중요한 사항임

**<표>지역 농업 클러스터별 세부 지원내역**

구분	지역 공동 브랜드 모델	연구기반 사업화 모델	지역 6차 산업화 모델	초 광역 복합 창조 모델
<b>유형별 중요 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리적,공간적 집적성</li> <li>-마케팅 역량</li> <li>-생산, 제조, 설계, 디자인 서비스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기반 역량보유</li> <li>-농기업 활성화</li> <li>-정보화 역량</li> <li>-기술 정책서비스 역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화 기술지원 역량</li> <li>-산,학,연협력 네트워크 활성화</li> <li>-대기업 핵심기업 존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 조정 역량</li> <li>-세계화 전략 보유</li> <li>-사업화 협의를 위한 문화, 환경수준 중요</li> </ul>
<b>사업개발/ 전략/농기업 보육</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타당성 평가</li> <li>-사업계획/전략 수립</li> <li>-농기업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 계획Upgrade</li> <li>-클러스터 기반의 농기업 인큐베이팅 체계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선점전략 수립</li> <li>-클러스터 기반의 농기업 인큐베이팅 체계 사업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장지배강화</li> <li>-해외 지자체 및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li> <li>-클러스터 기반의 농기업 인큐베이팅 체계의 포스트 BI 구축</li> </ul>
<b>기술/ 제품개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시장성 파악</li> <li>-시제품 테스트</li> <li>-지적재산권관리 규정 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상품, 신기술 개발과 검증을 위한 연구센터 운영</li> <li>-특히 지식포 운영</li> <li>-지적재산권관리 규정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신 기술 동향을 점검하기 위한 전문가 위원회 운영</li> <li>-지적재산권관리 규정 운영 및 수익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제품개발</li> <li>-해외경쟁업체분석</li> <li>-최신 기술 동향을 점검하기 위한 전문가 위원회 운영</li> </ul>
<b>공동브랜드/ 유통(마케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외 시장조사</li> <li>-대상고객/경쟁자 분석</li> <li>-공동브랜드 관리 체계 정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쟁제품동향분석</li> <li>-타켓시장선정</li> <li>-농기업 유치에 위한 마케팅 및 이미지 홍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 언론 홍보시작</li> <li>-마케팅 전략수립</li> <li>-유통법인 설립준비</li> <li>-공동브랜드 관리를 통한 라이선싱 수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진출 계획</li> <li>-고객관리</li> <li>-해외유통채널확보</li> <li>-해외시장동향분석</li> <li>-수출 네트워크 형성</li> </ul>
<b>인력/조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단멤버 구성</li> <li>-사업참여자네트워크</li> <li>-농업기업경영자간 네트워킹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단 인력 교육</li> <li>-개발인력유지방안</li> <li>-전문인력 활용</li> <li>-코디네이터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EO/CFO전문가</li> <li>-적절한 업무 분장</li> <li>-지역 기술협력체 지원</li> <li>-전문인력 유치</li> <li>-미니클러스터 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과보상체계확립</li> <li>-신규인력 확보</li> <li>-경영자신포성제고</li> <li>-조직 개편 및 핵심인력 충원</li> <li>-코디네이터 제도화</li> <li>-미니클러스터 활성화</li> </ul>
<b>자금/ 투자유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금운영 계획 및 관리</li> <li>-클러스터프로젝트에 대한 우선 자금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금운영 계획</li> <li>-회계사 등 전문가 활용</li> <li>-기업간 협력프로젝트에 원천자금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가에 의한 자금 흐름 분석</li> <li>-클러스터 참여주체의 공동 리스크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유치IR활동</li> <li>-국외투자유치추진</li> <li>-해외자본 투자</li> <li>-협력자본유치사업 활성화 및 신용보증 제공</li> </ul>
<b>네트워킹</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클러스터 실무 사업단 구성</li> <li>-농기업간 네트워크 육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기업간 네트워크 육성 및 제도화</li> <li>-기술표준 개발 및 기술 협의회 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장 정보의 집적과 제공</li> <li>-통합 유통 네트워크 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 네트워크 형성</li> <li>-타 부문 기관 및 클러스터와의 협력 체계 구축</li> </ul>



## 제1장 평가 연구의 개요

제1절 평가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평가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제1장 평가 연구의 개요

## 제1절 평가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 평가 연구의 필요성

- DDA 협상, 한·미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농산업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생산기반 중심의 하드웨어 접근에는 구조적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시장 경쟁 체제하에서 생산 규모의 경쟁에 따른 비교 우위 접근에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며 보다 소비자 중심적이고 다양한 상황 변수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장 대응 위기관리 체계가 요구됨
  - 따라서 지역 농업은 종래의 생산 및 거래비용 축소를 위하여 구상된 단순한 산업 집적지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기술혁신과 지식창출의 근원지로서 기능 및 역할의 기대
  - 농업의 신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지역 산업이 부각되면서 지역농업클러스터의 의미가 부각됨

### □ 평가 연구의 목적

- '04년 「농업·농촌종합대책」을 통하여 발표된 지역농업클러스터 정책은 지역의 농산업을 클러스터라는 혁신주체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음

- 기존의 개별사업 중심의 투융자를 지역농업 조직의 관점에서 체계화함으로써 재정 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며,
  - 패키지 지원 방식의 농정 혁신, 가용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발전, 기술 집적을 통한 농산업의 경쟁력 혁신을 주요한 내용으로 함
- 1990년대 중반 OECD에서 각국의 클러스터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음
  -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클러스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경향임. 특히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혁신의 중심지이며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클러스터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 그러나, 국내의 경우 연구경험이 짧고, 클러스터 현황 및 특성에 대한 기초 연구 및 적용 사례 분석이 미흡한 실정임
  - 더욱이 농업 분야에서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은 실증적이며 현장 중심의 정책 집행 경험 부족에서 나타나는 혼선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의 최종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지역 농업의 특성을 기반으로 클러스터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 사업 시행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시함으로써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제2절 평가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 시범 사업단의 개념과 유형

#### 1) 지역농업클러스터 개념

-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에서 농림부는 지역농업클러스터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음
  - “일정지역에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등과 관련된 주체를 중심으로 産·學·官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가용자원의 최적이용을 통해 지역농업을 혁신하는 농산업 결집체”임
  
- 그러나, 지역농업클러스터라는 용어에 이미 지역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점, 농업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1차 산업을 의미하기 때문에 농산업으로 확장할 필요성, 클러스터의 구성요소를 농과대학이나 농업관련기관에 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농산업 클러스터’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즉, 농산업 클러스터란 “일정 지역에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 등과 관련된 농업 경영 체와 농산업체, 대학 및 연구소, 행정기관·단체 등이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경쟁과 협력을 통하여 지역농업 혁신의 상승효과를 이루어가는 집합체”라고 정의할 수 있음\*

---

\* 김정호외, ‘지역농업클러스터 발전 방안’(KREI, 2006)

- 농림부의 지역농업클러스터의 개념은 초기 농업적 측면에서 개념 정립의 소극적 접근으로 산·학·연의 구조화적 접근임
- 농산업클러스터의 적극적인 개념 해석을 근거로 시장 경제 측면에서의 경쟁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농업 경영체의 체계적인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개념 해석이 요구됨

## 2) 시범 사업단 유형

- 시범 사업에서 클러스터의 유형은 대상지역의 범위와 주도적 혁신 주체로 구분함
- 대상지역의 범위에 따른 구분
  - 기초단위 : 단일 시군구 또는 복수 시군구 클러스터
  - 광역단위 : 광역시도별 1개 또는 복수의 클러스터
  - 초 광역단위 :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친 클러스터
- 주도적 혁신주체에 의한 구분
  - 대학·연구소 주도형, 생산자단체 주도형, 산업 관련기업 주도형, 지자체 주도형

<표1> 시범 사업의 클러스터 유형별 분포

구 분	주도적 혁신주체 구분				특성화 정도 구분			
	대학·연구소	생산자단체	관련기업	지자체	생산·유통	가공	테마	
기초	단수(13)	영동포도, 풍기인삼(2)	안성마춤(1)	포천한과(1)	괴산고추, 아산친환경, 서천모시, 장수사과, 정읍순환농업, 임실치즈, 보성녹차, 함평과학농업, 하동녹차(9)	안성마춤, 괴산고추, 장수사과, 임실치즈, 보성녹차, 풍기인삼(6)	포천한과, 영동포도, 서천모시, 함평과학농업, 하동녹차(5)	아산친환경, 정읍순환농업(2)
	복수(5)	경남양돈(1)	강원한우, 백두대간, 전남쌀, 경남쌀(4)			강원한우, 백두대간, 전남쌀, 경남쌀, 경남양돈(5)		
	소계(18)	3	5	1	9	11	5	2
광역(2)	경북한우(1)			제주감귤(1)	경북한우, 제주감귤(2)			
합계(20)	4	5	1	10	13	5	2	



## 2. 평가 목적 및 평가 지표

### 1) 평가 목적

- 중간 평가의 목적은 사업단의 구조와 사업 집행에 대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최종 평가의 경우에는 사업단의 성과 달성도, 기술(연구) 사업화 및 사업단 공동 브랜드 관리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효과성, 지역의 독자적이며 차별적인 정체성 및 농산업으로써의 지역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파급 효과에 중점을 두었음

### 2) 평가 지표의 주요 개념 및 상호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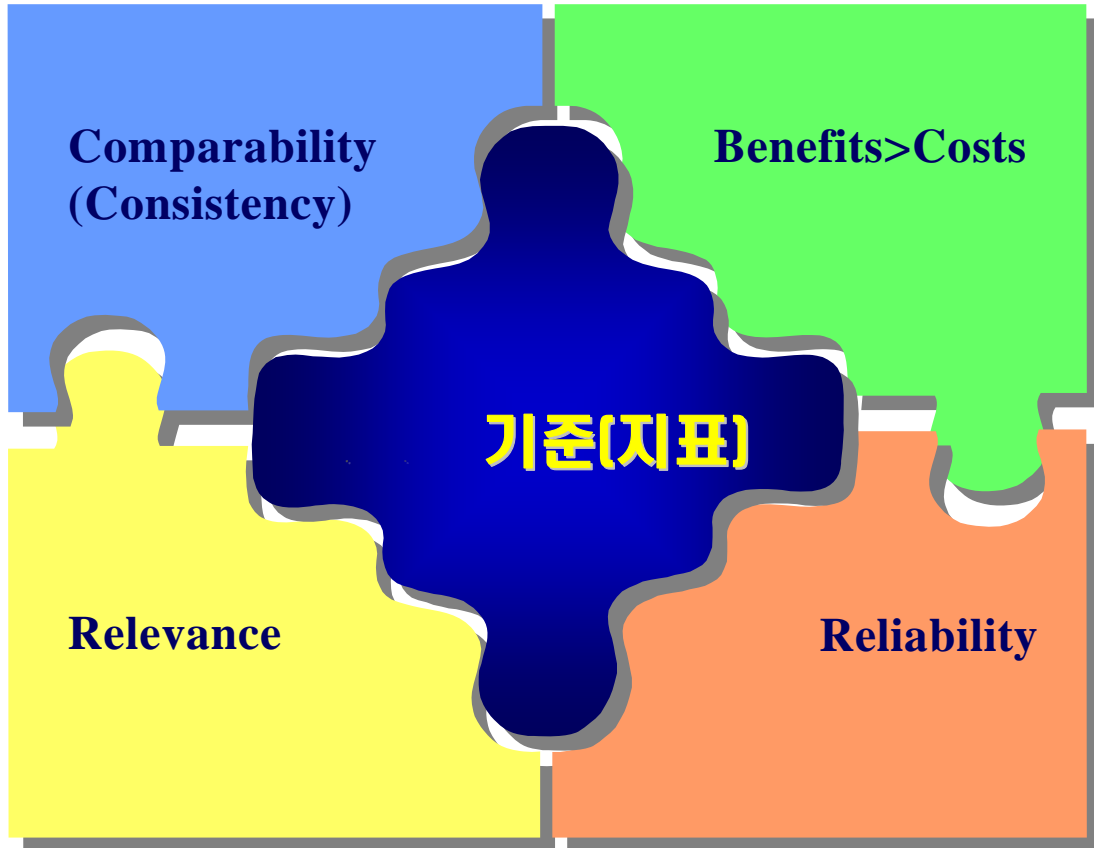
#### ○ 평가 지표의 주요 개념\*

- 주요 지표의 내용은 목적 적합성, 신뢰성, 비교 가능성(일관성) 및 편익/비용(Benefits>Costs) 비교가 있음
- 목적 적합성(relevance)은 정보가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을 갖는 것을 말함
- 신뢰성(reliability)은 오류와 편익(bias)없이 정보의 충실성을 반영한 것임
- 편익/비용(Benefits>Costs) 비교는 투자 비용 대비 효과(편익)의 분석을 통해 투자에 대한 기대 효과를 판단하는 것임
- 일관성(Consistency)은 유사한 성격 간 비교성을 높이는 비교가능성과 유사한 성격의 기술에 대하여 동일한 측정 및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

\* O.Ray Whittington, CPA, PhD, 'Wiley CPA Exam Review 2006'

<그림1> 평가 지표 주요 개념



○ 평가 지표의 개념적 상호 관계

- 평가 지표의 주요 속성에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있는 데, 서로 상충 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음
- 예를 들어, 신뢰성을 강조하기 위해 평가 지표 개발에 중점을 두면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시간, 비용의 과대로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목적 적합성을 강조하면 신뢰성은 떨어지나 효율성은 높아 짐
- 따라서, 평가 지표 간의 개념적 특성을 반영하면서 상호 개념 간의 조화로운 접근이 요구됨

### 3) 평가 지표의 비교

#### □ 평가 지표는 준비 단계, 집행 단계 및 성과 단계로 구성됨

○ 준비 단계의 경우에는 사업단의 사업 수행을 하기 위한 기반 사업 조직 단계 검토로 사업추진체계 구축, '06예산 지방비 확보, 사업추진을 위한 규정 및 제도정비 실적으로 구성됨

○ 집행 단계에서는

① 사업추진 역량(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일관성 유지, 클러스터 참여농가 조직화 정도)

② 네트워킹 활성화(참여기관 네트워크 밀도 및 지원체계 활용 실적, 타 농림사업·제도 연계 실적, 사업 홍보 실적)

③ 예산집행관련(사업비 집행·관리의 투명성 및 적정성, 자부담 정도, 예산 집행실적, 단위사업별 계획 대비 사업추진 실적)으로 구성 됨

- 사업추진 역량에서는 사업 수행 주체의 지속적인 업무 집행과 네트워킹 부분에서는 참여 기관의 실질적 활동을 통한 성과 도출을 중요시하여 평가함

○ 성과 단계에서는

① 사업단 성과 달성도( 사업 목표의 달성도, 해당 사업에 대한 파급 효과)

② 기술(연구) 사업화( 기술 수준 및 경쟁 우위도)

③ 사업단 공동 브랜드 관리(브랜드 구성 요소, 브랜드 시장성, 브랜드 사용 지침 및 관리 실태)로 구성됨

- 기술(연구)의 사업화는 연구 결과가 관련 농가 및 농기업체에 도움을 주어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기여한 경우에 중점을 두고, 공동 브랜드 관리는 브랜드의 통합 및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사후관리를 통한 라이선싱 수익 등의 가능성 검토를 함
- 특히, 중간 평가는 준비 단계, 집행 단계로 나누어 평가됨
- 전년도 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평가 지표의 세분화를 통해 자료의 객관화\*에 중점을 두어 평가되었음
- 최종 평가는 집행단계 및 성과단계로 평가 지표를 세분화함
- 사업 결과의 정성적 측면(사업단의 브랜드 관리 및 기술(연구)사업화 등)을 전문가 집단의 다면 평가를 통해 질적 보완을 하였음

---

\* 자료의 객관화는 사업 계획서에 제시된 사항이 현장 실사 시에 입증할 만한 자료 등이 확인 가능 (vouching)해서 제 3 자가 동일 절차를 통해 수행해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 되는 것을 말함

<표2> 중간 평가 및 최종 평가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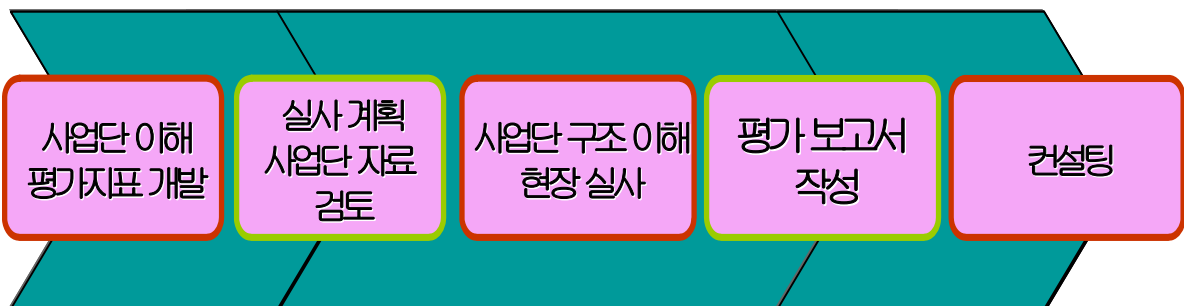
구 분	중간 평가	최종 평가
준비 단계	사업추진체계 구축	부 존재(최종 평가의 경우 준비 단계 평가는 배제)
	'06예산지방비 확보	
	사업추진을 위한 규정 및 제도정비 실적	
집행 단계	<b>① 사업추진 역량</b> -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일관성 유지 - 클러스터 참여농가 조직화 정도	<b>① 사업추진 역량</b> -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일관성 유지 - 클러스터 참여농가 조직화 정도
	<b>② 네트워킹 활성화</b> - 참여기관 네트워크 밀도 및 지원체계 활용 실적 - 타 농림사업·제도 연계 실적, 사업 홍보실적	<b>② 네트워킹 활성화</b> - 참여기관 네트워크 밀도 및 지원체계 활용 실적 - 타 농림사업·제도 연계 실적, 사업 홍보실적
	<b>③ 예산집행관련</b> - 사업비 집행·관리의 투명성 및 적정성, 자부담 정도 - 예산 집행실적, 단위사업별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b>③ 예산집행관련</b> - 사업비 집행·관리의 투명성 및 적정성, 자부담 정도 - 예산 집행실적, 단위사업별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성과 단계	부존재(중간 평가의 경우 성과 단계 평가는 배제)	<b>① 사업단 성과 달성도</b> - 사업 목표의 달성도 - 해당 사업에 대한 파급 효과
		<b>② 기술(연구) 사업화</b> - 기술 수준 및 경쟁 우위도
		<b>③ 사업단 공동 브랜드 관리</b> - 브랜드 구성 요소 - 브랜드 시장성 - 브랜드사용지침 및 관리 실태

#### 4) 평가 진행 과정

##### ○ 평가 진행 과정

- 첫째로, 평가 지표를 지역 농업 클러스터에 맞게 보완 및 개발을 하고, 이에 따라 사업단의 현황을 파악 후 기초적인 이해\*를 함
- 둘째로, 사업단 현장 실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실사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단의 중요 평가 사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사항과 실사 운영 실행 계획을 수립함
- 셋째로, 평가 자료 중심의 검토와 사업단의 내부 구조를 이해하고 현장 실사를 통한 자료의 신뢰성, 사업단의 사업 진행 사항 등을 점검하고,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수행함
- 마지막으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단에 맞는 컨설팅을 통한 문제점의 개선에 도움을 줌

<그림2> 평가 진행 과정



\* 최근의 평가 경향은 현장 실사를 통한 증거 자료 확보(examing the evidence)보다는 사전 기획을 통한 피평가 대상의 위험 요소(예를 들어, 사업단 자체의 위험, 부정, 불법 가능성 등)을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강구하여 평가의 기획력을 제고하고 있음

\*\* 평가 실사 계획을 통한 분석 결과 사업단의 사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실사의 범위(범위를 넓게 할 것인가?), 내용(현장 실사를 전수 조사를 통한 검토를 할 것인가?), 시간(평가 실사 기간에 집중적으로 할 것인가?)을 결정함

### 3. 평가 방법

- 시범사업의 평가는 각 사업단별 업무성격, 추진방법, 품목 등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 서면평가와 전문가평가로 실시되었음

<표3>시범사업의 평가 가중치 및 평가주체

구 분	중 간 평 가			최 종 평 가	
	혁신활동평가	서면 평가	다면 평가	서면 평가	다면 평가
가중치 (100%)	30%	50%	20%	50%	50%
평가 주체	농림부+ 농관원	서면평가위원회 (농림부+농관원+ KIPF)	전문가 평가위원회	서면평가위원회 (농림부+농관원+ KIPF)	전문가평가 위원회

- \* 가/감점(건당 1점) : 우수사례 및 평가자료 충실도 등(가점), 사업지침위반 등(감점)
- \* 서면 평가는 사업단의 사업 실적을 현장 실사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만을 토대로 서면평가위원회의 분임토의와 계량화를 토대로 점수화 함

- 각 사업단별 업무성격, 추진방법, 품목 등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하여 서면평가와 다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의 신뢰성 및 사업단의 현실 반영성이라는 두 가지 이념을 조화롭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음

<표4> 중간 평가와 최종 평가 방법 비교

구 분	중간평가	최종평가
목적	사업단 구조 이해	사업단의 성과의 질적 이해 및 평가
지표	조직, 역량, 네트워킹, 예산집행	조직, 역량, 네트워킹, 예산집행, 목표달성도, 기술의 사업화, 공동브랜드
실사 구성	KIPF, 농관원	KIPF, 농관원, 외부 전문가
방법	서면 평가, 전문가 평가	서면 평가, 전문가 평가
기대 효과	사업의 효율성 강조: 사업단 계량화	사업단의 다양성 및 정성적 측면 강조 사업단의 한계에 대한 체계적 컨설팅
평가지기	'06. 9월~10월	'07. 2월~3월

## 4. 평가 보고서의 내용

### ○ 평가 보고서의 주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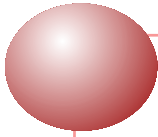
- 시범사업단의 평가 결과(중간 평가, 최종 평가)를 비교 및 분석하고, 평가 결과의 검토를 통한 한계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향후 본 사업의 정책적 방향성에 도움을 주고 지역 농업 클러스터의 특수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외국의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국내 적용 모델의 경우 IT 중심의 모델이나 제조 모델(예를 들어, Toyota의 분석이나 헐리우드의 분석 등)은 농산업 육성 모델에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임
- 따라서 농산업에 부합한 해외 사례 모델 분석을 통한 국내 모델 개발의 실효성 확보를 하고자 함
- 또한, 국내의 특성에 부합되는 새로운 모델 개발과 세부 지원 방안의 검토를 통한 육성 방향을 제시함

### ○ 평가 보고서의 순서

- 제1장에서는 평가 개요로써 평가 목적 및 필요성, 평가 내용 및 방법을 검토함
- 제2장에서는 평가 결과 분석으로 평가 결과 개요, 평가 항목별 분석, 평가 총평 및 해외 클러스터 모델 현황과 새로운 모델 개발을 설명하는 데, 해외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자원 주도형 모델, 제조 주도형 모델 및 연구 주도형 모델을 분석하고자 함



- 제3장과 제4장의 경우는 지역 농업 클러스터의 비전 및 추진 세부과제,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 특히, 농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농 기업 경영체의 육성,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 농산업 육성 펀드 등의 중·장기 육성 방안의 제시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제2장 평가 결과 개요

제1절 평가 개요

제2절 평가 항목별 분석

제3절 평가결과의 종합적 총평

제4절 향후 과제

## 제2장 평가 결과 개요

### 제1절 평가 개요

#### 1. 평가 결과 총평

- 1) 중간 평가의 목적은 사업단의 구조와 사업 집행에 대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최종 평가의 경우에는 사업의 효과성, 지역의 독자적이며 차별적인 정체성 및 농산업으로써의 지역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파급 효과에 중점을 두었음
- 2) 중간 평가 결과 최우수 사업단은 영동포도, 우수 사업단은 경북 한우, 안성마춤, 그리고 장려 사업단은 보성녹차, 하동녹차, 강원 한우 하이록으로 선정되었으며, 최종 평가 결과 최우수는 영동포도, 우수 사업단은 경북한우, 풍기인삼 그리고 장려 사업단은 정읍순환, 경남 쌀, 제주감귤, 전남 쌀이 선정되었음
- 3) 중간 평가 및 최종 평가의 수행 실적 비교

#### <중간평가>

- 중간평가 결과 사업단의 수행실적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나 사업비 수행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사업단이 미비한 것으로 파악됨
- 이는 '05년 사업비가 대부분 '06년으로 이월됨에 따라 2년분의 사업비를 동시에 집행함으로써 발생한 문제로 보임

- 각 사업단의 네트워크나 홍보 활동은 상반기에 비해 많이 발전되었으나 이를 기반으로 한 향후 대책은 불투명한 사업단이 대다수인 것으로 평가됨

### <최종평가>

- 최종 평가 결과 일부 사업단의 경우 지속적 혁신 활동을 통해 중간평가 대비 비약적 발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 사업단이 있음
  - 풍기 인삼과 제주 감귤의 경우는 지역 혁신 역량의 집적화와 2차 가공 및 산업화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경남 쌀, 전남 쌀의 경우는 지역 참여 주체 사업화 및 사업성과의 효율성 측면에서 혁신 기반을 조성하였음
- 사업집행 단계에서 사업추진 역량 및 네트워킹 활성화 분야의 경우 지속적 혁신활동의 결과로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조직구성 및 제도정비, 참여농가 D/B구성을 통한 교육 등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일부 사업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클러스터 사업단은 혁신체계 구축, 생산기반 정비를 통해 사업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됨
  - 사업기반을 바탕으로 한 산업화 및 마케팅을 통한 사업성과 달성도는 아직 미흡한 점이 도출됨
  - 사업추진 역량과 네트워크 자원은 우수하나 기존의 농림사업 분야와의 차별성과 추진주체의 역할 미흡,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가시적 성과 창출은 추진 역량에 비하여 미흡한 사업단도 존재함

## 2. 중간 평가와 최종 평가 비교 총평

### 1) 중간 평가의 준비단계 분석

- 대부분의 사업단이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사업담당조직을 확대하여 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음
  - 지방비 확보는 풍기인삼, 경남양돈, 장수사과를 제외한 모든 사업단이 '05년도에 지방비 100%를 확보하였음
  - 모든 사업단이 외부지원조직을 구축하였으나 실질적 기대효과를 얻은 사업단은 일부로 나타났음

### 2) 최종 평가의 중간 단계 및 성과 단계 분석

- 이 경우는 준비단계 지표가 부 존재 하나 사업추진역량, 네트워킹 활성화, 사업비 수행도의 집행단계는 중간 평가와 최종 평가에 공동으로 존재하므로 비교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제시함
  - 중간 평가의 경우는 사업 계획 대비 효과를 달성하는 성과단계는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함\*

---

\* 자세한 이해는 『<표2> 중간 평가 및 최종 평가의 비교』 사항을 참조

<표5> 중간 평가와 최종 평가 비교

구분 지표	중간 평가	최종 평가	시사점
사업 추진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사업단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을 1회 정도 변경하였으며,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구상하지 못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단이 있음</li> <li>- 현실성 있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융통성 있게 사업계획을 변경했다는 사업단도 존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개 사업단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4개 사업단이 총괄책임자가 변경되는 등 사업추진의 일관성에 문제가 발견되었음</li> <li>○ 참여농가 조직화 부분에 있어 사업단은 유통정보 제공 등 핵심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작목반과 법인단체가 클러스터 사업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활발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단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간 평가와 최종 평가의 경우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구상하지 못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와 지자체 주도형의 경우 해당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총괄책임자와 사업단장이 변경되는 등 사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문제가 있음</li> </ul>
네트워킹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사업단은 자문단, 참여기관의 실질적인 역할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음</li> <li>○ 다수의 사업단에서 사업추진의 비중이 일부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전체적인 클러스터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주도세력과 제3기관의 효율적 조율이 절실한 것으로 평가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식적인 네트워킹의 구조화는 보이나 일부 사업단은 자문단, 참여기관의 실질적인 역할이 부재한 것으로 보임</li> <li>- 형식적 측면의 네트워크는 구축되어 있으나, 사업이 품목 중심의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분야로 연계를 통한 산업화 벨류 체인의 고도화, 산·학·연의 실질적인 경쟁과 협력 체계가 균형적으로 조화된 실질적 네트워킹 활성화가 부족한 사업단이 상당수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간 평가와 최종 평가의 경우 형식적인 네트워킹의 구성은 되어있으나 일부 사업단의 경우 자문단, 참여기관의 실질적인 역할이 부재한 것이 나타남</li> <li>- 사업 분야별 전문가 지원 체계를 통한 클러스터 참여자의 핵심 역량 극대화가 요구됨</li> </ul>
사업비 수행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비 수행에 있어 집행 관리의 투명성 부분은 20개 사업단 대부분에서 잘 이행되고 있으나 자부담이나 예산집행의 실적은 대부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음</li> <li>○ 생산기반 정비 분야 사업비가 많은 사업단의 경우 부지선정, 각종 규제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어 예산집행이 부진한 사업단 존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행 관리의 투명성 부분은 잘 이행되고 있으나, 예산집행에 있어 예산액의 100%를 집행한 사업단이 있는 반면, 30% 미만인 사업단도 존재</li> <li>○ '05년 수립된 사업계획의 변동 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단이 예산 집행 실적이 우수</li> <li>○ 농가 지원 사업이 많은 사업단은 농가 사업포기, 농가 선정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체계적 개선안의 개발과 도입이 절실하며, 사업의 정착을 위해서는 민간 사업화 펀드 조성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li> </ul>

\* 예를 들어, 사업단 사업 성과를 공유하며,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을 보장한다는 전제에서 BTL 방식 등을 통한 민간 투자 방식이 연구되어야 함

구분 지표	중간 평가	최종 평가	시사점
<p style="text-align: center;"><b>사업 목표의 달성도</b></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존재 (중간 평가의 경우 성과 단계 평가는 배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목 특정성을 가지고 당초 사업계획 하에 혁신CEO와 지자체의 유기적 협조를 바탕으로 연구기관이 주도적으로 사업추진에 참여하는 사업단이 목표 달성도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음</li> <li>○ 원재료의 생산기반구축, 제품개발을 위한 여건 조성 등 산업화를 위한 기반조성은 전반적으로 구축되었으나, 해당사업에 대한 지역 과급 효과 부분은 미비한 경향이 있음</li> <li>○ 국고지원 중단에 대비한 자생능력방안 부족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고지원 중단에 대비한 자생능력방안 마련 측면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한 사업단이 대부분임</li> <li>- 지자체 주도형 뿐 아니라 연구기관 주도형도 대책 마련이 요구됨</li> <li>- 민간주도 법인형의 경우 자생의지는 있으나, 영세성과 참여기관의 자조급 마련 등의 의지부족 등의 요인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기술 (연구)의 사업화</b></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존재 (중간 평가의 경우 성과 단계 평가는 배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사업단의 경우 연구용역을 통한 기술개발은 많이 하고 있으나 이를 통한 상품개발 및 사업화는 전망이 불투명한 경우도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기관 주도형이 연구기술의 사업 활용 등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연구 및 해당 특허권 등의 성과를 확산 부분 미흡</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공동 브랜드 관리</b></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존재 (중간 평가의 경우 성과 단계 평가는 배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은 전 사업단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시장성이 검증된 브랜드를 통해 산업화 및 마케팅 단계로 진입한 사업단은 극소수임</li> <li>○ 브랜드를 관리할 규정은 미비한 경우가 많아 앞으로 개선이 요구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사업단을 제외한 전 사업단이 브랜드를 개발하고 상품화 하려는 단계에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li> </ul>

## 제2절 평가 항목별 분석

### 1. 평가 항목별 분석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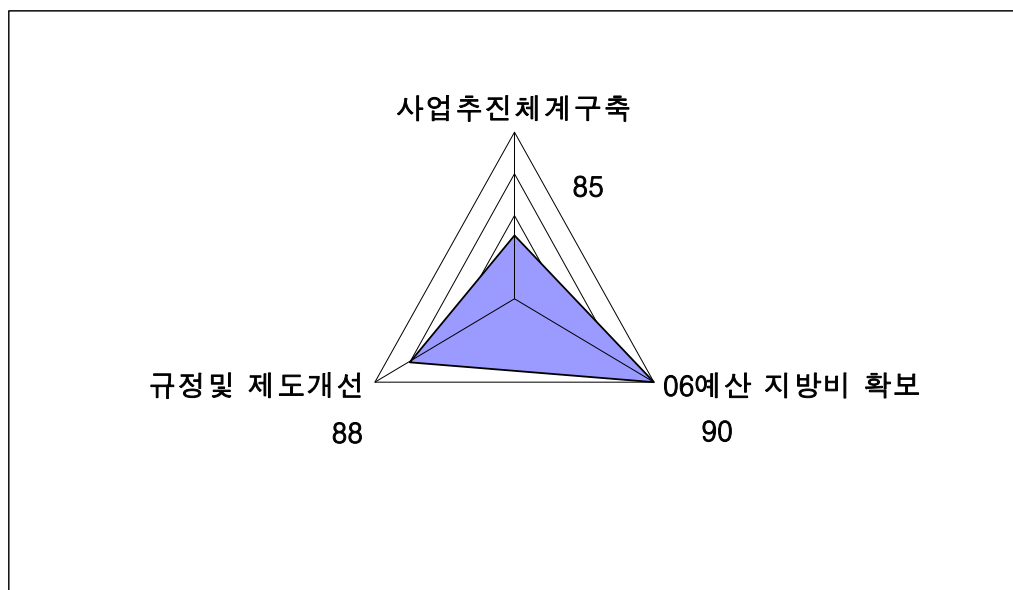
1) 최종 평가의 경우는 준비단계 지표가 부 존재 하나 사업추진역량, 네트워킹 활성화, 사업비 수행도의 집행단계는 중간 평가와 최종 평가에 공동으로 존재하므로 비교 분석 함

○ 성과단계의 경우는 최종 평가에만 속하는 지표이기에 중간 평가는 생략함

### 2) 중간 평가의 경우 준비단계 평가 항목별 분석

○ 종합적으로 볼 때, 사업추진체계 구축(85), 규정 및 제도 개선(88), '06 예산 지방비 확보(90)의 결과를 나타냄

- 이를 통해 사업추진 체계 구축의 보완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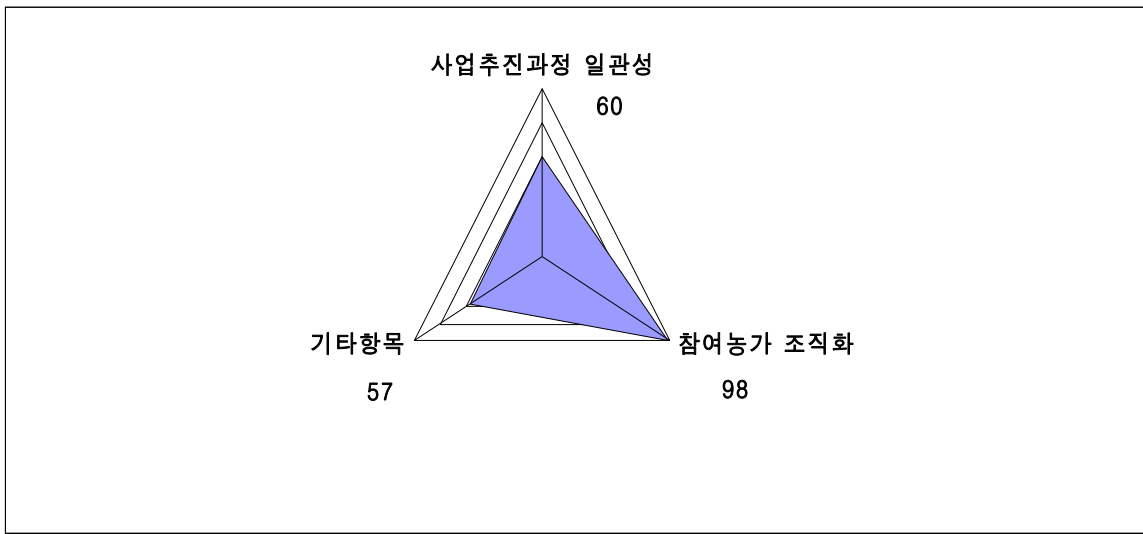


- 사업추진체계 구축은 전담조직과 전담인력을 대부분 사업단에  
서 확보하였으나, 외부 지원조직 구축을 하고 그 활용이 없는  
사업단이 있으며, 새롭게 조직을 신설하였으나 기존의 조직운  
영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경우 존재
  - 클러스터 중심체 역할이 미흡한 사업단은 임실치즈, 함평과학  
농업이 해당됨
  
- 예산(지방비) 확보는 대부분 사업단이 지방비를 확보하였음
  - 풍기인삼은 지방비의 도비 30%를 2006년 9월 7일 확보하였으  
며, 경남양돈도 2006년 4월 6일에 시군비가 늦게 확보되었으며  
장수사과 역시 지방비 100%가 2006년 4월 8일에 확보되었음
  
- 사업추진을 위한 규정 및 제도 정비 실적(제도개선)은 지역농  
업 클러스터 로드맵 각 세부과제의 사업추진과 정책지원추진  
에서 반 이상이 좋은 결과를 도출하였음
  - 관련제도 지침 운영 및 개선과 사업비 집행 등을 위한 규정  
및 제도를 재·개정한 실적이 중복되는 사업단이 있음

## (1) 사업 추진 역량

### □ 중간 평가

- 종합적으로 볼 때, 사업추진과정 일관성(60), 참여 농가 조직화(98), 기타 항목(57)의 결과를 나타냄
  - 이를 통해 사업추진 과정의 일관성 보완이 요구되며, 전문 인력에 의한 사업단의 지속적인 업무 집행이 요구됨



### ①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일관성 유지

-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사업계획을 변경한 사업단은 강원한우하이록, 백두대간, 아산친환경, 정읍순환농업, 보성녹차, 전남친환경쌀, 풍기인삼, 경남양돈산업, 제주감귤 등 11개 사업단은 사업변경실적이 1회 있으며 나머지 9개 사업단은 당초의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변경과정에서 행정절차 준수여부는 각 사업단의 사업계획과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의 변경과정에서 사업단 모두 행정절차를 명확하게 준수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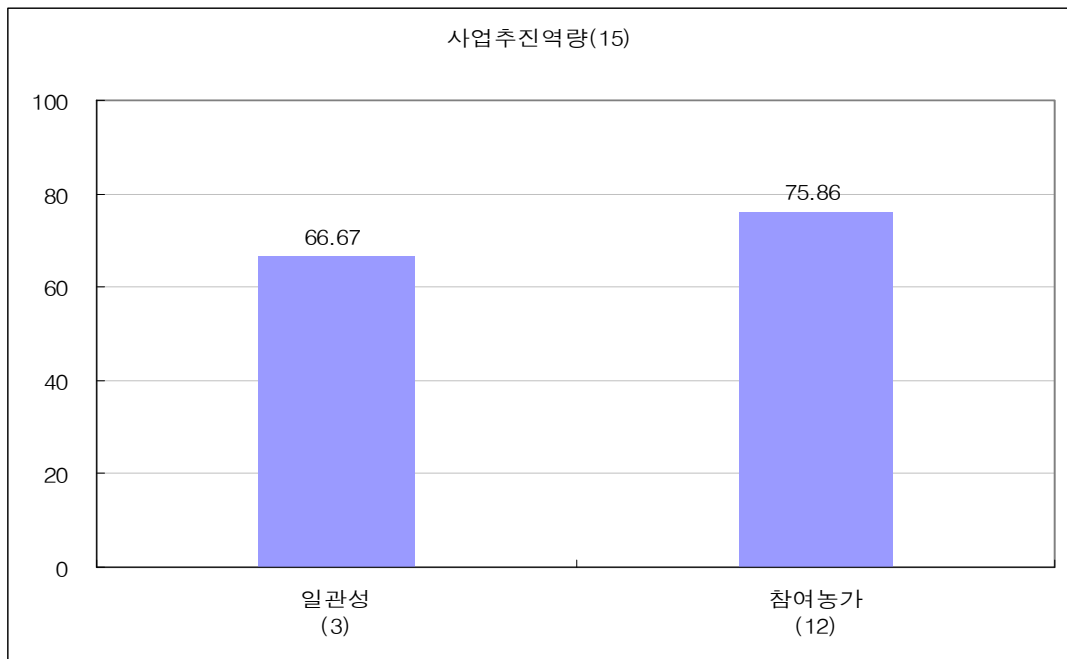
## ② 참여농가의 조직화 정도

- 참여농가 조직화 정도는 대부분 사업단의 경우 사업설명회, 영농기술 등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단은 사업관련 농업인, 가공단체 대상이 아닌 사업단원의 교육 위주로 진행되어 개선이 필요함
  
- 일부 사업단의 교육은 참석인원이 소수인원으로 실시되었음
  - 많은 농업인과 관련인이 참석하여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작목반, 농업법인 구성 여부는 클러스터 사업단 성격상 작목반과 영농조합법인 및 여러 법인형태로 모든 대부분 사업단이 구성되었음
  - 일부 사업단은 지역의 작목반과 법인을 구성하고 사업단과 밀접한 관계를 갖지 않고 리스트만 구성한 사업단도 있음
  - 우수한 사업단에서는 작목반과 법인단체가 클러스터사업과 밀접한 관계로 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단에서 생산기반설비와 축제 및 유통정보 공유 등 활발한 활동을 사업단과 함께 하고 있음
  
- 참여농가 D/B 구축(전산화) 및 활용 현황 역시 클러스터사업의 성격상 모든 사업단이 참여농가 현황을 D/B 구축하고 있음
  - 우수한 사업단 경우, 웹상에서 참여농가가 재배면적, 사육두수 등 영농진행사항을 입력을 하고 사업단이 관리하며 참여농가와 사업단이 함께 전산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농가에 좋은 반응을 보이는 사업단이 있음

- 자체 생산 품질 관리 규정 및 자체 연구 설계 마련 유무는 우수한 사업단의 경우 자체품질기준을 마련하여 자체 연구 설계를 개발하여 진행 중에 있음
  - 미흡한 사업단의 경우 식품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담고 있는 식품공전을 구비하였으나 사업단에 실제 적용되지 않는 사업단도 존재함
- 농가 현장애로기술 발굴 및 유통지원 등의 실적은 사업단에서 농가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교육하며 외부기관의 연구용역 등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음
  - 유통단계에 있는 일부 사업단은 브랜드 유통 벤치 마킹, 홍보를 통해 유통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적 유통지원이 미흡한 편임

#### □ 최종 평가

- 종합적으로 볼 때, 일관성 유지(66.67), 참여 농가의 조직화 정도(75.86)의 결과를 나타냄. 이를 통해 사업추진 일관성 유지를 위한 제도 보완이 요구됨



## ①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일관성 유지

- 사업계획 유지, 총괄책임자 변경 및 참여기관 변경 사항을 기초로 사업의 일관성을 평가함
  - 사업비 집행 잔액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도 있으나,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비현실적 아이템 선정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지자체의 경우 인사이동으로 총괄책임자가 변경되어 사업의 일관성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다수 시군참여 클러스터는 생산기반설비 등 해당군의 혜택 미흡을 이유로 사업 중간에 탈퇴하는 경우도 발생했음

## ② 참여농가의 조직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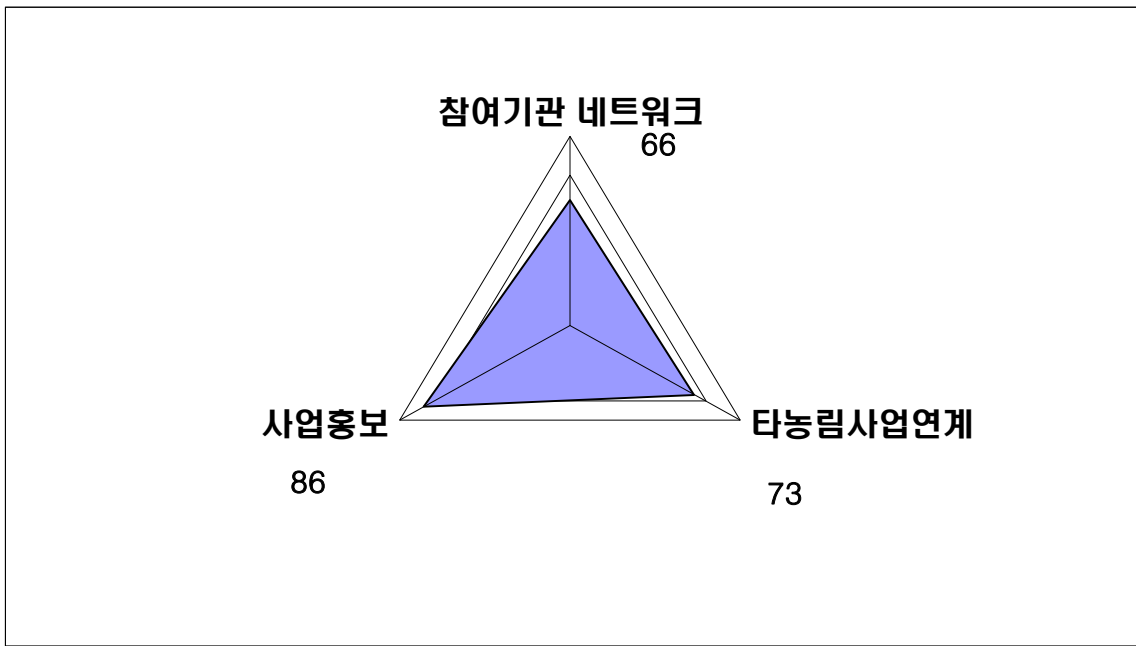
- 농업인 교육실적, 작목반(법인) 현황과 참여농가 DB 현황에 대해 평가함
  - 우수한 클러스터 사업단 : 영동 포도, 장수사과, 보성 녹차, 풍기 인삼, 경북 한우, 제주 감귤
- 대부분 사업단은 사업설명회, 영농기술 등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화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유통, 마케팅, 브랜드 및 기술의 상용화에 대한 교육은 미비함
- 참여농가 D/B 구축(전산화) 및 활용 현황 역시 클러스터 사업의 성격상 모든 사업단이 참여농가 현황을 D/B 구축하고 있으나, 실질적 활용 측면은 일부 사업단을 제외하고 미흡함

- 장수사과의 경우 권역별 품질관리 지도사제도 운영으로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기별 맞춤교육과 컨설팅을 통하여 농가의 현장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지역농업과 장수군 농업정책에 대한 교육과 현장견학을 통하여 행정-생산자단체-농가 간의 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음

## (2) 네트워킹 활성화

### □ 중간 평가

- 종합적으로 볼 때, 참여기관 네트워크(66), 사업 홍보(86), 타농림사업연계(73)의 결과를 나타냄
- 이를 통해 참여기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정보의 공유와 형식적 네트워크가 아닌 실질적 결과 도출을 위한 네트워크가 요구됨



### ① 참여기관(산학연관) 네트워크 밀도 및 지원체계 활용실적

- 중앙정부가 실시한 회의에는 계획대로 참여하고 있는 반면 자율성이 가미된 워크숍 및 포럼의 경우에는 참여율이 저조한 일부 사업단이 있음
- 산학연관의 교류협력 정도, 타 클러스터 사업단과의 교류협력, 자문단 등의 활용실적 등을 평가함
  - 우수한 클러스터 사업단의 경우 산·학·연·관 네트워킹이 크게 활성화 되어 매월 정기모임으로 정보교류, 상호협력방안을 도출하여 사업단의 발전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함
  - 다만, 일부사업단에서는 타 단체나 자문단의 실질적인 활용보다는 형식적인 외형을 갖추는 것에 큰 비중을 두는 곳도 있어 비효율적인 모임

### ② 타 농림 사업의 연계 정도

- 다른 개별 농림산업이나 타 부처사업을 클러스터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계·추진하여 예산 절감 및 시너지 효과를 평가함
- 타 농림산업과의 객관적인 연관횟수로 평가가 된 항목인데 전체적으로 우수한 그룹과 부진한 그룹사이의 편차가 커 균형적인 발전 방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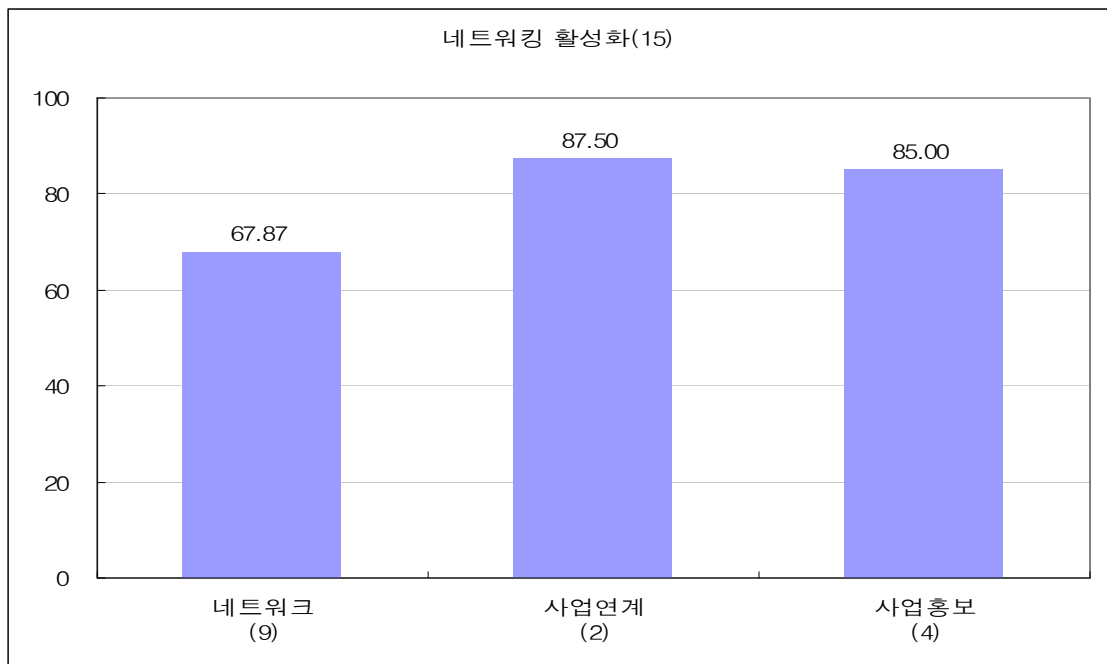
### ③ 사업홍보 실적(TV, 일간지, 홍보물 발간)

- 국내 사업홍보 광고 건수, 관련 전시회 개최, 홍보물 발간, 박람회 개최 및 참석건수,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평가함

- 20개 사업단의 대부분이 홍보에 있어서는 높은 참가율을 보이고 있음
  - 다만, 박람회 및 전시회의 측면에서는 사업수행에 어려운 면이 존재해 개최를 하지 않는 일부 사업단이 있음
- 일부 사업단은 일간지를 발행하였지만 정기적으로 발행하지 못하는 사업단은 일간지 발행이 목표가 아닌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배포하여 사업단 홍보에 기여해야 함

□ 최종 평가

- 종합적으로 볼 때, 네트워크 밀도(67.87), 사업 연계 정도(87.50), 사업 홍보(85)의 결과를 나타냄
  - 이를 통해 볼 때, 중간 평가의 경우처럼 형식적 네트워킹이 아니라 개방형 중심의 네트워킹 구성으로 실질적인 사업 효과 증대를 위한 보완이 요구됨





## ① 참여기관(산학연관) 네트워크 밀도 및 지원체계 활용 실적

- 산학연관의 교류, 워크샵,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의 실적과 사업적 네트워크 조성 평가임
- 우수한 클러스터 사업단 : 하동 녹차, 풍기 인삼, 정읍 순환, 영동 포도, 보성 녹차, 전남 쌀
- 우수한 사업단에서는 작목반과 법인단체가 클러스터사업과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사업단에서 생산기반 설비와 축제 및 유통정보 공유 등 활발한 활동을 사업 참여 기관과 함께 하고 있음
- 지역의 작목반과 법인이 사업단과 밀접한 관계를 갖지 않고 형식적 참여에 불과한 일부 사업단도 존재함
  - 풍기인삼의 경우 산학연관(참여기관)의 교류협력, 워크샵, 자문단(위원회) 활용 실적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단장 중심의 연구와 해당 산업과의 연계가 활발히 이루어져 네트워크가 개방형으로 선진화된 것으로 평가됨

## ② 타 농림사업 연계 정도 및 사업홍보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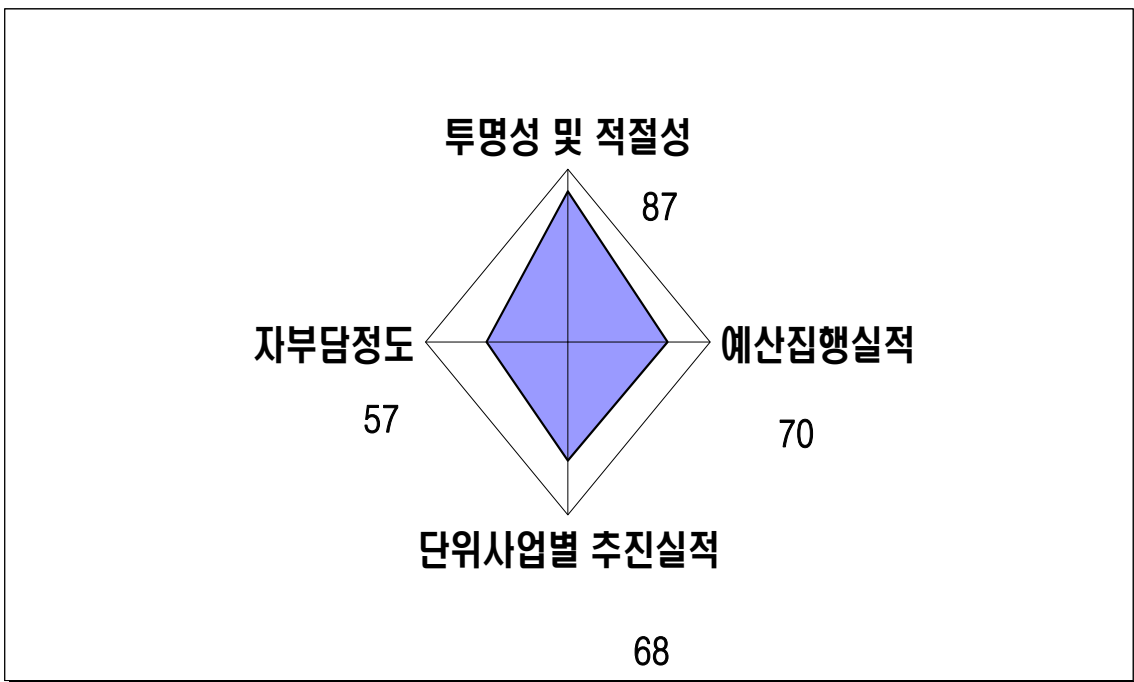
- 타 부처 및 농림 사업을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 추진한 경우와 사업홍보 실적을 평가
- 타 농림사업 및 타 부처 사업과 대부분 연계시켜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 시너지 효과를 제고한 사업단은 극소수임
  - 사업 선정 시부터 연계 사업과의 영역 구분 및 시너지 효과 창출 부분을 명확화 할 필요가 있음
  - 사업 홍보 분야는 전 사업단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지 여부는 불투명함

### (3) 사업비 수행도

#### □ 중간 평가

○ 종합적으로 볼 때, 투명성 및 적절성(87), 자부담 정도(57), 예산 집행 실적(70), 단위 사업별 추진 실적(68)의 결과를 나타냄

- 이를 통해 볼 때, 자부담 정도의 비율을 높일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① 집행 관리의 투명성 및 적정성

○ 전용카드 등의 전부사용으로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집행서류의 규정대로의 구비, 별도계정 및 별도 통장관리, 증빙서류 구비 현황, 집행내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

- 대부분의 사업단이 위 평가항목과 관련하여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일부 사업단은 증빙자료의 부재 등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함

## ② 예산 집행 실적

- 예산액은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하였고, 연도 내 집행 가능하며  
정당한 계약행위에 의한 지출 원인행위액을 포함하여 평가함
- 대부분의 사업단의 예산 집행율은 25% ~ 75%에 해당되므로 예  
산 집행을 개선이 필요하며, 최적의 사업 분야에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후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개선안이 필요함

## ③ 단위사업별 계획대비 사업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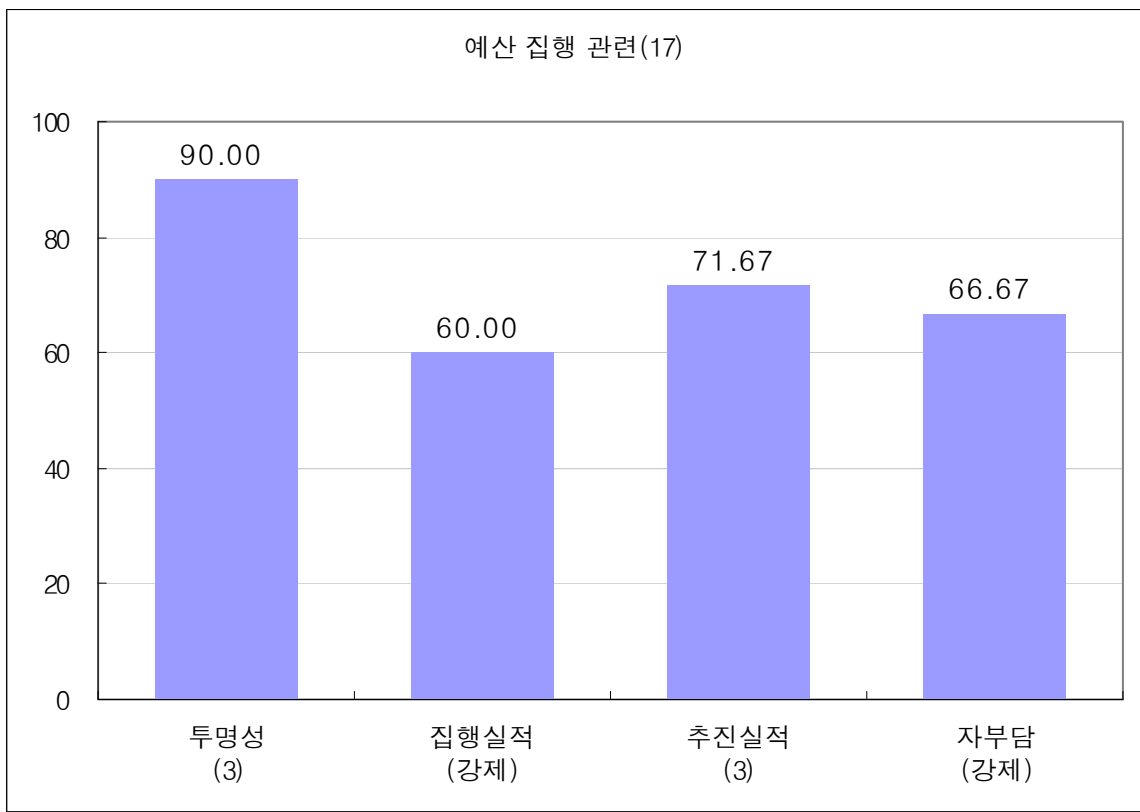
- 단위사업별 추진현황(단위 사업 대비 “부진”사업 비율)에 대하  
여 평가함
- 대부분의 20개 사업단은 “부진”사업의 비율이 20% ~ 50%사  
이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 본격적 사업추진에 앞서 어떤 형태  
의 사업단이 효율성을 갖는지에 대해 분석 및 개선할 필요함

## ④ 총 사업비중 자부담 정도

- 총 사업비중 자부담의 비율에 대한 평가로써, 중앙정부에 대한  
자본 의존도가 대부분의 사업단에서 높은 것으로 평가됨
- 국고 지원 중단 시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단의 수  
익 방안을 개선하고, 민간 자본의 유입을 통해 자립 능력의  
향상이 향후 절실히 요구됨

□ 최종 평가

- 종합적으로 볼 때, 투명성 및 적절성(90), 자부담 정도(66.67), 예산집행 실적(71.67), 단위 사업별 추진 실적(60)의 결과를 나타냄
- 이를 통해 볼 때, 자부담 정도의 비율을 높이고 단위 사업별 추진 실적제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① 집행 관리의 투명성, 적정성 및 집행 실적

- 대부분의 사업단이 사업비의 투명성은 지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예산 집행실적의 경우 100%이상 지출한 사업단도 있는 반면 실집행률이 30% 미만인 사업단도 존재함

## ② 단위사업별 계획대비 사업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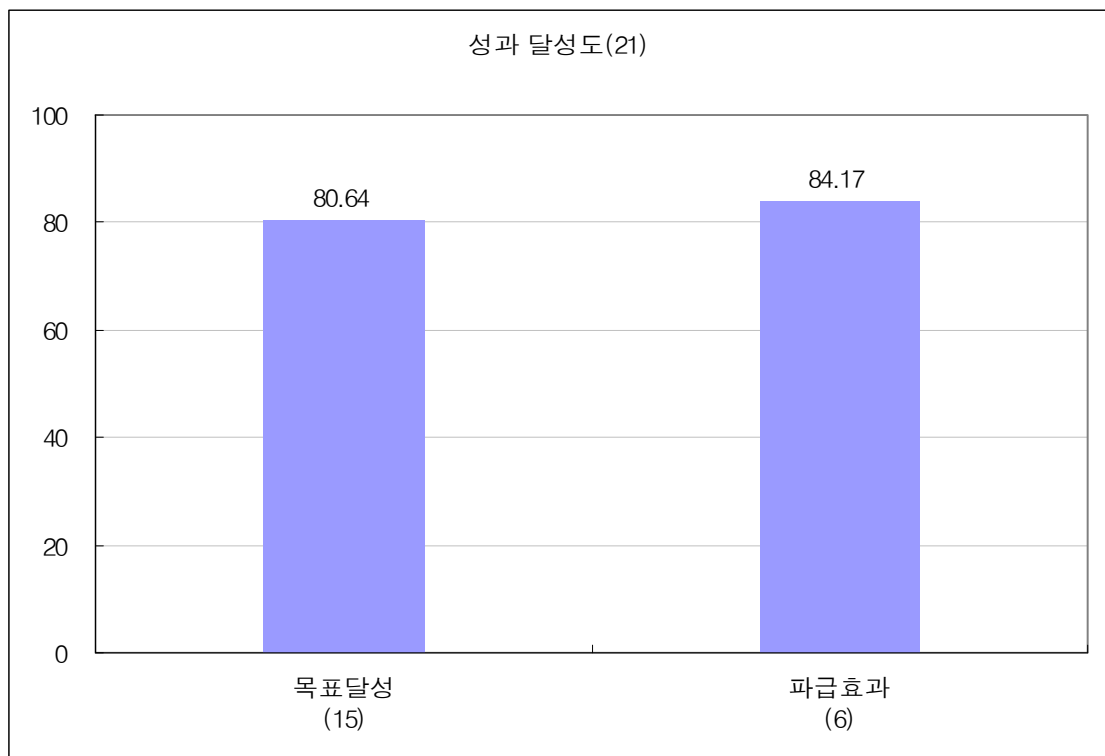
- 생산기반 정비 분야의 부지확보 등의 차질로 인한 사업지연과 사업계획을 하반기에 변경하여 전반적 추진 실적이 부진한 경우도 발생했음

## ③ 총 사업비중 자부담 정도

- 자부담은 권장사항이었으나, 대부분 사업단이 20%이상 자부담을 하고 있었으며, 지자체 주도형의 경우 지자체 소유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자부담 비율이 낮음
- 우수한 클러스터 사업단 : 영동 포도, 정읍순환, 전남 쌀, 풍기인삼, 제주감귤

#### (4) 사업성과 달성도

- 종합적으로 사업 목표의 달성도(80.64), 해당 사업에 대한 파급 효과(84.17)의 결과를 나타냄
- 해당 사업단의 사업 효과를 통한 1차 산업, 2차 산업 및 3차 산업에 복합적으로 사업적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 조성은 구축한 것으로 봄



##### ① 사업 목표의 달성도

- 사업단 성과 지표 달성, 농가 소득 기여도 및 국고 지원 중단에 대비한 사업단 자생능력에 대한 평가
- 우수한 클러스터 사업단 : 포천한과, 영동포도, 정읍순환, 풍기인삼, 제주감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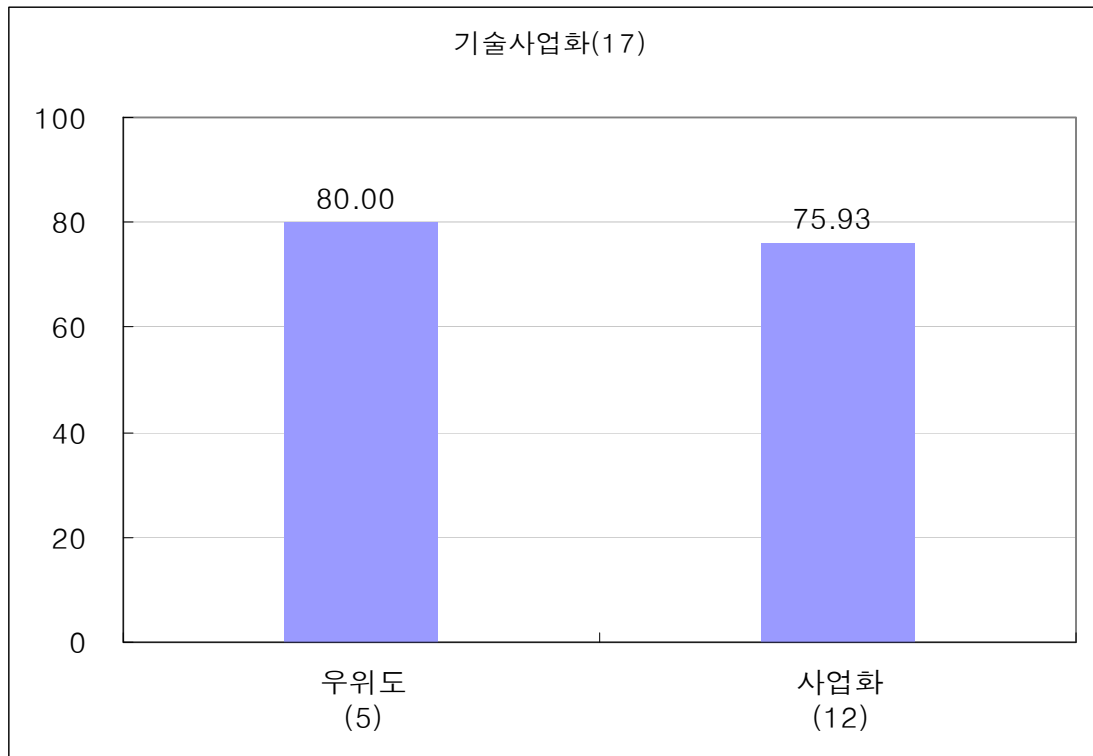
- 당초 2005년에 수립한 사업계획의 큰 변동 없이 꾸준히 사업을 추진한 사업단이 우수한 달성도를 보였음
- 국고중단에 대비한 자생방안은 지자체 주도형의 경우 민간유통법인 등을 설립하여 클러스터 주체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되고 있음

## ② 해당사업에 대한 파급효과

- 해당 사업에 대한 클러스터 사업의 파급효과를 생산기반 및 시설의 구축, 제품개발을 위한 기반여건, 유통망·관광 및 서비스 창출 효과를 통해 평가
- 해당 사업에 대한 기반 조성, 유통망 및 관광 서비스 분야는 그동안 클러스터 사업의 투자를 통해 일정 부분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됨
- 포천 한과는 사업단 내 국내 시장의 30%에 해당하는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한과 박물관 및 체험장, 명품 판매장, 교육장을 마련하여 생산(1차), 가공(2차) 및 유통, 관광 서비스(3차)를 잇는 산업 연계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현재 포천 내에는 9개의 한과업체가 12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단위지역으로는 가장 많은 한과 제조업체가 입주해 있고, 세계적인 전통식품문화도시로의 탈바꿈 중임

## (5) 기술(연구)사업화

- 종합적으로 볼 때, 기술의 우위도(80), 연구의 사업화(75.93)의 결과를 나타냄
  - 이를 통해 볼 때, 농업 기술에 대한 연구 결과를 매출 증대를 위한 사업화에 연계시키는 전략적 관심이 요구됨



- 기술(연구)의 사업화는 농업 연구와 기술 개발에 대한 기술적 고도화 측면과 이에 따르는 사업화 정도를 고려하는 것으로 기술(연구)의 효과적 측면과 실용화에 중점을 둠
- 기술개발을 통해 상품화 하여 실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사업단과 클러스터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기관이 주도적으로 기술개발과 전파,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단이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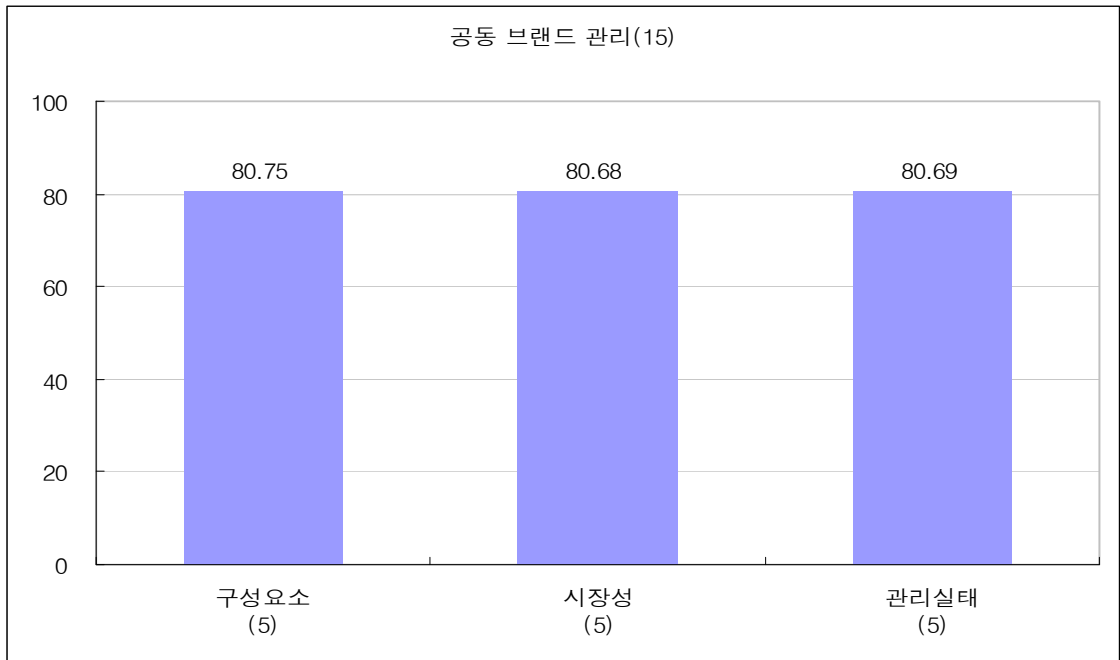


- 우수한 클러스터 사업단 : 경북 한우, 풍기 인삼, 영동 포도, 경남 양돈, 전남 쌀, 장수사과
- 농업 분야에서 연구 기반의 확충과 고도화에는 한계가 있으나 일정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 경북 한우의 경우 생산 이력제를 통한 유전자 DNA 분석을 바탕으로 한우를 출시(츄품 한우)할 예정임
    - 경북 한우 사업단은 DNA분석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DNA 분석 기술로 송아지 한우에서부터 도축된 한우 쇠고기가 소비자의 식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 수입육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기술 보유
  - 영동 포도의 경우 대학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포도의 고급화 및 가공 기반의 조성을 통하여, 포도 집산지에서 포도 산업 중심지로 변신 중임
    - 핵심기반조성 및 포도가공 벤처 plant 활용을 통하여 포도연구회, 농업기술센터, 포도시험장 및 포도특화사업단은 농가에서 고품질의 포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품종개량, 현장 기술 지도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포도가공품의 다양화를 위하여 영동대학교와 가공업체에서는 포도즙, 포도잼, 포도주 이외에 건강을 지향하는 지속적인 제품개발을 추진 중임
  - 풍기 인삼의 경우 동양 대학교 중심의 인삼 전문 인력의 육성을 통해 경쟁력 확보를 동양대학교 산학 협력단이 주도하고 있음

- 풍기인삼클러스터사업단의 핵심이 되는 곳은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사업단은 사업부문과 참여주체들을 유기적으로 엮는 네트워크 사업의 중추가 되며, 사업의 추진성과를 관리하고 비전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음
- 가공의 차별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도 주요 관심사임. 체형, 수령, 수삼의 형태가 좋아야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가공단계를 차별화 하고 있음
- 또한 풍기인삼은 현재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다양한 유통로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 인삼재배와 가공에 필요한 시설들을 생산자 가까이에 설치, 물류비용을 아끼는 등 유통구조의 혁신도 진행하고 있음

## (6) 공동 브랜드 관리

- 종합적으로 볼 때, 브랜드 구성 요소(80.75), 브랜드의 시장성(80.68), 브랜드 관리 실태(80.69)의 결과를 나타냄
- 이를 통해 볼 때, 공동 브랜드는 잘 관리되고 있으나 브랜드 수익 확보 방안에 대한 적극적 논의와 공동 브랜드 운용 시에 한 품목의 브랜드 관리 미비가 다른 품목에 악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이 요구됨



### ① 브랜드 구성 및 시장성

- 공동 브랜드 관리는 공동 브랜드의 주체성, 일관성, 창조성을 기반으로 브랜드 파워 제고를 통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에 대한 평가임
- 우수한 클러스터 사업단 : 안성마춤, 정읍순환, 보성녹차, 하동녹차, 전남 쌀

- 지역 공동 브랜드 모델은 여러 사업단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보성녹차, 하동녹차의 경우 지리적 표시제를 기반으로 공동 브랜드의 관리의 기반을 조성하여 해당 품목을 상품, 중품 및 하품으로 분리하고 생산부터 판매에 까지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 하동의 경우 광고·홍보 활동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음
  - 정읍 단풍미인 등은 농산물 브랜드 종합관리로 브랜드 관리 선도 모델로 제시하고 있음

## ② 브랜드 사용 지침 및 관리 실태

- 거의 전 사업단이 브랜드를 개발하고 상품화를 계획하고 있으나 적절한 사용지침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사업단은 소수임
  - 지자체 소유 브랜드의 경우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여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개발된 브랜드의 지속 관리가 필요함

## 제3절 평가결과의 종합적 총평

### 1. 시범 사업단 성과

#### 1) 클러스터 기반 조성

##### ○ 산업 협력 문화 기반 조성

- 시범사업 시행의 결과 생산, 연구의 사업화, 가공, 유통, 공동 브랜드 관리, 테마 등 분야에서 산·학·관·연 협력체계, 네트워크 구축, S/W가 병행되는 산업 협력 문화 조성 기반에 기여하였음

##### ○ 농산업화 및 복합화 단계 진입

- 핵심 주체가 참여하는 판매법인의 설립,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수익 모델 개발, 공동 브랜드의 관리 체계 구축 등에서 본격적인 산업화 및 복합화 단계 진입을 위한 기반 조성을 구축하고 있는 중임
- 국고 중단에 대비한 자생방안은 지자체 주도형 등의 경우 민간유통법인 등을 설립하여 클러스터 주체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안이 많고, 민간 주도형의 경우는 틈새 시장을 개척하고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수립을 바탕으로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있음

## 2) 혁신 사례 도출

- 일부 사업단의 경우 지속적 혁신 활동을 통해 중간평가 대비 비약적 발전을 이룬 사례가 발생했음
  - 풍기인삼의 경우 지역 혁신 역량의 집적화와 2차 가공 및 산업화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사례임
  
- 기술개발을 통해 상품화 하여 실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사업단과 클러스터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기관이 주도적으로 기술 개발과 전파,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단이 새로운 지역 농업 클러스터 모델을 선도하고 있음

## 2. 시범사업단 사업 수행의 한계점

### 1) 산업화의 개념 실천적 한계

#### ○ 시범사업 추진 기간의 한계

- 시범사업의 실제 사업추진 기간이 짧고, 클러스터를 위한 기반 구축 단계이므로 클러스터 산업화 결과 도출에는 한계가 있음
- 그러나, 클러스터의 개념은 품목의 선택, 소재의 부가가치 육성 체계의 지속적인 연관과 경쟁을 통한 지역 내의 산업화를 육성하는 사업임
- 기존의 생산 기반 주도 중심의 지원은 시장 경제 체계 속에서 경쟁과 소비자 중심주의에 바탕한 철저한 소비자 분석과 전문적 마케팅 전략 수립 능력 배양의 기회 상실로 **산업화를 위한 마인드 제고의 한계**를 보임

- 사업 아이템의 경우 복합 아이템 중심의 통합(연합 마케팅) 지향으로 일부 품목의 품질 하락 및 브랜드 관리 부족이 연관 브랜드에 영향을 나타내 **종합적인 브랜드 체계 구축에 한계**를 보임
  - 아이템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직적 고도화가 필요함
  - 복합 품목에 속한 단일 품목의 품질 관리, 단일 품목별 미니 클러스터 구성을 통한 항목별 산업적 기반 구축이 요구됨

## 2) 클러스터 관리 운영 제도 정비

- 시범사업단의 조직 형태가 전문화 및 세분화를 통한 제도화가 되지 않아 관련 성과(특히 출원, 매출 발생 등)의 경우 관련 지적 재산권의 귀속문제 및 유통 다변화를 통한 수익의 배분 문제에 관하여 해당 대학 및 지자체 등에서 관리 운영 지침이 없는 상태임
  - 자생력 육성 방안으로 법인화 설립 시 해당 지적 재산권 관리 및 대학교와의 지적 재산권 해결 방안을 제시할 필요 있음
  - 또한 해당 사업단을 현실적으로 운영할 인력과 인건비 등의 현실적 반영이 요구되며,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등이 사업단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 3) 농업 기업체 보육 프로그램 정비 필요

- 지역 농업 클러스터의 경우 농업 기업체 육성이 필요함
  - 농업 기업체의 연구인력 부족, 제품 홍보 및 광고, 시장 정보 분석 능력 등이 부족하여 제품의 수익성 저하 및 경쟁력 상실을 야기 시키는 상황 하에서 농기업의 창업, 경영 관리, 자금

지원 및 마케팅까지 체계적 관리에 대한 전주기적인 토탈(기술 마케팅) 지원 서비스 기능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농기업의 산업화 보육 지원 체계가 실시간 문제 해결과 종합적인 지원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이 요구됨

#### 4) 산업화를 지원할 개방형 네트워킹 구축

- 20개 사업단의 경우 형식적인 네트워킹의 구조화는 보이나 일부 사업단은 자문단, 참여기관의 실질적인 역할이 부재한 것으로 보임
- 농업 중심체 위주의 네트워킹을 산업화 분야의 전문가(벤처 투자자, MBA 출신의 컨설턴트, 변리사, 변호사 등)의 협력 지원 체계 구축으로 산업화 개방 네트워킹을 확대하여 산업화 지원 기반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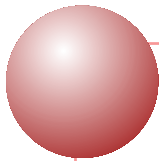
## 제4절 향후 과제

### 1) 자생력 있는 지속적인 산업 필요

-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은 지역농업의 산업화 마인드 내재화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 여부가 향후 핵심 과제임
  - 시범사업단의 사업비 구조는(생산 기반 주도 중심의 지원, 개별지원방식 등) 시장 경제 체계 속에서 경쟁과 소비자 중심주의에 바탕한 철저한 소비자 분석과 전문적 마케팅 전략 수립 능력 배양의 기회 상실로 산업화를 위한 마인드 제고의 한계를 보임
  - 농산품의 급속한 제품수명 단축추세를 고려하지 않는 단순 생산 집적지 중심의 취약한 클러스터 사업으로 인식됨
  - 따라서 인프라, 물류, R&D, 지식 기반 서비스(마케팅, 기술 이전 등)의 취약으로 농기업의 다양한 수요충족이 곤란한 상태임
- 시범사업단은 본 사업을 통해 생산기반, 품질관리, R&D, 유통, 브랜드 및 네트워킹이라는 산업화지원시스템의 기반 구축이 시급히 요구됨
  -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되기 위한 자율적인 클러스터 중심의 “학습의 장(場)”이 함께 구축될 시점으로 판단됨

## 2)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국내 모델 개발

- 유형별로 해외 사례를 선정하여 그 성공요인과 시사점을 분석한 후 농산업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실효성있는 국내 모델 개발이 필요함
  - 따라서 해외의 사례를 3가지 차원(자원 활용형 클러스터, R&D주도형 클러스터, 제조 기반형 클러스터)에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자원 활용형 클러스터의 성공사례로는 유럽의 오라선드 식품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분석함
    - R&D주도형 클러스터의 성공사례로는 샌디에고, 연구 결과의 사업화 성공 모델로는 영국의 BTG를 분석함
    - 제조기반형 클러스터의 성공사례로는 미국 메릴랜드 바이오 클러스터를 분석함



## 제3장 해외클러스터 모델현황과 새로운 모델 개발

제1절 해외클러스터 모델 현황

제2절 해외성공사례 모델 특징

# 제3장 해외클러스터 모델현황과 새로운 모델 개발

## 제1절 해외클러스터 모델 현황\*

### 1. 오라선드(Oresund)의 식품 클러스터

#### 1) 지역 여건

- 오라선드 식품클러스터는 스케인(Skane) 기능성식품클러스터를 포함하는 북유럽을 대표하는 클러스터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가로지르는 오라선드 지역에 위치하며 대표적인 제품은 기능성 식품과 유기농 제품 등임

#### 2) 혁신 기반

- 지리적으로 오라선드 지역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어 주요 농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역사적, 경제적으로 식품산업의 비중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던 곳임
- 지역 내 식품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통지식을 활발히 활용하고 있으며 다학제간(interdisciplinary)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등 과학기반 관련 응용연구개발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김주환 외, 『바이오클러스터의 성공조건과 발전방안』 (산업연구원, 2003.12.) 재 인용

- 즉, 토착·주력산업으로서 식품산업이 자리 잡고 있어 생산 및 인증단계의 핵심 혁신요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이러한 전통과 더불어 식품회사와 연구기관 간 협력프로젝트 등 네트워크를 통한 연구개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산·학·연간 협력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어 오라선드 지역의 식품산업 경쟁력은 더욱 강화됨
- 오라선드 지역은 조직화된 도매 및 소매시장, 국제표준에 적합한 저장시설 등 원료에서 제품까지의 자원관리에 대한 기업지원서비스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특히 행정적 효율성과 정책적 지원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됨
- 오라선드 지역은 판매단계의 대표적인 혁신요소인 디자인 및 포장기술에 대한 역량도 매우 높음
    - 포장디자인과 재료 관리 등의 연구개발이 수행되고 있으며 Tetra Park과 PLM/Rexam과 같은 이 분야의 선도 기업이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 3) 산업 현황

- 오라선드 지역에는 식품분야의 많은 대기업과 핵심기업이 존재함
- 우선 식품산업과 관련되는 공정기술과 장비 측면에서 오라선드 지역은 ABB, Alfa Laval, Tetra Park, Danfoss, APV, Foss Electric.과 같은 선도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식품첨가물 등 식품 재료 분야에 있어서도 세계 수준의 기업인 Danisco Cultor, Arla Foods, Chr. Gansen, Copenhagen Pectin/Kelco, Karlshamns, Lyckeby, Novozymes 등이 이 지역에 존재함

- 또한 Nutri Pharma, Carsberg Breweries, Orkla Foods, ABB 등 세계적인 식품기업들이 대거 입주하여 있음

#### 4) 연구개발

- 오라선드 식품클러스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개발 대상은 식물 육종 등 기초 생물공학 연구 개발부터 기능성 식품의 마케팅 이슈까지 식품산업 전반의 가치사슬에 대한 연구개발을 포괄하고 있음
  - 주요 연구개발 분야는 발효 기술에 기반을 둔 각종 기능성 식품(낙농제품, spread(잼 등), 빵, 시리얼, 아이스크림과자, 음료수 등)의 개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거나 락토스와 글루텐 과민증 대상의 치료 기능성 식음료 개발 등임
- Rowett 연구소 오라선드 식품클러스터의 성공 요인을 강한 과학기반에 의한 혁신활동, 민간과 공공 부문 투자자 간의 긴밀한 협조, 공공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상업적 성과, 장기적인 정부 부양책과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명확한 비전 등으로 분석하고 있음
  - 현재 유럽에서는 유럽지역 개발기금(ERDF) 등을 통해 지역개발이 지원되고 있으며 각국의 기존 식품 클러스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강력한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음

#### 5) 평가

- 오라선드 식품클러스터의 성공 요인은 강한 과학기반에 의한 혁신활동, 민간과 공공 부문 투자자 간의 긴밀한 협조, 공공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상업적 성과, 장기적인 정부 부양책과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명확한 비전 등으로 분석하고 있음

- 현재 유럽에서는 유럽지역 개발기금(ERDF) 등을 통해 지역 개발이 지원되고 있으며 각국의 기존 식품 클러스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강력한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음

## 2. 미국 메릴랜드 바이오클러스터

### 1) 지역여건

- 메릴랜드주는 자원이 풍부한 미국 동쪽 해안 시장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 인구와 사업 기반의 1/3이 하룻밤 거리 이내에 위치하고 바이오(농업)기업들과 전략적 협력기관들의 90% 이상이 자동차로 1시간 이내 거리에 위치해 있음

### 2) 기업지원체계

- 메릴랜드에서는 바이오산업을 포함하여 주의 첨단기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몇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그 중 하나가 Challenge Investment Program으로 이 프로그램은 신상품을 시장에 제공하는 데에 관련된 초기 비용의 일부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 기업에 기금을 제공함
- 공유되고 있는 기업지원 인프라 중 대표적인 것이 cGMP급 생산설비인 BioCenter로 MdBio에 의해 운영되며 메릴랜드의 바이오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화를 지원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까지 제공함

- 이밖에도 메릴랜드 클러스터에는 Maryland Bioscience Alliance 등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기관들의 공식 및 비공식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표6> Rockville-Bethesda 클러스터

클러스터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보육시설과 자금 지원, 상업화 지원을 목적으로 TEDCO 창립</li> <li>• NIH Expansion Program의 정책적 지원에 기반을 둠</li> </ul>
중점 연구개발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elera사를 위시한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본부로 바이오 (농업)분야 기초 및 응용 연구개발에 집중</li> <li>• 종양학, 신경과학, 면역학 등 의학 분야의 기반이 강함</li> </ul>
생산 및 연구단계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dBio에 의해 54,000제곱피트 규모의 배양설비를 운영 중이며, 존스 홉킨스 대학 등 대학에서 다수의 생산 설비 프로그램 운영</li> <li>• NIH에 의해 Bumpers Vaccine Research Center (84,000제곱피트 규모, 3,200만 달러 투자), Stokes Laboratory (290,000제곱피트 규모, 9,300만 달러 투자), HatfieldClinical Research facility(사무 공간 600,000제곱피트, 실험실 850,000제곱피트) 등 지원</li> </ul>
지역 관리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dBio와 메릴랜드 첨단기술 평의회(High Tech Council)가 지역 바이오(농업) 공동체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고 MdBio는 주 정부 및 경제개발위원회 등에 의견 반영</li> </ul>
자금 및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IH, NIST, NASA 등의 연방 기금에 기반</li> <li>• 주 기금으로는 Challenge Investment Program (창업비용으로 공동 투자자와 함께 5만 달러를 기업에 투자하는 프로그램), Enterprise Investment Fund (2단계 기술 기업에 직접 투자), Maryland Venture Capital Trust (주와 지역 연금 기금을 바이오(농업)기업에 투자) 등이 있음</li> </ul>
기업 밀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릴랜드 주의 300여 바이오(농업)기업은 Rockville-Bethesda - 270 Corridor 지역에 주로 밀집하여 있으며 기업 평균적으로 임금 45천 달러에 24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음</li> </ul>



### 3) 평가

- 메릴랜드는 21세기 첨단산업 분야의 중심으로 200개 이상의 연방 및 학계 연구센터에 인접해 있어 유전자 지도와 생물공학기술 응용의 시험대로써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
  - 메릴랜드는 동부 해안 지역의 강점과 다양한 비용 효율적 자산을 부요하고 있어 미국 내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제조업에 유리한 환경을 제시하고 있음
  - 세부적으로는 제조업에 유리한 세금구조, 숙련된 노동인력에 대한 접근 용이성 등 생산요소들의 획득 용이함
- 주 기금으로는 Challenge Investment Program (창업비용으로 공동 투자가와 함께 5만 달러를 기업에 투자하는 프로그램), Enterprise Investment Fund (2단계 기술 기업에 직접 투자), Maryland Venture Capital Trust (주와 지역 연금 기금을 바이오(농업)기업에 투자) 등을 통한 체계적인 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3. 영국기술그룹(British Technology Group, BTG)\*

### 1) 설립경위

- BTG는 영국 통산성(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관할 하의 기업으로 1981년 국가 기업청(National Enterprise Board, NEB)과 연구개발공사(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

\* 영국기술그룹(BTG)를 해외클러스터 모델의 하나로 선정하는 것은 대학이나 공공연구소등에서 연구 개발된 신기술을 지역 기업에 이전 및 상업화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서 새롭고 다양한 R&D, 기술 개발 등의 역량이 부족한 국내 지역농업클러스터에 접목시키기 위한 취지임

Corporation, NRDC)를 통합하여 발족되었으며, 신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상업화 하는 활동을 함

- 신기술의 특허 지원, 기술개발 지원, 특허권 실시 및 지적소유권의 보호활동 등을 펴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차원의 상업적인 기술이윤을 추구함

## 2) 주요 활동

- BTG는 EU국가에서 핵심기술의 이전기능을 맡고 있는 유사기관들이 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Eurotech를 공동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 기술보유국이자 수요국과의 기술교류 및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수익사업을 함
- 기술원(소재지) 탐색 및 지원, 초기개발단계의 기술 연구 개발 지원, 특허 출원지원, 기술 라이선싱, 기술 라이선싱에 따른 개발자에 대한 기술 수입 발생 및 흐름 관리, 기술 마케팅, 특허권 보호활동 등이 주요 사업 내용임

## 3) 사업모델(Business Model)

- BTG의 비즈니스 모델은 기술 발굴-개발-상업화-수익 실현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상용화 가능성을 높은 기술발굴은 대학 및 연구소가 40%, 기업체가 60%를 차지함
- 특히, BTG는 기술 라이선싱, 기술 상용화 및 기술이전을 통해 건전한 재정 자립을 확보하고, 주식시장에서 가장 우량주로서 투자자가 인식하고 있음

<표7> BTG의 단계별 주요업무

단 계	주 요 업 무
기술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세계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b>상업화 가능성이 있는 기술 발굴</b></li> <li>- 기초연구부터 생산단계까지 모든 단계의 <b>기술 평가</b></li> <li>- 채택된 기술은 필요시 특허신청을 하며 전 세계의 주요 제조회사를 상대로 라이선싱 계약을 위한 마케팅과 협상 진행</li> <li>- 특허권과 상업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제공</li> </ul>
특허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의 응용 가능성을 파악하고 잠재적 시장성이 높은 분야나 지역에서 특허를 등록함.</li> </ul>
마케팅 및 기술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합한 이전대상기업(licensee)을 찾기 위해 국제마케팅 실시</li> <li>- 특허 유효 기간 내에 기술의 상업적 가치를 극대화 전략 시행</li> </ul>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대상기업(licensee)에 대하여 <b>로열티 지급</b> 및 사업화·재무 목표 달성 여부 점검</li> <li>- 지적재산권 침해여부 감시 및 법적 대응</li> </ul>
이익분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요비용을 제외한 수입을 <b>50:50비율</b>로 분배</li> </ul>

#### 4. 샌디에고 바이오 클러스터

##### 1) 지역여건

- 샌디에고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남부에 위치한 면적 1만 1000km<sup>2</sup>의 카운티로 연중 평균기온이 섭씨 21도의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를 나타내며 생활 환경이 우수한 지역임

## 2) 연구개발 기반

- 이 지역에는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분교(UCSD), 스크립스(Scripps)연구소, 솔크(Salk)연구소 등 유력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1955년과 1965년 사이에 설립되어 바이오(생명)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음. 특히 1400명 이상의 생명과학자들이 연구에 종사하는 등 생물 의학 분야의 연구가 활발한 편임

## 3) 벤처 캐피탈

- 1995년 이후 샌디에고 지역의 생물의학분야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금액은 15억 달러를 초과하였으며, 이 자금은 169개의 신생기업에 투자되었음
- 벤처캐피탈업체는 4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 2001년 사이 기업을 공개한 회사는 10사에 이룸
- 또한 1996년 이후 제약회사와 바이오(생명)연구소간의 연구협약은 16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 이루어졌음

## 4) 지원 서비스 기반

- 샌디에고 지역의 생물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유관단체들이 크게 기여해왔음
- 샌디에고의 생물 산업 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해 기업가 지원조직의 UCSD CONNECT가 기업가 정신과 문화형성에 크게 공헌하여 왔음
- 상기 CONNECT는 기업가와 회계사, 변호사, 벤처 캐피탈 등 자금과 비즈니스 인프라를 연결하는 기업가 지원을 위한 조직으로 UCSD extension center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1985년에 발족했음

- 상기 CONNECT의 특징은 벤처기업의 성장에 따라 비즈니스 플랜 작성 지도에서 자금 조달에 이르기까지 네트워크 제공 등을 통해 원스톱 기업가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점임
  - 이는 지식의 원천과 협동을 촉진하여 기업을 활성화하는 UCSD CONNECT프로그램이 샌디에고의 지역경쟁력을 높인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 특히 하이테크, 라이프 사이언스 분야에서는 고도의 기초연구가 이루어져 연관된 다양한 인재가 집적해 있으며 상기 CONNECT는 연구자와 비즈니스 리더(변호사, 회계사, 경영컨설턴트, 은행, 부동산업)의 상호 이해를 촉진하고 기업에 필요한 팀 편성, 그룹핑을 지원하고 있음
- 샌디에고 지역경제개발공사(SDREDC : San Diego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는 1980년대 개발계획을 세우고 지역 대학과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였음
  - MIT기업 포럼 샌디에고 분회(MIT Enterprise Forum)는 UCSD-CONNECT로서 기업가들을 양성하는 기반을 제공하였음
-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샌디에고 Manufacturing Extension Center도 중소기업의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
  - 최첨단의 기술을 글로벌 비즈니스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자가 스스로 경영 노하우를 습득하여 창업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함
    - 비즈니스계의 사람이 기술을 이해하고 기술개발자와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연구자 스스로가 경영적 지식을 갖고 벤처비즈니스를 설립하는 형태 보다

작지만 폭 넓은 역할분담(파트너십)을 초기의 단계부터 원활하게 도입하도록 돕고 있음

## 5) 평가

- 바이오 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역에서 연구개발 수준향상도 중요하지만 기업가를 양성하는 풍토와 벤처캐피털의 투자확대 또한 불가피한 요소임을 확인하는 사례임
  - 샌디에고 바이오 클러스터의 경우 CONNECT Program을 통하여 벤처기업의 성장에 따라 비즈니스 플랜 작성 지도에서 자금 조달에 이르기까지 네트워크 제공 등을 통해 원스톱 기업가 지원하는 체계는 산업화 기업 지원 체계의 정수임
  
-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미국의 생명 클러스터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연구예산과 특허 건수 등 연구개발능력은 지역 격차가 축소되고 있는 반면 기업 설립, 벤처캐피털 투자액등 상업화 능력은 지역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
  - 이러한 점이 지역 간 생명 클러스터의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따라서 클러스터 형성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역량 강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상업화 능력을 확립하는 것이 보다 중요함

## 제2절 해외성공사례 모델 특징

### 1. 유형별 해외성공사례 분석 및 정리

#### 1) 해외성공사례 분석

- 해외의 성공사례를 분석해 볼 때, 각 지역에서 기반 조성 및 연구개발 수준향상도 중요하지만 **기업가를 양성하는 풍토와 벤처캐피털의 투자확대 및 벤처 기업의 육성 지원 체계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었다는 점**임
  - 따라서 클러스터 형성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역량 강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상업화 능력을 확립하는 것이 보다 중요함
- 미국의 바이오 클러스터의 경우 연구예산과 특허 건수 등 연구개발능력은 지역 격차가 축소되고 있는 반면 기업 설립, 벤처캐피털 투자액 등 상업화 능력은 지역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
  - 이러한 점이 지역 간 바이오 클러스터의 격차를 확대하고 있음.
- 영국의 BTG 비즈니스 모델은 기술 발굴-개발-상업화-수익실현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상용화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임
- 성공적인 클러스터의 경우 지역 내부적으로 공정 투자나 신상품 개발에 대해 **경쟁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숙련된 노동력과 다양한 기업 구조가 연관관계를 통하여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를 높인다는 점임

## 2) 해외성공사례 정리

- 유형별 해외 클러스터의 사례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정리하면,
  - 자원 활용형 클러스터의 성공사례로는 유럽의 오라선드 식품 클러스터를 들 수 있으며,
  - R&D주도형 클러스터의 성공사례로는 샌디에고와 BTG를 들 수 있음
    - BTG의 경우는 연구 결과의 사업화 수익 모델이나 큰 분류 차원에서 R&D주도형 임
  - 제조 기반형 클러스터의 성공사례로는 미국 메릴랜드 바이오 클러스터를 사례로 들 수 있음
- **자원 활용형 클러스터**의 특징으로는 지역 내 보유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생명에너지, 생물환경, 생물공정 그리고 식품 분야 산업 위주로 구성됨
  - 기술의 사용목적은 신기술 개발이라기 보다는 산업구조 고도화 및 시장 대응을 위한 것이며, **응용연구개발과 생산 및 상업화 단계에 주력으로 함**
- **R&D 주도형 클러스터**는 의약 및 화학생물검정 및 정보, 생물전자 산업으로 구성되며, 기술의 사용목적은 신기술개발과 시장 대응형이며, 혁신은 급진적나 점진적인 산업화과정을 따름
  - 주요기술수준은 **융합기술과 첨단기술 위주**이며 산업의 발전 단계는 기초연구개발보다 **응용연구개발과 생산·상업화 단계**의 비중이 크며, 혁신 주체는 자연과학 및 의학계열 대학 및 연구소 등이 과학기반을 이룸



- 제조 기반형 클러스터는 생물의약, 식품, 생물화학산업 위주로 구성되며, 생물공정, 생물환경, 생물정보, 생물전자 등 연관 산업이 일부 지원을 위하여 포함되어 있는 형태임
- 신기술개발에서 시장대응에 이르는 광범위한 목적으로 기술이 사용되며, 혁신의 정도로도 광범위하게 발생함

## 2. 차별화 모델 개발 필요성

- 지역 산업클러스터의 일반화하는 모델 개발은 어려움이 있지만 정책적 수단의 실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의 편익적 측면이 더 유용하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지역농업클러스터는 지역적 특성과 농업이라는 산업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차별화 모델의 개발이 요구되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표8> 차별화 모델 개발 필요성

개발 필요성	주요 내용
산업화 네트워킹 구축	농산물 및 가공품의 생산이외의 관련된 산·학·연·관이 개방형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산업화 지원 체계 마련
클러스터의 지역 혁신성(기술,유통) 제고	신기술의 가공 및 고도화, 유통 방법의 복합화를 통해서 주산물의 부가 가치를 제고
주도 구성 주체의 역량 제고	구성 주체들이 클러스터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고 산업화 전문가와의 협력 및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지역농업 클러스터의 다양성	개별 농촌지역의 특성 및 생산품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업화의 다양한 형태를 지님

### 3. 지역농업클러스터 차별화모델

#### 1) 지역농업클러스터 발전 단계

- 지역농업클러스터는 사업단의 특성과 산업화 단계에 따라 진화 경로를 형성하면서 클러스터별 핵심 능력을 배양하게 됨.
  - 예컨대, 국내의 사업단의 경우 지역 농특산물이라는 자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해외모델인 자원 활용형 클러스터와 병립되는 특징이 있음(지역 공동 브랜드 모델)
  - 그러나, 해외 모델의 경우처럼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응용연구개발과 생산 및 상업화 단계에 까지는 한계가 나타남.
  - 따라서 해외의 R&D주도형클러스터의 경우에서 보듯 해당지역의 특정대학 또는 연구기관 만의 R&D결과물만이 아닌 국가 전체의 개방적인 신기술을 접목시켜 다양한 시장 욕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연구 기반 사업화 모델)
  - 해외의 제조 기반형 클러스터에서 보듯 제조기반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전(1차 산업)·후방(3차 산업)효과를 집적시키는 체계적 산업 효과로 연계가 되어야 산업 복합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지역 6차 산업 모델)
- 특히, 품목별, 지역별 통합화를 통한 생산량, 가공능력 및 마케팅 나아가 국제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특정 지역만의 클러스터가 아니라 규모 경제화된 초 광역으로의 발전이 요구됨(초광역 복합 창조 모델)

## 2) 차별화 모델 세부 설명

### (1) 지역 공동 브랜드 모델

- 해외모델인 자원 활용형 클러스터의 특징으로는 지역 내 보유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산업구조 고도화 및 시장대응을 위한 것이며, 응용연구개발과 생산 및 상업화 단계에 주력으로 하고 있음
  - 자원 활용형 클러스터의 성공사례로는 유럽의 오라선드 식품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함
  
- 국내의 경우 정읍돌고도는환원순환농업 클러스터는 단풍 미인을 통하여 농산물 브랜드의 종합 관리로 브랜드 관리 선도모델을 제시하며, 아산 친환경의 경우 유통을 기반으로 친환경 브랜드(올팜)를 개발하고 유통 다변화를 통해서 매출이 매년 50% 씩 증대되는 효과가 기대됨
  - 지역 공동 브랜드 대상 사업단 : 안성마춤,백두대간,아산환경,정읍순환,함평과학
  - 국내의 지역공동브랜드 모델의 경우 그 근거에 지역 농특산물이라는 자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해외모델인 자원 활용형 클러스터와 병립되는 특징이 있음
  - 따라서 국내시범사업단은 해외 모델의 경우처럼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응용연구개발과 생산 및 상업화 단계에 주력을 할 필요가 있음

## (2) 연구 기반 사업화 모델

- 해외 모델인 R&D 주도형 클러스터는 의약 및 화학 생물검정 및 정보, 생물전자 산업으로 구성됨
  - R&D주도형 클러스터의 성공사례로는 샌디에고, BTG의 경우는 연구 결과의 사업화 수익 모델이나 큰 분류 차원에서 R&D주도형임
  
- 국내시범사업인 농업 분야에서 연구 기반의 확충과 고도화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경북 한우의 경우 생산 이력제를 통한 유전자 DNA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의 극대화 경우임
  - 연구기반 사업화 모델이 기반한 대상 사업단: 경남양돈, 경북 한우
  - 국내의 경우 해외의 R&D주도형 클러스터의 경우에서 보듯 해당지역의 특정대학 또는 연구기관 만의 R&D결과물만이 아닌 국가전체의 개방적인 신기술을 접목시켜 다양한 시장육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3) 지역 6차 산업 모델

- 제조 기반형 클러스터는 신기술개발에서 시장 대응에 이르는 광범위한 목적으로 기술이 사용되며, 혁신의 정도도 광범위하게 발생함
  - 제조 기반형 클러스터의 성공사례로는 미국 메릴랜드 바이오 클러스터

- 영동 포도의 경우 대학 기반을 바탕으로 포도의 고급화 및 가공 기반 조성을 하고 있으며 풍기 인삼의 경우 동양 대학교 중심의 인삼 전문 인력의 육성은 미국의 스텐포드 대학의 기술 연구 사업화 모델과 오라선드의 식품 클러스터 중간 단계의 우수 모델
  - 연구기반 사업화 모델에 기반한 지역 6차 산업 모델의 대상 사업단: 풍기인삼, 영동포도
  - 지역 6차 산업 모델의 국내 대상 사업단 : 포천한과, 강원한우, 괴산고추, 서천모시, 임실치즈, 장수사과
  - 국내의 경우 해외의 제조기반형 클러스터에서 보듯 제조기반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전(1차 산업)·후방(3차 산업)효과를 집적시키는 체계적 노력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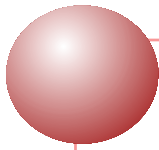
#### (4) 초 광역 복합 창조 모델

- 외국의 사례에서 도출하기에 어려운 모델임
- 지역 농업클러스터를 통하여, 동일 품목의 규모화 및 국제화를 통한 국가 브랜드 육성 모델임
  - 향후 녹차, 축산 및 생약초의 조정 및 통합을 통하여 국가적 성공 모델 개발 형으로 보성 녹차, 하동 녹차 사례를 중심으로 본 사업을 통하여 성장하면 달성 가능한 모델임
  - 초 광역 복합 창조 모델의 대상 사업단: 보성녹차, 하동 녹차, 전남 쌀, 경남 쌀
  - 외국과 달리 국내의 경우 지역 면적 등 여러 가지 자연 환경적 차이로 각기 상이한 측면이 있으나 국내외의 농산물 경쟁

력이 더욱 치열해져가는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생산량, 가공 능력 및 마케팅 나아가 국제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특정지역만의 클러스터가 아니라 규모 경제화가 가능한 초 광역 복합 창조 모델의 도입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됨

<표9> 지역농업클러스터 차별화모델

국내 모델	대응 해외 모델	시범사업단
지역 공동 브랜드 모델	자원 활용형 클러스터	안성마춤, 백두대간, 아산환경, 정읍순환, 함평과학
연구 기반 사업화 모델	R&D 주도형 클러스터	경북 한우, 경남 양돈
지역 6차 산업 모델	제조 기반형 클러스터	포천한과, 강원한우, 괴산고추, 서천모시, 임실치즈, 장수사과
초 광역 복합 창조 모델 (지역 6차 산업 모델의 극대화)	•	보성 녹차, 하동 녹차, 전남 쌀, 경남 쌀



## 제4장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활성화 방안

제1절 비전 및 추진 세부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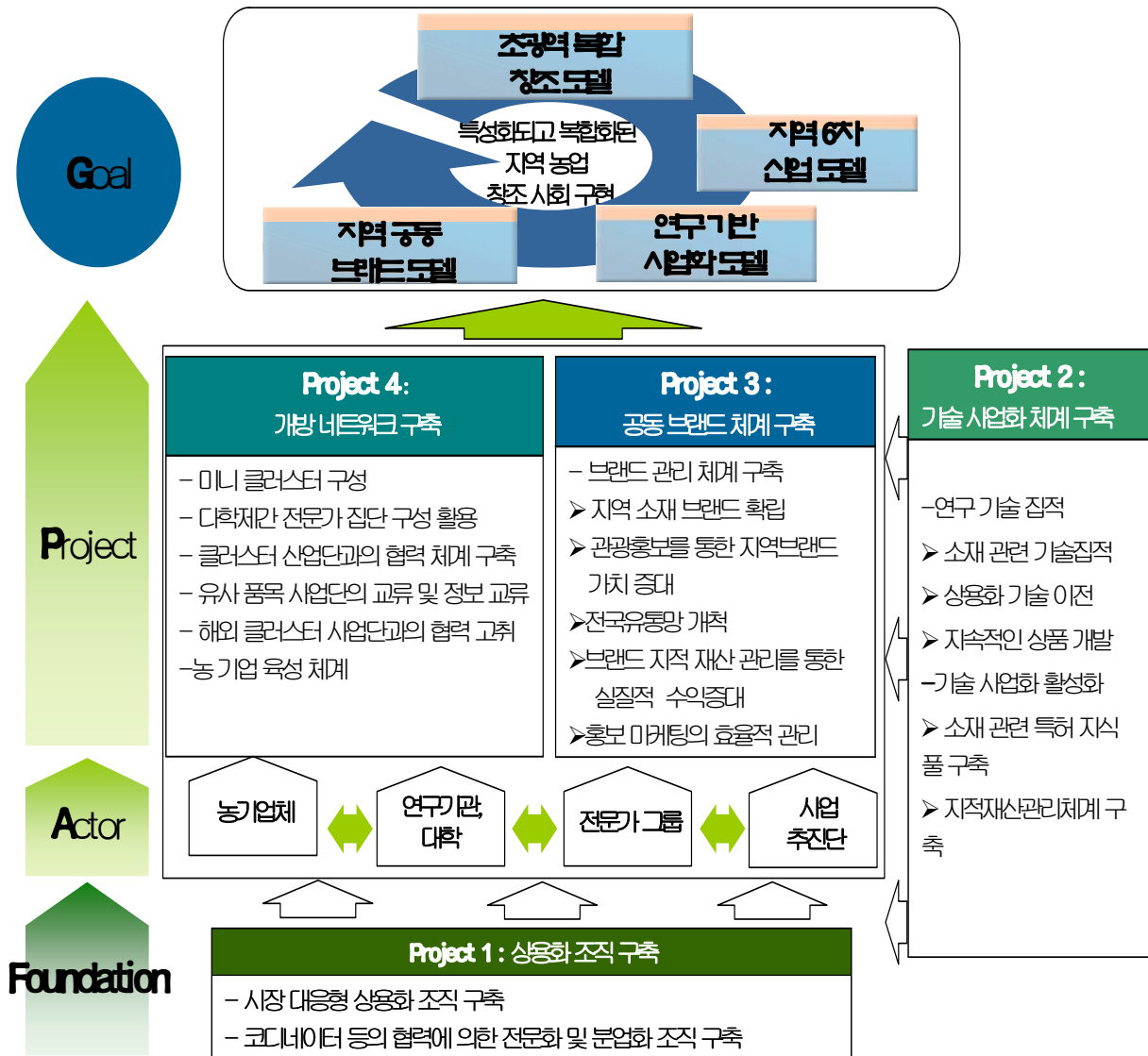
제2절 지역농업클러스터 개선 방안

# 제4장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활성화 방안

## 제1절 비전 및 추진 세부과제

### 1. 비전

<그림3> 지역농업클러스터 차별화 모델





## 1) 지역농업클러스터 차별화 모델 제시

- 사업단의 산업화 정도와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 공동 브랜드 모델, 연구기반사업화 모델, 지역 6차 산업 모델, 초 광역 복합 창조 모델로 분류함
- 개별 모델을 바탕으로 농산업클러스터의 장기발전 목표를 제시하여 특성화되고 복합화 된 지역 산업 고도화 달성

## 2) 체계적 추진 전략과 실천 방안

### ○ 사업단의 책임 경영 체제 구축

- 현재 시범사업단의 경우 시장 지향적이고 마케팅적 대응을 원활히 수행함과 동시에 사업단의 중장기 사업 기획 및 집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인력이 부족한 시점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 대응형 조직을 구축하고(책임 경영 체제 확립), 전문 코디네이터를 통한 전문화 능력을 보완하는 것이 요구됨

### ○ 기술 사업화 기반 확립

-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으로부터 가공·유통 판매라는 가치 벨류 체인이 확립되어야 함
-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 사업화 체제 구축이 요구됨
- 이는 낮은 단계의 농산물 가공 기술의 단계를 넘어 생산, 가공 및 향후 신약 개발 단계까지의 연구 설계 및 사업화 체계를 구축함에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상용화 기술 이전, 지속적인 상품 개발, 지적 재산관리 체계 구축 및 농 기술 특허폴 등의 활용이 요구됨

#### ○ 농 기업 보육 체계 선진화

- 외국의 사례 분석의 경우(예를 들어, 샌디에고 USCD Program) 처럼 지역 클러스터의 공고화는 기업 육성 체계에 상당 부분 달려 있음
- 따라서 지역 농업 클러스터의 공고화를 위해서는 농기업 지원 체제의 수립과 농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통한 매출 증대 및 고용 창출을 도와 줄 인큐베이팅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 지역 농업 클러스터의 경우 사업단의 목표에 대한 달성 부분에서 농 기업의 체계적 육성 결과 고용 창출과 매출 증대는 농 산업적 파급 효과에 대한 체계적 효과 측정 측면에서도 필요한 부분임

#### ○ 산업화를 달성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

- 사업단의 독자적인 공동 브랜드 관리 및 기술 사업화 능력을 제고하여, 사업단의 성장 모델에 의한 지역 농산업 클러스터 로써의 비전 및 추진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업 분야 이외의 다양한 전문가 및 전문 기관의 참여와 협력이 요구됨
- 따라서 다학제간 교류 확대, 미니클러스터 구성을 통한 품목별 산업화, 다양한 전문가(변호사, 변리사, MBA 출신 전문 경영 컨설턴트, 유통 전문가, 벤처 캐피탈 리스트 등)의 유기적 네트워크로 실시간 문제 해결 능력 공고화

## 2. 모델별 세부 지원 방안

### □ 지역공동브랜드 모델

- 지역 공동 브랜드 모델에서는 자원 활용형 모델로써 해당 자원의 시장성을 확보하여, 판매에 중점을 두고 지역의 브랜드화를 통한 지원에 중점을 둠
- 따라서 생산, 제조, 설계, 디자인 서비스지원, 경영 등 지원 서비스 역량, 마케팅 역량, 지리적, 공간적 집적성이 중요한 요소임

### □ 연구기반 사업화 모델

- 연구기반 사업화 모델에서는 연구 능력의 고도화를 통한 기술 집적과 확산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연구기반 역량 보유, 농기업 활성화, 정보화역량, 인력공급역량, 기술정책서비스역량의 유기적 관계가 중요함

### □ 지역 6차 산업화 모델

- 지역 6차 산업화 모델은 지역의 1차, 2차, 3차 산업이 상호 연관 관계를 조성하면서 2차 가공을 통한 농기업 육성이 요구되며, 산업화 기술 지원 역량,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대기업, 핵심기업 존재, 마케팅 역량이 요구됨

### □ 초 광역 복합 창조 모델

- 초 광역 복합 창조 모델은 국제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특정지역만의 클러스터가 아니라 규모의 경제화가 요구됨
- 정책 조정 역량, 세계화 전략 보유, 주력산업의 활용 극대화, 사업화 협의를 위한 문화, 환경 수준이 중요한 사항임

<표10>지역농업클러스터별 세부 지원

구분	지역 공동 브랜드 모델	연구기반 사업화 모델	지역 6차 산업화 모델	초 광역 복합 창조 모델
유형별 중요 사항	-지리적,공간적 집적성 -마케팅 역량 -생산,제조,설계,디자인 서비스 지원	-연구기반 역량보유 -농기업 활성화 -정보화 역량 -기술 정책서비스 역량	-산업화 기술지원 역량 -산,학,연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대기업 핵심기업 존재	-정책 조정 역량 -세계화 전략 보유 -사업화 협의를 위한 문화, 환경 수준 중요
사업개발/전략/농기업 보육	-사업타당성 평가 -사업계획/전략 수립 -농기업 지원	-사업 계획Upgrade -클러스터 기반의 농기업 인큐베이팅 체계 운영	-산업선점전략 수립 -클러스터 기반의 농기업 인큐베이팅 체계 사업화	-시장지배강화 -해외 지자체 및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클러스터 기반의 농기업 인큐베이팅 체계의 포스트 BI 구축
기술/제품개발	-기술시장성 파악 -신제품 테스트 -지적재산권관리 규정 제정	-신상품, 신기술 개발과 검증을 위한 연구센터 운영 -특허 지식풀 운영 -지적재산권관리 규정 운영	-최신 기술 동향을 점검하기 위한 전문가 위원회 운영 -지적재산권관리 규정 운영 및 수익화	-신제품개발 -해외경쟁업체분석 -최신 기술 동향을 점검하기 위한 전문가 위원회 운영
공동브랜드/유통(마케팅)	-국내외 시장조사 -대상고객/경쟁자 분석 -공동브랜드 관리 체계 정립	-경쟁제품동향분석 -타켓시장선정 -농기업 유치를 위한 마케팅 및 이미지 홍보	-대 언론 홍보시작 -마케팅 전략수립 -유통법인 설립준비 -공동브랜드 관리를 통한 라이선싱 수행	-해외진출 계획 -고객관리 -해외유통채널확보 -해외시장동향분석 -수출 네트워크 형성
인력/조직	-사업단멤버 구성 -사업참여자네트워크 -농업기업경영자간 네트워킹 지원	-사업단 인력 교육 -개발인력유지방안 -전문인력 활용 -코디네이터 도입	-CEO/CFO전문가 -적절한 업무 분장 -지역 기술협력체 지원 -전문인력 유치 -미니클러스터 구성	-성과보상체계확립 -신규인력 확보 -경영자신뢰성제고 -조직 개편 및 핵심인력 충원 -코디네이터 제도화 -미니클러스터 활성화
자금/투자유치	-자금운영 계획 및 관리 -클러스터 프로젝트에 대한 우선 자금 지원	-자금운영 계획 -회계사 등 전문가 활용 -기업간 협력프로젝트에 원천자금 제공	-전문가에 의한 자금 흐름 분석 -클러스터 참여주체의 공동 리스크 관리	-투자유치IR활동 -국외투자유치추진 -해외자본 투자 -협력자본유치사업 활성화 및 신용보증 제공
네트워킹	-클러스터 실무 사업단 구성 -농기업간 네트워크 육성	-농기업간 네트워크 육성 및 제도화 -기술표준 개발 및 기술 협의회 구성	-시장 정보의 집적과 제공 -통합 유통 네트워크 구성	-수출 네트워크 형성 -타 부문 기관 및 클러스터와의 협력 체계 구축

## 제2절 지역농업클러스터 개선 방안

### 1.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선정 시 고려사항

#### 1) 종합적인 연계 시스템 구축

- 클러스터는 일종의 생명체로써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되어야 됨
  - 해당 사업단의 경우 사업성, 기술성, 시장성 및 농업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연계시스템이 요구됨
  - 그러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기획 능력 지원 인력 부족과 실시간 지원해 주는 상용화 선순환 시스템 부족하며,
  - 시범사업 초기의 생산기반 조성 이후의 산업화 과정(예를 들어, 투자, 기술 사업화 등)의 단계별 지원 방안이 부족함

#### 2) 산업화 마인드 제고

- 생산기반 중심의 사고에서 농산업 클러스터 사업이라는 산업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 사업이라는 사고 전환의 교육이 필요함
  - 기존의 생산 기반 주도(경상보조) 중심의 지원 하에서는 산업화 마인드 부족으로 시장 경제 체계 속에서 경쟁과 소비자 중심주의에 바탕한 철저한 소비자 분석과 전문적 마케팅 전략 능력이 부족함

### 3) 수익화 모델 개발을 통한 자생 능력 제고

- 국고 지원 중단 시 자생 방안의 수립 가능한 사업모델은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농업 중심의 생산 기반 형이면서 장기육성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업단은 사업의 타당성을 재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사업단의 장기 발전 로드맵의 수립과 자율적인 사업 운영 보장과 시장 경쟁 체계에서의 자생능력 검증시스템의 개발 보완이 요구됨

### 4) 지적 재산권 관리 체계 정비

- 대학 주도형의 경우에는 사업단의 자생력 방안으로 연구 결과, 수익금의 배분 및 지적재산권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제도 지원이 필요함
  - 해당 사업단을 현실적으로 운영할 인력과 인건비 등의 현실적 반영이 요구되며,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등이 사업단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 5) 개방형 네트워킹 구축

- 클러스터는 네트워킹이 중심사항이나 지역적 차원과 농업적 차원의 접근으로 사업의 복합적이며 산업적 접근에 한계가 있음으로 개방형 네트워킹 구축 지원책 요구 됨
  - 미니 클러스터 육성을 통한 클러스터 역량 세분화하고,
  - 복합적이며 산업화 전문가 및 기관 등에 실질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 산업화 분야의 전문가(벤처 투자자, MBA 출신의 컨설턴트, 변리사, 변호사 등)의 협력 지원 체계 부족으로 농업 중심체 위주의 네트워킹을 산업화 개방 네트워킹으로 전환 및 확대하여 산업화 지원 협력 체계 구축이 요구됨

## 6) 농기업 보육 시스템 개발 및 공동 브랜드 관리

- 농기업의 창업 및 제품의 고급화, 연구, 유통 및 마케팅 등을 실시간 지원해 줄 수 있는 농기업 보육시스템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함
- 사업 아이템의 경우 복합 아이템 중심의 통합(연합 마케팅) 지향으로 일부 품목의 품질 하락 및 브랜드 관리 부족이 연관 브랜드에 영향을 나타내 종합적인 브랜드 체계 구축에 한계를 보임

## 2.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활성화 방안

### 1) 세부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

- 일정 지역의 발전을 선도 할 수 있는 농산업 클러스터는 정책적인 지원을 한다고 해서 단시일 내에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님
- 따라서 지역농업클러스터 정책도 단기적이고 양적인 정책지원의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기존 패턴에서 탈피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질적인 지역농업 발전의 효과를 추구해야 함

- 현재 실시중인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농업 관련 생산자 단체들의 지역 내 다른 산업과 연계 관계가 약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 지원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사업의 시행의 경우 형식적 클러스터 모델 제시가 아니라 사업단의 독자적이며 차별화된 클러스터 모델을 제시하고 향후 시장 경쟁 상태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종합적인 지원 체계 하에 세부 활성화 방안이 요구됨

## 2) 차별화 모델별 지원방안 구축

### (1) 지역 공동 브랜드 모델

- 국내의 지역공동브랜드모델의 경우 그 근저에 지역 농특산물이라는 자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해외모델인 자원 활용형 클러스터와 병립되는 특징이 있음
- 국내시범사업단은 해외 모델의 경우처럼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응용연구개발과 생산 및 상업화단계에 주력을 할 필요가 있음
- 해외모델인 자원 활용형 클러스터의 특징으로는 지역 내 보유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산업구조 고도화 및 시장대응을 위한 것이며, 응용연구개발과 생산 및 상업화 단계에 주력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지역 공동 브랜드 모델에 의한 지원을 위해서는 농기업 보육 지원시스템 (IBS 모델), 농기술 사업화 마케팅 시스템, 공동 브랜드를 활용한 브리드 라이선싱 모델, 농기업 제품 유통대행지원이 요구됨



## (2) 연구 기반 사업화 모델

- 국내의 경우 해외의 R&D주도형 클러스터의 경우에서 보듯 해당지역의 특정대학 또는 연구기관 만의 R&D결과물만이 아닌 국가전체의 개방적인 신기술을 접목시켜 다양한 시장욕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해외 모델인 R&D 주도형 클러스터는 의약 및 화학 생물검정 및 정보, 생물전자 산업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술의 사용목적은 신기술개발과 시장 대응형에 해당함
  - 연구 기반 사업화 모델에 의한 지원을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관리 규정 제정, 농기술 사업화 마케팅 시스템, 실시간 지원 시스템 구축, 농산업 상용화 펀드 구축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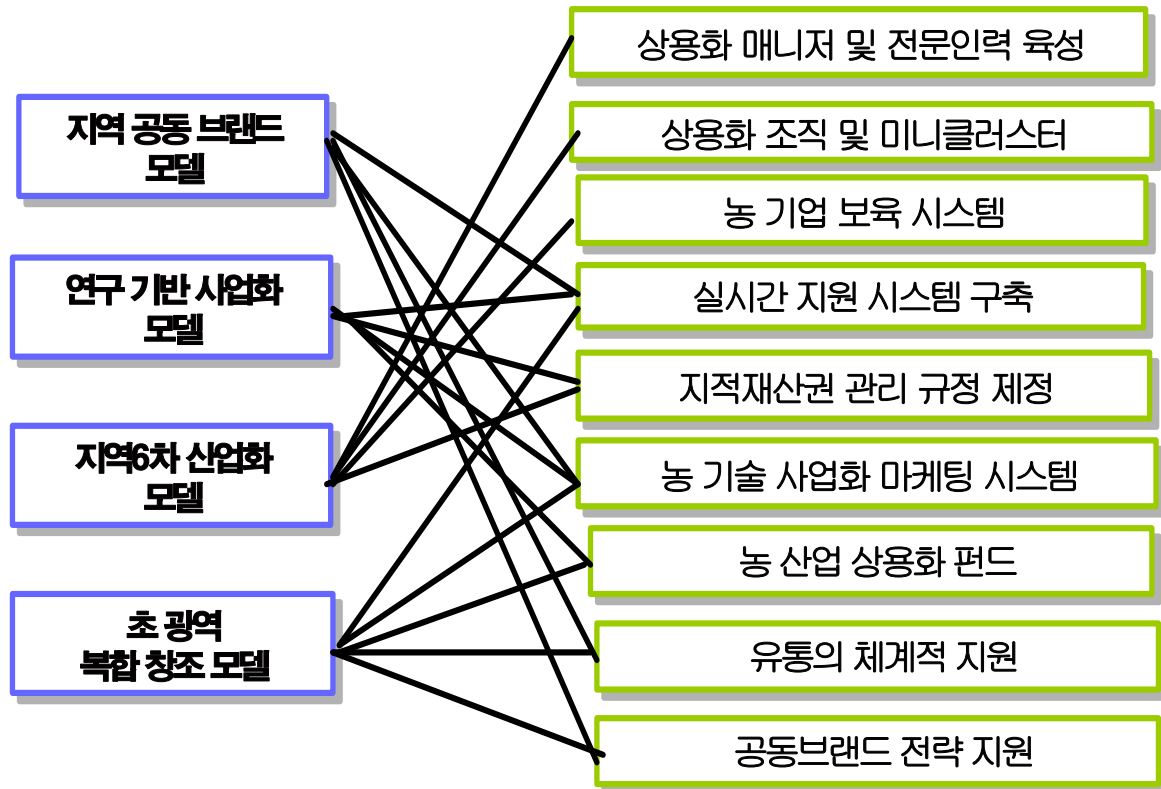
## (3) 지역 6차 산업 모델

- 국내의 경우 제조기반(2차 가공)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전(1차 산업)·후방(3차 산업)효과를 집적시키는 체계적 노력이 요구됨
  - 제조 기반형 클러스터는 신기술개발에서 시장 대응에 이르는 광범위한 목적으로 기술이 사용되며, 혁신의 정도도 광범위하게 발생 함
  - 지역 6차 산업 모델에 의한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 농업 클러스터 상용화 매니저 및 전문 인력 양성 방안, 미니클러스터 및 상용화조직, 농기업 보육 시스템, 지적재산권 관리 규정 제정이 요구됨

#### (4) 초광역 복합 창조 모델

- 지역 농업클러스터를 통하여, 동일 품목의 규모화 및 국제화를 통한 국가 브랜드 육성 모델로 향후 녹차, 축산 및 생약초의 조정 및 통합을 통하여 국가적 성공 모델 개발 형으로 보성 녹차, 하동 녹차 중심으로 본 사업을 통하여 성장하면 달성 가능한 모델임
- 초광역 복합 창조 모델에 의한 지원을 위해서는 농기술 사업화 마케팅 시스템, 실시간 지원 시스템 구축, 공동 브랜드를 활용한 브리드 라이선싱 모델, 농기업 제품 유통대행지원, 합리적인 평가시스템 및 보상체계 마련, 농산업 상용화 펀드 구축이 요구됨

<그림4> 차별화모델별 지원방안



### 3) 미니클러스터, 전문 인력 및 상용화 조직 육성

#### □ 지역 농업 클러스터 상용화 매니저 및 전문 인력 양성

- 지역 농업 클러스터 사업단은 연구나 생산 및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인력에 머물러 있음
  - 농업의 특수성 및 지역적 여건에 따라 산업화를 통한 사업단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문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상용화 매니저 및 전문 인력은 사업단과 농기업이 필요한 사항임 예를 들어, 제품이 생산되어지고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전주기 제품 사이클과 기업 경영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인력을 지칭하며, 이와 같은 전문 인력을 통하여 사업의 종합 기획력 및 시장 대응에 근거한 마케팅 전략의 수행 가능함
  - 이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교재와 현장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요함
  
- 지역 농업의 특성에 따라 상용화 전문 인력을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미니 클러스터 구성, 코디네이터 제도 활용하는 것도 합리적임

#### □ 미니 클러스터 구성

- 미니클러스터의 개념
  - 클러스터내의 세부 업종·기술별, 완성품과 부품업체간 등이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포럼, 협의회 등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 활동을 통하여 과제를 도출하고 도출된 과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소규모의 협의체를 말함

- 농기업과 관련된 각 분야의 이노베이션 활동이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상호협력, 공동학습, 정보공유를 하는 커뮤니티
- 미니클러스터 구성은 각 추진단별 전략업종 중심의 “업종별 미니클러스터”를 원칙으로 구성하나 현장의 농기업 수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성됨
- 시범지역별 입주기업 및 업종, 혁신환경 등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여 구성
- 미니클러스터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의 전제 조건인 신뢰구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동시에 추진이 요구됨 (코디네이터의 적극적 활용)
- 기술, 자금, 금융, 마케팅, 법무, 회계, 경영 등 각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인력Pool)를 통하여 과제 해결(관련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행정 또는 비용문제가 선행되어야함)으로 가급적 전문가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추진단 사업비로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함
- 전문 인력(코디네이터) Pool구성 및 활용이 요구됨
- 추진단별로 발굴된 과제에 대하여 전문가(코디네이터)를 활용하여 과제의 타당성, 사업성, 기술성, 소요 예산, 과제의 해결 방향 등을 모색(미니클러스터 활동에 참여)함
- 기술, 특허, 경영 등 전문분야에 대한 컨설팅, 확정된 과제의 사업수행을 수행하고,

- 일반코디네이터 : 인력Pool로 확보하여 미니클러스터 활동에 참여하고 과제 해결(컨설팅 등)함
- 전문가(코디네이터)의 활용은 과제 발굴에서부터, 과제검토, 과제선정, 사업추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클러스터사업은 추진단이 지역 내 모든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내 관련기관과 네트워크 또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과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임

#### □ 상용화 조직

- 지역 농업 클러스터 사업단은 자금 부족, 행정 또는 연구직 자원이거나 하드웨어 지원 중심에 의해 체계적인 마케팅 조직이 부재한 상태임
- 향후에는 뛰어난 기술 개발 및 분석 능력, 사업화 경험, 특허 관리 역량을 보유하는 방향의 사업화 및 마케팅 조직으로의 기능 변화가 요구됨
- 지역 농업 클러스터 사업단은 향후 사업단의 비즈니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 사업화 분야의 위험 공유(Risk Sharing)를 통한 시장실패 기능을 공유하며, 사업단 가치창조를 통한 성과에 대하여 수익을 실적에 따라 분배되는 마케팅 전문 조직으로 변화해야 함
- 이를 통한 해당 사업단의 자체적인 수익모델 개발을 통한 자립화 능력이 요구됨
- 따라서 이에 따른 기반 네트워킹 조직의 활성화 및 해당 사업단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 마련이 필수적임

#### 4) 농기업 보육지원 시스템 : IBS 모델(IncuBranding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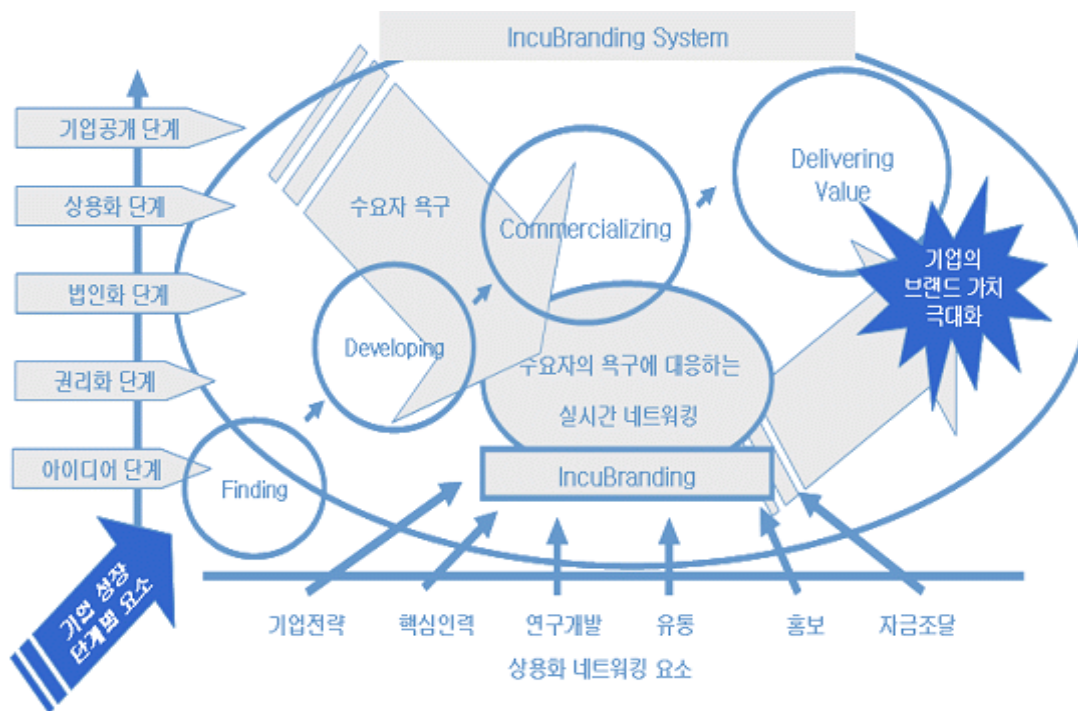
##### □ 필요성

- IncuBranding system은 최근의 지역 농업 클러스터 사업단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인 시장의 수요에 따른 실시간 지원의 부족을 적절히 해결함으로써 연구 단계부터 상용화까지의 전 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단계별 사항(예를 들어, 상용화 단계에서 유통 네트워크와의 협상과 전략적 제휴 요구)을 실시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함

##### □ 주요 내용

- 농기업의 창업단계의 아이디어 단계, 권리화 단계, 법인화 단계 등 농기업 성장단계별로 발생하는 문제를 기업현황분석을 통해 진단함
  - 고객이 실시간으로 요청하는 문제를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브랜드 파워를 증진시키는 종합적이면서도 기획적인 네트워크 시스템
  - 예를 들어, “10원의 가치가 IncuBranding system을 통해 100만원의 가치로 전환시키는 것 등을 말함”

<그림5> IncuBranding System



□ 상용화 방안

- 사업단(제품) 및 농기업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업단계별 진단과 연계된 지원이 필요함
  - 이는 사업화 과정에서 연구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자금 지원이나 판로개척의 부족으로 사업적인 실패에 직면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이에 따른 실시간 유통, 홍보, 가격 전략 및 제품생산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
  - 이는 지역 농업 클러스터 사업단의 핵심인 상용화 조직의 직접적인 역할이며, 상용화 단계별 지원 사항을 말함
  -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농기업 관리의 전체가 요구되며, 상용화 조직(IBS)의 구축을 통한 생명력 있는 활동이 요구됨

## 5) 지적재산권 관리 규정 제정

### ○ 지적재산관리 시스템 모델 제안

- 대학이나 연구소 중심의 사업단의 경우 가장 큰 자산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과 인력에 있다 할 수 있으며, 최근에 연구 성과에 대한 특허권의 귀속 여부에서 보듯이 연구소 중심의 사업단이 가진 기술의 보호는 사업단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 할 수 있음
- 이런 문제를 해결을 위해 사업단 내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직무발명계약, 기업비밀유지 계약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이 요구됨.
- 따라서 영국의 BTG 사례 분석처럼 연구자의 권리 관계, 기술 이전 및 수익 발생 시의 소득 배분에 대한 지적재산권 관리 규정 제정이 요구됨

- 특히, 지역공동브랜드의 경우 일반 특허 기술이나 저작권과는 달리 많은 이해관계인을 전제로 운영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지역공동브랜드선정-보호-분쟁-사후관리 등 전문적인 관리규정 및 운용이 요구됨

## 6) 농기술 사업화 마케팅 시스템\*

### □ 필요성

- 기술이전마케팅 시스템에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농기업에 이전하는 업무를 칭하는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이전된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농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

\* 특히, 농업의 경우 핵심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이전을 통한 기술 사업화 능력이 부족한 점에서 특히 요구됨



## □ 주요 내용

### ○ 네트워킹 데이터베이스 시스템(특허풀: Patent Pool)의 의의

- 현대와 같이 기술이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연구소, 농기업이 관련 특허기술을 조사, 분석하는 일이 과도한 부담으로 여겨짐
- 개별 농기업이 다수의 관련 특허 기술 중에 특정기술을 선별하고 협상하는 것이 과도하여 시간, 비용, 노력을 요구하는 한계점이 있음
- 특히, 농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한 분야인 경우 최근 특허기술을 조사하기 보다 오히려 기술개발에 경주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농산업 발전에 바람직하다는 인식에서 네트워킹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 농산업 네트워킹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성 및 관리 전략

- 농산업분야기술의 혁신을 위한 네트워킹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은 농 기업, 지자체, 대학, 연구소 등의 참여를 기초로 이루어지되 그 구체적인 추진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민간전문기관과 농림부의 지원을 통해서 초기 기반 구축함
- 이에 따른 확산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해당기술 수요자의 지원과 협조를 통해서 시스템의 확산에 기본 방향을 잡을 수 있음

최근에 국내의 경우, 경북 한우 클러스터 사업단이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에 따른 실행적 측면이 진행되고 있으나, 철저한 기술 확산에 따른 수익성에 근거한 기술 라이선싱적인 접근이 병행된다면 현재 사업단의 지적 자원을 활용한 수익활성화 방안으로 의미가 큼

○ 농산업 네트워킹 DB 시스템의 내용

- 네트워킹 DB 시스템이란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결여로 기술보유자에 대한 보상시스템이 미비하여 공식화된 채널을 활용하여 기술이전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음성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고 있음
- 따라서 이런 폐단을 방지하고자 기술상용화매니저가 해당 농기업의 비전과 제품을 연구하는 연구자들과 네트워킹을 가지고 함께 기술상용화를 수행 함

○ 농기술 네트워킹 DB시스템 구성절차

<표11> 농기술 네트워킹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성절차

단계	절차	내용
1단계	해당기술 분야의 시장동향 분석	시장동향 분석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 결성 시점 결정
2단계	결성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기초적인 계획 수립	응용특허에 대한 정의, 범위 등을 결정된다.
3단계	데이터베이스 조정기관 및 응용특허 평가자 결정	조정업무를 맡게 되는 기관은 자발적으로 맡는 경우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일부 핵심 특허권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4단계	조정기관 이국내외 특허권자를 상대로 특허제출요청 공고	보도자료, 인터넷 게시 등의 방법 이용한다.
5단계	응용특허 평가자가 제출된 특허에 대하여 풀가입 적합성 평가	특허 제출자는 소정의 평가비용을 조정기관에 납부한다.
6단계	데이터베이스에 소속될 특허를 결정, 특허권자에게 통보	풀에 가입할 특허로 판정받은 특허권자는 라이선스 권한 보유한다.
7단계	응용특허의 특허권자들의 모임 (initial group) 결성	자체 working group 결성 및 여러 번의 회의 개최한다.
8단계	특허권자 모임에서 라이선싱 대행	특허권자 모임에서 라이선싱 대행기관을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특허권자 모임에 속하는 권한이지만, 통상적으로 조정기관이 라이선싱 대행기관으로 선정된다.
9단계	라이선싱 대행 기관에서 라이선싱 기간, 계약서 등을 공표 기관을 결정	라이선싱 대행기관에는 라이선스들의 사전 동의를 구한다.

## ○ 기대효과

- 농기술 네트워킹 데이터베이스는 농산업분야 관련 다수의 특허기술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손쉽고 저렴하게 라이선스를 얻을 수 있음
-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법률분쟁을 해소시킴으로써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특허무효소송이나 침해소송에 연루되는 소송비용을 없애준다는 것
-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단일관리기관의 설립을 통하여 공동출자된 모든 특허에 대해 대규모의 라이선스를 허용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제공함
- 동 시스템은 제품의 제조(판매)에 대한 라이선스를 얻은 제조업자들 간에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제품의 질은 향상시키되 제품의 가격은 떨어뜨리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또한 각각의 구성원들은 기술상용화 매니저를 고리로 네트워킹을 형성함으로써 자신의 특허의 온전한 가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됨
- 동 시스템을 통해 얻는 효율성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포트폴리오 특허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그 특허기술에 대한 후속 R&D를 장려하는 효과도 가짐
- 막대한 기술이전 기반으로부터 실현될 수 있는 거래비용의 감소는 겹쳐두고서도, 다른 분명한 혜택이 크로스 라이선스를 허용 받은 시스템 구성원들에게 돌아감

## 7) 공동 브랜드 라이선싱

-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의 가치를 높여주는 요소들로는 특허브랜드, 회사브랜드, 정보인증브랜드 등 셀 수 없이 많으며,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 대표적인 회사가 Intel로서 “Intel-inside”란 브랜드를 활용하여 전체 수익의 50%를 얻고 있음
  - 클러스터 사업단의 공동브랜드 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적절한 홍보 전략을 구사하고 이를 브랜드화 한다면 새로운 수익 창출이 가능
  
- 또한, 농기업들의 홍보 및 브랜드를 관리해주는 지원을 통해 적절한 수수료를 확보할 수 있어 이 또한 새로운 수익창출의 방안이 될 수 있음
  
- 국내의 경우는 공동브랜드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부족하며, 소극적으로 전시회의 참여나 상표등록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실정임
  - 이는 연구개발 이후 상용화까지 핵심기술, 성장 기업의 전략적 지원에 한계를 표출하고 있음

## 8) 농기업 제품 유통대행지원

- 클러스터 사업단의 경우 유통업체나 대기업에 제품이나 기술을 납품할 경우 대부분이 중간유통업자(벤더)가 대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들 벤더들에 의해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생산자의 마진이 낮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유통 구조적 문제로 인해 농기업 이나 영농조합 법인의 수익성이 악화 될 뿐만 아니라 상품의 질도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그러므로 공익적인 기관에 의해 진행된다면 이런 불합리성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기존의 연구소 중심의 사업단이 담당해온 연구개발 및 생산대행과 동시에 기술상용화 전문가 조직과 함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단의 공동브랜드와 함께 한다면 상품의 시장 진입도 쉬울 것임

## 9) 본 사업 평가 방안(예시) 제시

- 시범사업 종결 시의 최종 평가는 각 사업단의 독자적 모델(공동 브랜드 개발형, 연구사업화 형 등)의 분류화를 통한 개별 사업단의 특수성을 반영한 성과평가지표로써 AHP 방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성과 평가 자료의 활용으로 합리적·과학적인 정책의사결정 지원
  - 계층분석적 의사결정기법 :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의 개요
    - Dr. Thomas L. Satty가 1971년 제안
    - 인간의 본성, 분석적 사고, 측정 등에 대한 기본적인 관찰을 통하여 문제를 정량적으로 해결하는 모델
    - 정성적인 자료와 정량적인 자료를 동시에 비율척도로 관찰할 수 있는 기법
    - 다기준의 복잡한 문제를 세분하여 이원비교를 통한 가중치 산출
    - 집단 의사 결정이 가능

• 1980년대 이후 경영 과학 분야의 주요 의사결정기법으로 인정

-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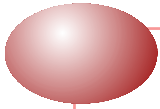
- 대안의 상대적 평가
- 절대적 평가지표로 활용 가능
- 과학적인 의사결정 가능
- 전문가의 지식을 구조화 할 수 있음
- 가능한 한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할 수 있는 모형

<표12> AHP 평가지표의 가중치 추정(예시 안)

목 표	가중치	세부평가항목	가중치	종합가중치
혁신성	25.7	품질관리체계	13.4	3.4
		브랜드 통합	12.9	3.3
		부가가치 창출	18.6	4.8
		인력 개발	17.3	4.4
		과정혁신	18.3	4.7
		전후방 산업발전	19.6	5.0
		소 계	100.0	
네트워크	28.2	규모화	7.0	2.0
		전후방 산업발전	9.8	2.8
		농업경영체 조직화	32.2	9.1
		참여조직 분야	10.6	3.0
		원료조달 비중	9.1	2.6
		다른 정책과의 연관도	15.3	4.3
		지방비 부담	15.9	4.5
소 계	100.0			
효과성	18.3	브랜드 통합	14.2	2.6
		규모화	7.1	1.3
		원료조달 비중	5.4	1.0
		매출액 성장성	22.7	4.1
		매출액 규모	12.7	2.3
		시설 이용도	17.1	3.1
		판매형태 및 유형	15.1	2.8
		수출실적	5.8	1.1
소 계	100.0			
조직유형	27.9	과정혁신	11.5	3.2
		주체의 명료성	35.1	9.8
		시스템 통합자 유형	32.6	9.1
		지방비 부담	15.5	4.3
		기록관리 정도	5.3	1.5
		소 계	100.0	
합 계	100.0			100.0

## 10) 농산업 상용화 펀드 구축

- 농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정과 농기업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음
- 바이오 벤처인 제넨테크사는 ‘코헨-보이어’ 특허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창업, 라이선싱 및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받은 사회적 금융시스템이나 프랑스의 기술개발 지원 단계별 기술상용화 펀드 등과 유사한 형태의 민간 간접 자금 펀드의 조성이 필요함
- 기술상용화 단계별 기술투자전문펀드 모델
  - 농업핵심기술의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상용화 단계별 실시간 자금조달에 따른 비용의 확보를 위하여, 기술 개발 및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정부가 출자한 기반펀드(Fund of Funds)를 바탕으로 민간 및 해외 자금이 유치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술상용화 단계별 농업 기술투자전문펀드의 운영이 필요함
- 농기업이나 농기술은 아이템 단계, 권리화 단계, 법인화 단계, 상용화 단계 등을 통하여 성장함
  - 이에 대한 필요자금 확보의 수단으로는 초기 연구 개발된 특허의 사업권을 공유하거나, 기술 이전 시에 라이선싱 비용에 대한 사후 투자에 따른 투자 수익률을 확보하거나, 해당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 유통을 통하여 판매 시에 판매 수수료의 확보 및 기업 인수, 합병에 대한 핵심기술료의 확보를 위한 초기 기술 투자 및 상용화 과정의 투자에 따른 투자의 수익 기반을 넓힐 수 있음



## 제5장 마무리



## 제5장 마무리

- 국내 농업의 현실은 DDA 협상, 한·미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생산기반 중심의 하드웨어 접근에는 구조적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시장 경쟁 체제하에서 생산 규모의 경쟁에 따른 비교 우위 접근에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며 보다 소비자 중심적이고 다양한 상황 변수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장 대응 위기관리 체계가 요구됨
  - 국내의 경우 클러스터 현황 및 특성에 적용 사례 분석이 미흡한 실정이며, 더욱이 농업 분야에서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의 실증적이며 현장 중심의 정책 집행 경험 부족에서 나타나는 혼선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지역 농업은 종래의 생산 및 거래비용 축소를 위하여 구상된 단순한 산업 집적지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기술혁신과 지식창출의 근원지로서 기능 및 역할의 기대와 농업의 신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지역의 복합 산업화 의미 부각이 중요하면서 지역농업클러스터의 의미가 큼
- 따라서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의 최종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지역 농업의 특성을 바탕으로 클러스터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시행 과정의 한계점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본 사업에 반영한다면 새로운 농업 정책의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음

<별첨 1>

##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만족도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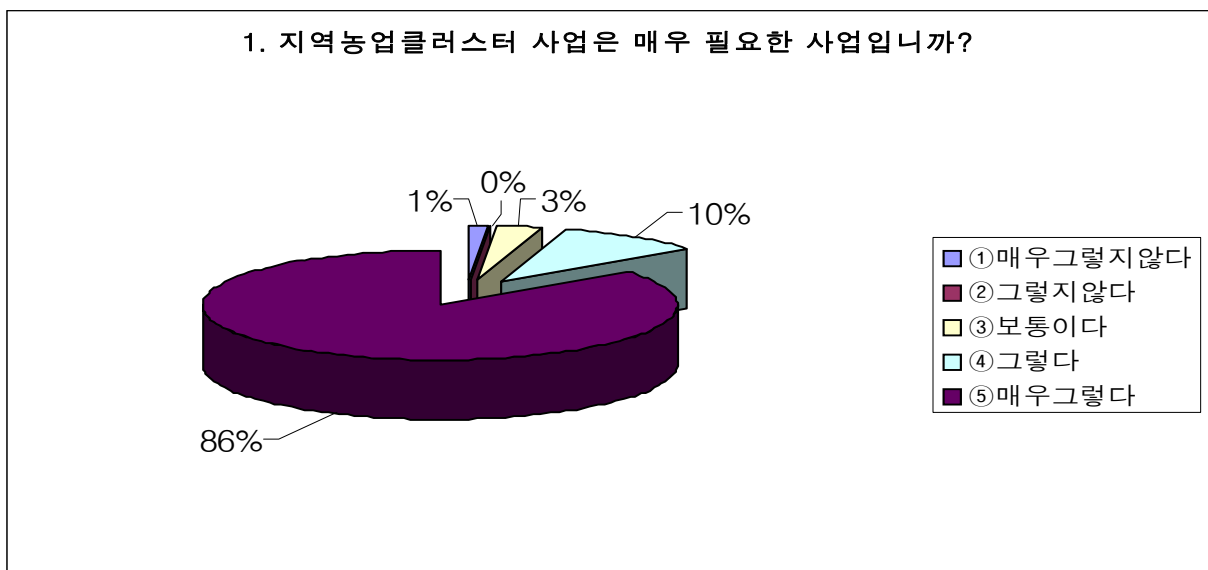
### 1) 조사 개요

- 20개 사업단 산, 학, 연, 관 관련 담당자(총 69 명)들을 대상으로 2007년 3월 ~ 4월 기간 동안 설문지를 통한 응답으로 조사되었음
- 지역농업 클러스터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시범사업 수행과정에서 고려된 사항과 추후 제안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단의 만족도 조사를 목적으로 시행되었음

### 2)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 세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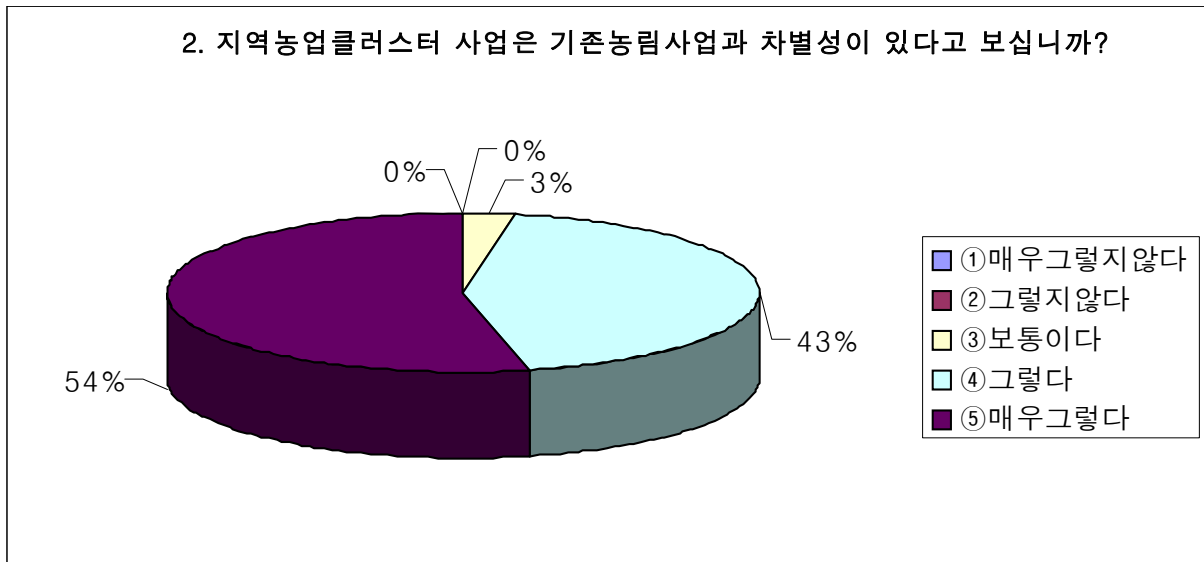
#### □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의 필요성

- 전체 응답자는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86%)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렇다(10%), 보통이다(3%)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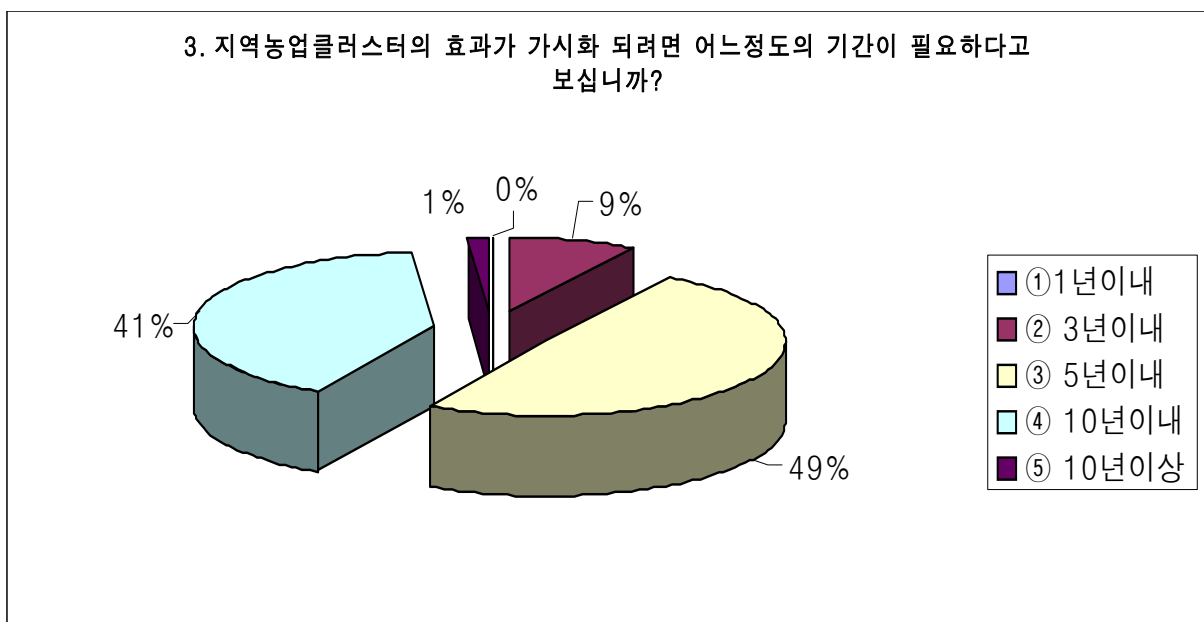
□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의 기존 농림사업과의 차별성

- 전체 응답자는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이 기존 농림사업과 차별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54%)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렇다(43%)가 보통이다(3%)가로 나타났음



□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 효과의 가시화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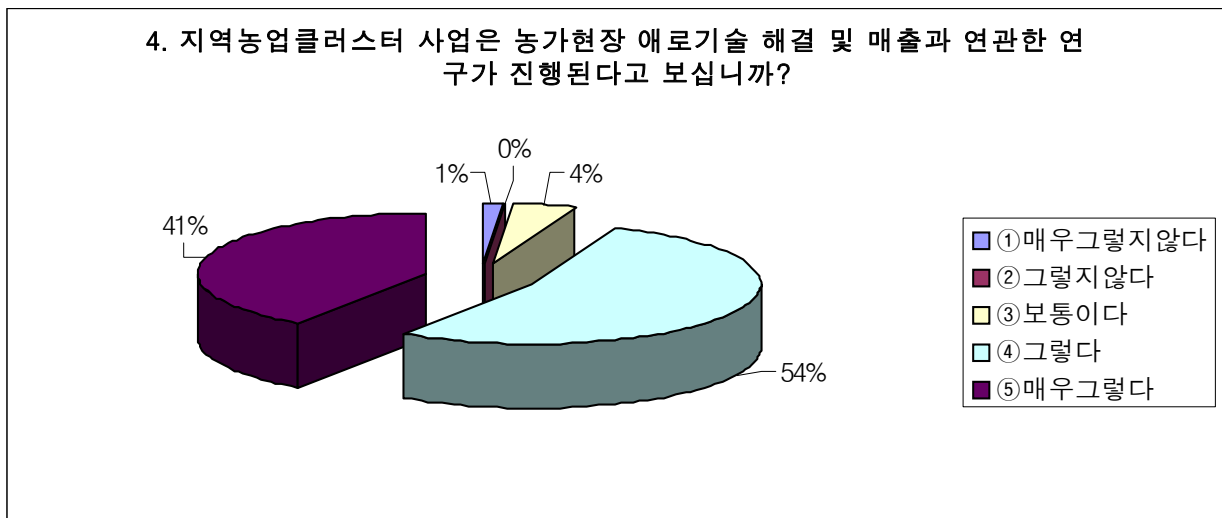
- 전체 응답자는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의 효과가 가시화 되려면 5년 이내의 기간이 필요하다(49%)고 인식하고 있으며 10년( 41%)이내는, 3년 (9%)이내로 나타났음



□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의 기술사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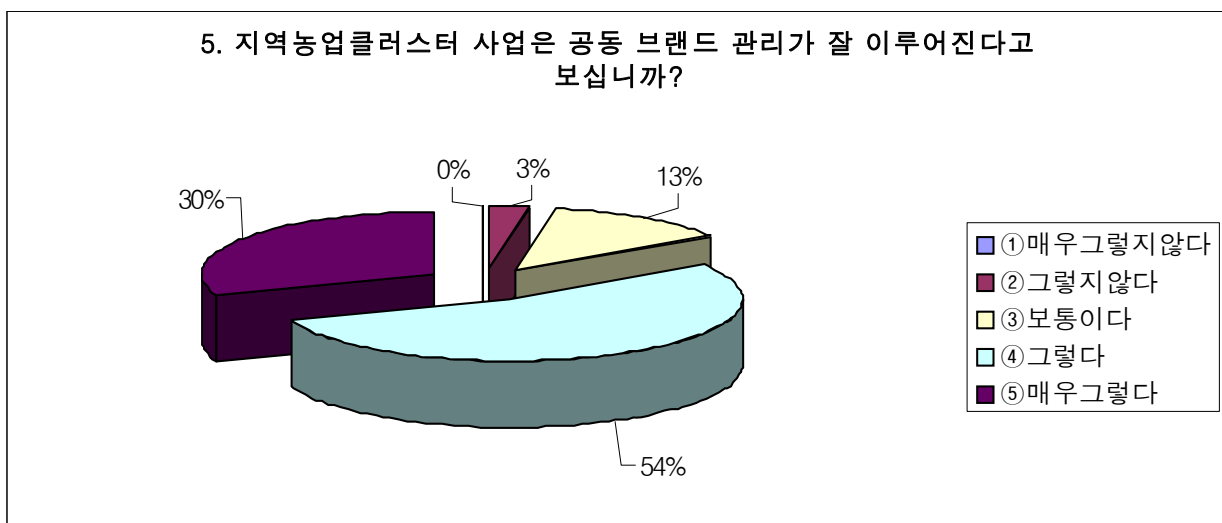
(농가현장 애로기술 해결 및 매출과 관련한 연구진행)

- 전체 응답자는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의 농가현장 애로기술 해결 및 매출과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그렇다(54%)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매우 그렇다(41%)가, 보통이다(4%)가 나타났음



□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의 공동브랜드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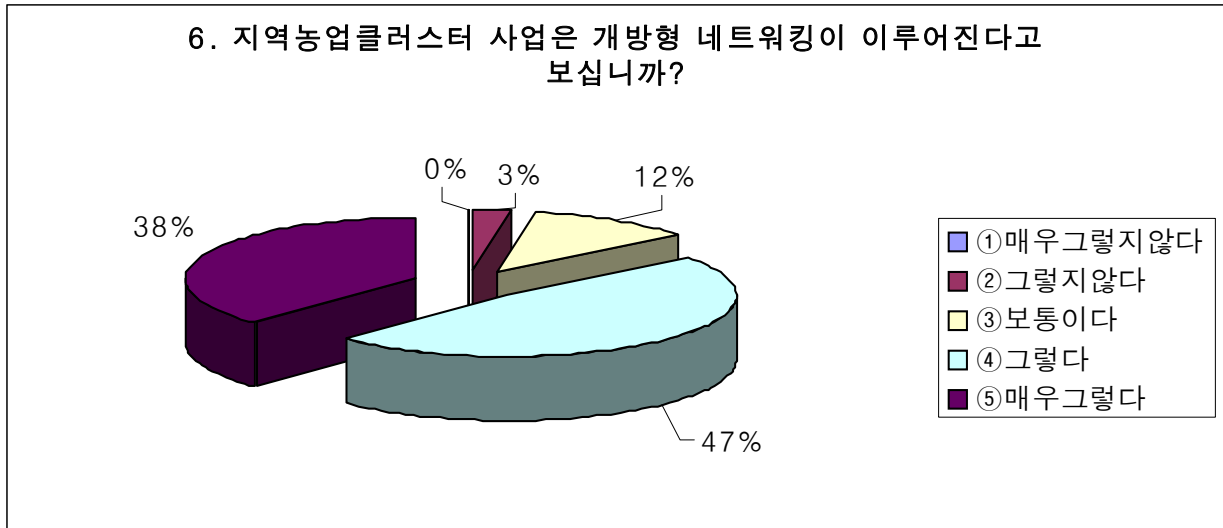
- 전체 응답자는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의 공동브랜드 관리가 잘 이루어 진다고 보는가에 대해서 그렇다(54%)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매우 그렇다(30%)가, 보통이다(13%)로 나타났음



□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의 개방형 네트워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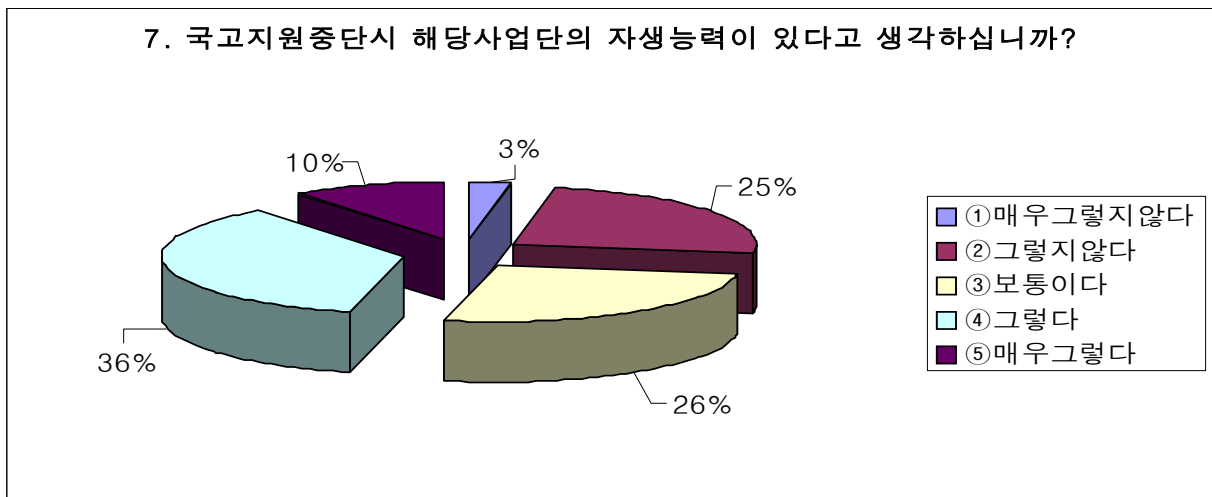
(농업 이외의 산업분야로써 유통, 마케팅, 2차 가공업체 협조)

- 전체 응답자는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의 개방형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그렇다(47%)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매우 그렇다(38%)가, 보통이다(12%)로 나타났음



□ 국고지원 중단 시 해당사업단의 자생능력

- 전체 응답자는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의 국고지원 중단 시 해당사업단의 자생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그렇다(36%)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보통이다(26%)가, 그렇지 않다(25%)가, 매우 그렇다(10%)로 나타났음



### 3) 설문조사 총평

- 설문 조사의 결과, 지역 농업 클러스터의 필요성, 다른 사업과의 차별성,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의 효과가 가시화 되려면 5년 이내의 기간이 필요하다(49%)라는 결과는 시범 사업으로써의 사업 집행에 긍정적인 측면을 반영하고 있음
- 상세 설명하면, 네트워킹 부분에서 구성은 되어있으나 일부 사업단의 경우 자문단, 참여기관의 실질적인 역할이 부재한 측면이 반영되어서 개방형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 가에 대해서 그렇다(47%)라는 결과 반영이라고 봄. 따라서 클러스터의 경우 네트워킹을 통한 정보 교류를 통한 지식 재창조와 산업화 촉진의 원동력으로 농업 관계자 중심의 협력 등으로 네트워킹의 범위가 제한적인 것을 벗어나, 사업 분야별 전문가 지원 체계를 통한 클러스터 참여자의 핵심 역량 극대화가 요구됨
- 기술 수준, 경쟁 우위도 및 기술(연구)의 사업화의 경우와 공동 브랜드 관리의 경우는 연구기관 주도형이 연구기술의 사업 활용 등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연구 및 해당 특허권 등의 성과를 제품개발에 활용하여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사업단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측면은 긍정적이거나 기술력의 고도화 및 지적재산권의 관리 능력 전문성 부족은 한계이며, 공동 브랜드의 경우 시장성이 검증된 브랜드를 통해 산업화 및 마케팅 단계로 진입한 사업단의 확대가 요구됨

<별첨 2-1 >

## 시범사업단 중간평가 서면평가지표

□ 사업단명 :

구분	평가항목	배점	점수	비고	
준비 (20)	사업추진체계 구축				
	'06 예산(지방비) 확보				
	사업추진을 위한 규정 및 제도 정비실적 (제도개선)				
집행 (80)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일관성 유지 - 사업계획 변경(자체변경, 농림부 승인) - 총괄책임자 변경 - 사업 참여기관 변경 - 변경과정에서의 행정절차 준수 여부				
		참여농가 조직화 정도 - 사업 설명회, 영농기술 등 농업인 교육실적 - 작목반 현황 및 법인 구성 여부 - 참여농가 D/B 구축(전산화) 및 활용현황 - 농가 현장애로기술 발굴 및 유통 지원 등의 실적 - 자체 생산 품질관리 규정 마련 유무			
	네트워킹 활성화 (25)	참여기관(산학연관) 네트워크 밀도 및 지원체계 활용 실적 - 산학연관(참여기관)의 교류협력 정도 - 해당 사업 관련 기업 유치 - 타 클러스터 사업단과의 교류 협력 - 워크샵, 포럼 및 세미나 개최 - 자문단(위원회) 등 지원체계 활용 실적			
		타 농림사업 연계 정도			
		사업 홍보실적 (TV, 일간지, 홍보물 발간 등)			
	사업비 수행도 (25)	집행·관리의 투명성 및 적정성			
		예산 집행 실적 (연도 내 집행가능하며, 정당한 계약행위에 의한 지출원인행위액 포함)			
		단위사업별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기타 항목	총사업비 중 자부담 정도			
		우수사례 추진 실적	가산		
평가자료 작성 충실도					
사업지침, 지시사항 위반					
	외부기관 지적 사항에 대한 여부	감점			
	평가관련 부조리				
합계	100점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내용

### 1. 사업추진체계 구축

- 전담조직 확보 실태
  - 사무국 운영, 사업담당 조직 확대
- 전담인력 확보 상태
  - 전담인력 (참여기관 파견)
  - 사업단 채용: 사업단장을 외부 CEO 영입 등
- 외부 지원 조직 구축

#### <세부 평가표>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등급별 점수		평가 결과
			존재	부존재	
전담조직 확보 (3)	기존조직을 확대운영하거나, 새롭게 조직을 신설하여 클러스터 중심체 역할을 한 경우				
	새롭게 조직을 신설하였으나, 기존의 조직운영과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클러스터 중심체 역할이 미흡한 경우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이 부실한 경우				
전담인력 확보 (4)	사업단의 참여기관에서 파견을 받았거나, 외부 CEO로 영입하여 혁신리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경우				
	사업단장을 외부 CEO로 영입하여 혁신리더로서의 역할을 어느정도 수행한 경우				
	CEO 및 전문인력을 채용하였으나, 사업추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경우				
지원체계 (자문단 등)구축 (3)	전담인력확보가 미흡하여 사업운영이 원활하지 않거나, 전문인력이 아닌 사무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실질적인 지원조직을 구성한 경우				
	기존의 기구를 지원조직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원조직을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합 계					



## 2. 예산(지방비) 확보

### ○ '06 지방비 확보 상태 파악

- 도비 및 시·군비 분담 및 확보 실태
- 시·군별 지방비 확보 일자 파악(지방의회 본회의 통과 날짜)

### ○ 사업비 집행 실태 및 사업 추진상황 파악

#### <세부 평가표>

세부 평가항목		배점	등급별 점수		평가 결과
			존재	부존재	
'06 지방비 확보 상태	본예산 전액(100%) 확보				
	본예산 30%~99% 확보				
	본예산 30%미만 확보				
합 계					

## 3. 사업추진을 위한 규정 및 제도 정비 실적(제도개선)

### ○ 지역농업클러스터 로드맵 각 세부과제의 사업추진

- 지역 농업클러스터 세부 사업 계획 마련
- 관련 기관간의 협업 체계 기반 구축
- 관련 제도, 지침 운영 및 개선 등

### ○ 정책지원 및 사업추진

- 사업의 선정, 사업 관리 및 관련 지침 운영 등

#### <세부 평가표>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등급별 점수		평가 결과
			존재	부존재	
지역농업클러스터 로드맵 각 세부과제의 사업추진(3)	지역 농업클러스터 세부 사업 계획 마련				
	관련 기관간의 협업 체계 기반 구축				
	관련 제도, 지침 운영 및 개선 등				
정책지원 및 사업추진(2)	사업의 선정, 사업 관리 및 관련 지침 운영 등				
	사업비 집행 등을 위한 규정 및 제도를 제·개정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합계					

#### 4.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일관성 유지

- 사업계획 변경(자체변경, 농림부 승인)
- 총괄책임자 변경
- 사업 참여기관 변경
- 변경과정에서의 행정절차 준수여부

#### <세부 평가표>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등급별 점수		평가 결과
			존재	부존재	
사업추진의 일관성 유지 (10)	사업계획 유지 (3)	당초의 계획을 그대로 유지			
		사업계획 변경 실적 1회			
		사업계획 변경 실적 2회 이상			
	총괄책임자 변경 (3)	당초의 총괄책임자 그대로 유지			
		총괄책임자 변경 실적 1회			
		총괄책임자 변경 실적 2회 이상			
	참여기관 변경 (2)	당초의 참여기관을 그대로 유지			
		참여기관 변경 실적 1회			
		참여기관 변경 실적 2회 이상			
	행정절차 준수여부 (2)	위 3항목 모두 변경 사항 없을시			
		행정절차를 명확하게 준수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합 계					

## 5. 참여농가 조직화 정도

- 사업 설명회, 영농기술 등 농업인 교육실적  
 (※사업 설명회, 영농기술등 농업인 교육 참석 인원  
 -농업인 참석 대상자가 100명-150명일 경우 교육 2-4회에 준함.  
 -농업인 참석 대상자가 150명-300명일 경우 교육 5회이상에 준함.)
- 작목반, 농업법인 구성 여부
- 참여농가 D/B 구축(전산화) 및 활용현황
- 자체 생산 품질관리 규정 및 자체 연구 설계 마련 유무
- 농가 현장애로 기술 발굴 및 유통 지원 실적

### <세부 평가표>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등급별 점수		평가 결과
			존재	부존재	
참여농가 조직화 정도 (20)	<b>사업 설명회, 영농기술 등 농업인 교육 실적(3)</b>				
	농업인 교육 5회 이상				
	농업인 교육 2~4회 이하				
	농업인 교육 1회 이하				
	<b>작목반, 농업법인 구성 여부(3)</b>				
	작목반 구성, 농업 법인 구성				
	농업법인 구성				
	작목반 구성, 농업 법인 미 구성				
	<b>참여농가 D/B 구축(전산화) 및 활용 현황(8)</b>				
	재배면적, 사육두수, 영농진행상황 전산화(우수)				
	재배면적, 사육두수, 영농진행상황 전산화(보통)				
	재배면적, 사육두수, 영농진행상황 전산화(미흡)				
	<b>자체 생산 품질관리 규정 및 자체 연구설계 마련 유무(3)</b>				
	자체 생산 품질관리 규정 및 자체 연구설계 마련 우수				
	자체 생산 품질관리 규정 및 자체 연구설계 마련 보통				
	자체 생산 품질관리 규정 및 자체 연구설계 마련 미흡				
	<b>농가 현장애로기술 발굴 및 유통지원 등의 실적(3)</b>				
	우수				
	보통				
	미흡				
<b>합 계</b>					

## 6. 참여기관(산학연관) 네트워크 밀도 및 지원체계 활용 실적

- 산학연관(참여기관)의 교류협력 정도
- 해당 사업 관련 기업 유치
- 타 클러스터 사업단과의 교류 협력
- 워크샵 개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 자문단(위원회)등 지원체계 활용 실적

### <세부 평가표>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등급별 점수		평가 결과
			존재	부존재	
참여기관 (산학연관) 네트워크 밀도 및 지원체계 활용실적 (15)	<b>산학연관(참여기관)의 교류 협력(3)</b>				
	교류협력 우수				
	교류협력 보통				
	교류협력 미흡				
	<b>해당 사업 관련 기업 유치(3)</b>				
	관련 기업 유치 3개 이상				
	관련 기업 유치 1개 이상 2개 이하				
	관련 기업 유치 1개				
	<b>타 클러스터 사업단과의 교류 협력(3)</b>				
	교류협력 우수				
	교류협력 보통				
	교류협력 미흡				
	<b>워크 샵, 포럼 및 세미나 개최(3)</b>				
	5회 이상				
	2이상~4회 이하				
1회 이하					
<b>자문단(위원회) 등 지원체계 활용 실적(3)</b>					
자문단 지원 우수					
자문단 지원 보통					
자문단 지원 미흡					
합계					

### 7. 타 농림사업을 연계 정도

- 다른 개별 농림사업이나, 타 부처 사업을 클러스터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계·추진하여 예산절감 및 시너지 효과를 제고한 실적

#### <세부 평가표>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등급별 점수		평가 결과
			존재	부존재	
타 농림 산업 연계정도 (5)	타 농림사업 연계 : 5개 이상				
	타 농림사업 연계 : 4개				
	타 농림사업 연계 : 3개				
	타 농림사업 연계 : 2개				
	타 농림사업 연계 : 1개 이하				
합계					

### 8. 사업홍보 실적(TV, 일간지, 홍보물 발간 등)

- 국내 사업홍보 광고 건수
- 관련 전시회 개최
- 홍보물 발간
- 박람회 개최 및 참석 건수
-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 <세부 평가표>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등급별 점수		평가 결과
			존재	부존재	
사업 홍보 (5)	국내 사업홍보 광고 건수				
	관련 전시회 개최				
	홍보물 발간				
	박람회 개최 및 참석 건수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합계					

9. 집행관리의 투명성 및 적정성

- 전용카드, 세금계산서 등 전부 사용으로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집행서류가 규정대로 구비
- 사업비의 별도계정 및 별도 통장관리
- 별도 장부 회계 관리 및 증빙서류 구비 현황
- 항목별 금액 사용과 세부 비목별 집행내역의 적정성

10. 예산집행 실적

- 예산액은 예산현액('05이월액+'06예산액) 기준
- 연도 내 집행가능하며, 정당한 계약행위에 의한 지출 원인 행위액 포함

11. 단위사업별 계획대비 사업 추진실적

12. 총사업비 중 자부담 정도

<세부 평가표>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등급별 점수		평가 결과	
				존재	부존재		
사업비 수행도 (25)	집행관리의 투명성 및 적정성 (5)	사업비의 별도계정 및 별도통장관리 -총괄/사업 책임자 확인 지불여부 등					
		별도 장부 회계 관리 및 증빙서류 구비 현황					
		항목별 금액 사용과 세부 비목별 집행내역의 적정성					
		참여기관 관리					
		수익금 관리의 적정성					
	예산 집행 실적 (10)	집행: 75~100%					
		집행: 50~75%					
		집행: 25~50%					
		집행: 25% 이하					
		전액 미집행 및 이월					
	단위사업별 사업 추진 현황 (5)	단위사업 대비 “부진”사업이 전혀 없는 경우					
		단위사업 대비 “부진”사업이 20% 미만인 경우					
		단위사업 대비 “부진”사업이 20-50% 인 경우					
		단위사업 대비 “부진”사업이 50-80% 인 경우					
		단위사업 대비 “부진”사업이 80% 이상인 경우					
	총사업비 중 자부담 정도 (5)	자부담 정도: 40% 이상					
		자부담 정도: 30~39%					
		자부담 정도: 20~29%					
		자부담 정도: 10~19%					
		자부담 정도: 10% 이하					
	합계						

### 13. 기타항목

#### □ 우수사례 추진 실적

\* 가산점 항목

##### <세부 평가표>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등급별 점수		평가 결과
			존재	부존재	
우수 사례 (5)	브랜드, 마케팅, 홍보, 혁신, 농가조직화 등 사업단이 우수사례로 추진할 실적 5건 이상				
	브랜드, 마케팅, 홍보, 혁신, 농가조직화 등 사업단이 우수사례로 추진할 실적 4건				
	브랜드, 마케팅, 홍보, 혁신, 농가조직화 등 사업단이 우수사례로 추진할 실적 3건				
	브랜드, 마케팅, 홍보, 혁신, 농가조직화 등 사업단이 우수사례로 추진할 실적 2건				
	브랜드, 마케팅, 홍보, 혁신, 농가조직화 등 사업단이 우수사례로 추진할 실적 1건				
합계					

#### □ 평가 자료 작성 충실도

\*평가위원회 작성/가산점

##### <세부 평가표>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등급별 점수		평가 결과
			존재	부존재	
충실도 (5)	기한 내 평가 자료의 제출 여부				
	각 평가 자료의 내용 기재에 대한 충실도 여부				
	- 평가 자료의 내용 기재가 충실한 경우				
	- 평가 자료의 내용 기재가 보통인 경우				
	- 평가 자료의 내용 기재가 미흡한 경우				
합계					

□ 농림사업시행지침, 지시사항 등 위반

\* 감점항목

<세부 평가표>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등급별 점수		평가 결과
			존재	부존재	
지침 위반 (-5)	인건비 보조(4천만원) 한도 초과 집행				
	7월 이전 해외연수 실시				
합계					

□ 외부기관 지적 사항에 대한 여부

\* 감점 항목

<세부 평가표>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등급별 점수		평가 결과
			존재	부존재	
지적 사항 (-3)	외부기관의 지적사항이 2건 이상일 경우				
	외부기관의 지적사항이 1건 이하일 경우				
합계					

□ 평가관련 현지실사 또는 평가위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 감점 항목

○ 예시 : 금품제공, 향응, 청탁(직·간접) 여부에 대하여 평가위원을 통해서 판단

<세부 평가표>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등급별 점수		평가 결과
			존재	부존재	
부조리 (-3)	평가관련 부조리가 2건 이상일 경우				
	평가관련 부조리가 1건 있을 경우				
합계					



<별첨 3-1 >

## 시범사업단 종합평가 서면평가지표

□ 사업단명 :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점수	비고	
	사업 추진 역량 (15)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일관성 유지 - 사업계획 변경(자체변경, 농림부 승인) - 총괄책임자 변경 - 사업 참여기관 변경			실적
		참여농가 조직화 정도 - 사업 설명회, 영농기술 등 농업인 교육실적 - 작목반 현황 및 법인 활동상황 - 참여농가 D/B 구축(전산화) 및 활용현황			실적/ 위원단 평가
집행 (47)	네트워킹 활성화 (15)	참여기관(산학연관) 네트워크 밀도 및 지원체계 활용 실적 - 산학연관(참여기관)의 교류협력 정도 - 워크숍, 포럼 및 세미나 개최 - 자문단(위원회) 등 지원체계 활용 실적			실적/ 위원단 평가
		타 농림사업 연계 정도			실적
		사업 홍보 실적 (TV, 일간지, 홍보물 발간 등)			실적
예산 집행 관련 (17)		집행·관리의 투명성 및 적정성			실적
		예산 집행 실적			자동 (강제)
		단위사업별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실적
		총 사업비 중 자부담 정도			자동 (강제)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점수	비고
성과 (53)	사업단 성과 달성도 (21)	사업목표의 달성도 - 사업단 성과 지표 달성도 - 농가 소득증대(매출) 기여도 - 국고지원 중단에 대비한 사업단 자생능력방안			실적/ 위원단 평가
		해당 사업에 대한 파급효과 - 원재료의 생산기반 및 시설의 구축 - 제품개발을 위한 기반여건들 조성 - 유통망·관광 및 서비스 창출 효과			실적
	기술 (연구) 사업화 (17)	기술의 수준 및 경쟁 우위도 - 기술에 대한 인증 - 사업관련 기반 기술의 수준 - 농가현장 애로 기술개발 실적			실적
		기술(연구)의 사업화 - 연구기술의 사업활용성 (기술이전, 연구개발 및 활용을 통한 매출액 발생) - 원자재 및 소재에 대한 연구과제의 적합도 - 관련산업과의 연구인프라 구축실태			실적/ 위원단 평가
	사업단 공동 브랜드 관리 (15)	브랜드 구성 요소 - 브랜드 네임 가치 - 심벌마크(캐릭터)의 독창성 및 사업과의 연계성			실적/ 위원단 평가
		브랜드의 시장성 - 브랜드 광고·홍보 활동 상황 - 브랜드 유통조직 및 독립적 판매망 구축 상황			실적/ 위원단 평가
		브랜드의 사용지침 관리실태			실적/ 위원단 평가
	기타 항목	우수사례 추진 실적	가 점		
		평가자료 작성 충실도			
		해당사업관련 기업 유치			
생산상품의 클러스터 사업단 명칭 사용 여부		감 점			
사업지침, 지시사항 위반					
외부기관 지적 사항에 대한 여부					
평가관련 부조리					
서면평가와 프리젠테이션 자료 일치 여부					
합계					

※ 비고

실적 : 현지 실사단이 평가

자금(강제) : 예산집행 비율 등에 따라 배점

실적/위원단 평가 : 각 사업단이 제출한 실적을 바탕으로 현지 실사단의 평가를 거쳐 서면심사위원  
회에서 사업단 상대평가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내용

### I. 사업 추진 역량

#### 1.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일관성 유지

평가대상기간: '06.7~'06.12

평가항목

- 사업계획 변경(자체변경, 농림부 승인)
- 총괄책임자 변경
- 사업 참여기관 변경

<세부 평가표>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등급별 점수		평가 결과
		존재	부존재	
사업추진의 일관성 유지 (3)	사업계획유지여부			
	총괄책임자 변경			
	참여기관 변경유무			
합 계				

#### 2. 참여농가 조직화 정도

평가대상기간: '06.7~'06.12

평가항목

- 사업 설명회, 영농기술 등 농업인 교육실적
- 작목반, 농업법인 활동상황
- 참여농가 D/B 구축(전산화) 및 활용현황

<세부 평가표>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등급별 점수		평가 결과
			존재	부존재	
참여농가 조직화 정도 (12)	사업 설명회, 영농기술 등 농업인 교육 실적	우수			
		보통			
		미흡			
	작목반, 농업법인 활동상황	우수			
		보통			
		미흡			
	참여농가 D/B 구축(전산화) 및 활용 현황	우수			
		보통			
		미흡			
합 계					

II. 네트워킹 활성화

1. 참여기관(산학연관) 네트워크 밀도 및 지원체계 활용 실적

평가대상기간: '06.7~'06.12

평가항목

- 산학연관(참여기관)의 교류협력 정도
- 워크숍 개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 자문단(위원회)등 지원체계 활용 실적

<세부 평가표>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등급별 점수		평가 결과
			존재	부존재	
참여기관 (산학연관) 네트워크 밀도 및 지원체계 활용실적 (9)	산학연관(참여기관)의 교류 협력	우수			
		보통			
		미흡			
	워크숍 포럼 및 세미나 개최	우수			
		보통			
		미흡			
	자문단(위원회) 등 지원체계 활용 실적	우수			
		보통			
		미흡			
합계					

## 2. 타 농림사업 연계 정도

□ 평가대상기간: '06.7~'06.12

□ 평가항목

○ 다른 개별 농림사업이나, 타 부처 사업을 클러스터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계·추진하여 예산절감 및 시너지 효과를 제고한 실적

- 타 농림사업과 연계
- 타 부처 사업과 연계

<세부 평가표>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등급별 점수		평가 결과
		존재	부존재	
타 농림 사업 연계정도 (2)	타 농림사업과 연계			
	타 부처 사업과 연계			
합계				

## 3. 사업홍보 실적(TV, 일간지, 홍보물 발간 등)

- 국내 사업홍보 광고 실적 (TV, 일간지 등)
- 홍보물 발간
- 박람회(전시회)개최 및 참석 실적
-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 세부 평가표 >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등급별 점수		평가 결과
		존재	부존재	
사업 홍보 (4)	국내 사업홍보 광고 실적(TV, 일간지 등)			
	홍보물 발간			
	박람회 개최 및 참석 실적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합계				

### Ⅲ. 예산집행관련

#### 1. 집행관리의 투명성 및 적정성

평가대상기간: '06.7~'06.12

평가항목

- 전용카드, 세금계산서 등 전부 사용으로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집행서류가 규정대로 구비
- 별도 장부 회계 관리 및 증빙서류 구비 현황
- 항목별 금액 사용과 세부 비목별 집행내역의 적정성

#### 2. 예산집행 실적

평가대상기간: '06.1~'06.12

평가항목

- 예산액은 예산현액('05이월액+'06예산액) 기준
- 연도 내 집행가능하며, 정당한 계약행위에 의한 지출 원인행위액 포함

#### 3. 단위사업별 계획대비 사업 추진실적

평가대상기간: '06.1~'06.12

평가항목

- '06 단위사업계획대비 실적 90%~100%
- '06 단위사업계획대비 실적 71%~89%
- '06 단위사업계획대비 실적 70%이하

#### 4. 총사업비 중 자부담 정도

평가대상기간: '06.1~'06.12

평가항목

○ 자부담 정도: 30~40%

○ 자부담 정도: 11~29%

○ 자부담 정도: 10% 이하

<세부 평가표>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등급별 점수		평가 결과	
			존재	부존재		
예산 집행 관련 (17)	집행 관리의 투명성 및 적정성 (3)	별도 장부 회계 관리 및 증빙서류 구비 현황				
		항목별 금액 사용과 세부 비목별 집행내역의 적정성				
		수익금 관리의 적정성				
	예산 집행 실적 (8)	집행: 90~100%				
		집행: 61~89%				
		집행: 60%이하				
	단위사업 별 사업 추진 현황 (3)	'06 단위사업계획대비 실적 90%~100%				
		'06 단위사업계획대비 실적 71%~89%				
		'06 단위사업계획대비 실적 70%이하				
	총사업비 중 자부담 정도 (3)	자부담 정도: 30~40%				
		자부담 정도: 11~29%				
		자부담 정도: 10% 이하				
	합계					

#### IV. 사업 성과 달성도

##### 1. 사업목표의 달성도

평가대상기간: '05.1~'06.12

평가항목

- 당초 사업 성과지표 달성도
- 농가 소득 증대 및 매출 기여도
  - 관련 기업 존재 여부
  - 관련 사업 매출 기여도
  - 일자리 창출
- 국고지원 중단에 대비한 사업단 자생능력 방안

##### <세부평가표>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등급별 점수		평가 결과
				존재	부존재	
사업목표 달성도 (15)	사업단 성과지표 달성도	우수				
		보통				
		미흡				
	농가 소득 증대 및 매출 기여도	우수				
		보통				
		미흡				
	국고 지원 중단에 대비한 사업단 자생능력 방안	우수				
		보통				
		미흡				
합계						



## 2. 해당 사업에 대한 파급효과

평가대상기간: '05.1~'06.12

평가항목

- 원재료의 생산기반 및 시설의 구축
  - 생산기반
  - 시설구축 여부
- 제품 개발을 위한 기반여건 조성
  - 연구 인프라 구축
  - 제품 개발연구 용역
  - 제품 개발 연구시설 여건
- 유통망 · 관광 및 서비스 창출 효과
  - 유통망 구축여부
  - 관광서비스 구축 여부

### <세부평가표>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등급별 점수		평가 결과
			존재	부존재	
파급 효과 (6)	원재료의 생산기반 및 시설의 구축 사항				
	제품 개발을 위한 기반 여건 조성	연구 인프라 구축			
		제품개발 연구 용역			
		제품 개발 연구시설 여건			
	유통망 · 관광 및 서비스 창출 효과	유통망 구축 실태			
		관광서비스 구축 실태			
합계					

## V. 기술(연구) 사업화

### 1. 기술의 수준 및 경쟁 우위도

□ 평가대상기간: '05.1~'06.12

□ 평가항목

- 기술에 대한 인증 여부
  - 핵심기술에 대한 인증
  - 인증된 핵심기술의 활용도
- 사업관련 기반 기술의 수준
  - 사업관련 기술의 독창성 및 차별성
  - 사업관련 개발 기술의 활용수준
- 농가 현장 애로 기술 개발 실적

#### <세부평가표>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등급별 점수		평가 결과
				존재	부존재	
경쟁 우위도 (5)	기술에 대한 인증 여부	핵심기술에 대한 인증				
		인증된 핵심기술의 활용도				
	사업관련 기반기술의 수준	사업관련 기술의 독창성 및 차별성				
		사업관련 개발 기술의 활용수준				
	농가 현장 애로기술 개발 실적					
합계						

## 2. 기술(연구)의 사업화

□ 평가대상기간: '05.1~'06.12

□ 평가항목

- 연구기술의 사업 활용
  - 클러스터 사업관련 연구과제 실적
  - 기술이전 연구개발 매출기여도
- 원자재 및 소재에 대한 연구 과제의 적합도
  - 원자재 및 소재 연구
  - 관련 산업과 기술 적용성
- 관련 산업과의 연구 인프라 구축 실태
  - 기술 연구기관과 협력 건
  - 기술의 연구 산업화 가능성

### <세부평가표>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등급별 점수		평가 결과
			존재	부존재	
기술의 사업화 (12)	○ 연구기술의 사업 활용 - 연구과제 실적 - 기술이전 연구개발 매출기여도	우수			
		보통			
		미흡			
	○ 원자재 및 소재에 대한 연구 과제의 적합도 - 원자재 및 소재 연구 - 관련 산업과 기술 적용성	우수			
		보통			
		미흡			
	○ 관련 산업과의 연구 인프라 구축 실태 - 기술 연구기관과 협력 - 기술 연구 산업화 가능성	우수			
		보통			
		미흡			
합계					

## VI. 사업단 공동 브랜드 관리

### 1. 브랜드 구성 요소

평가대상기간: '05.1~'06.12

평가항목

- 브랜드 네임의 가치
- 심벌마크(캐릭터)의 독창성 및 사업과의 연계성

<세부평가표>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등급별 점수		평가 결과
				존재	부존재	
브랜드 구성 (5)	○ 브랜드 네임 가치 ○ 심벌마크 (캐릭터)의 독창성 및 사업과의 연계성	우수				
		보통				
		미흡				
합계						

### 2. 브랜드의 시장성

평가대상기간: '05.1~'06.12

평가항목

- 브랜드 광보홍보 활동 상황
- 브랜드 유통조직 및 독립적 판매망 구축 상황

<세부평가표>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등급별 점수		평가 결과
				존재	부존재	
시장성 (5)	○ 브랜드 광보홍보 활동 상황 ○ 브랜드 유통조직 및 독립적 판매망 구축 상황	우수				
		보통				
		미흡				
합계						

### 3. 브랜드 사용지침 및 관리 실태

평가대상기간: '05.1~'06.12

평가항목

○ 브랜드의 사용지침

○ 브랜드의 관리실태

#### <세부평가표>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등급별 점수		평가 결과
		존재	부존재	
브랜드의 사용지침 및 관리실태(5)	우수			
	보통			
	미흡			
합계				

### VII. 기타항목

평가대상기간: '06.7~'06.12

평가항목

○ 우수사례 추진 실적

- TV, 신문 등 홍보매체를 통해 소개된 사례일 경우에만 해당  
(단순 홍보 차원은 제외)

\* 가산점 항목

#### <세부 평가표>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등급별 점수		평가 결과
		존재	부존재	
우수사례	TV			
	중앙일간지 소개			
	지방일간지, 전문지, 잡지 등			
합계				

○ 평가 자료 작성 충실도

- 기한 내 평가 자료의 제출 여부
- 각 평가 자료의 내용 기재에 대한 충실도 여부

\* 평가위원단 작성/가산점

<세부 평가표>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등급별 점수		평가 결과
			존재	부존재	
평가자료 작성 충실도	기한 내 평가 자료의 제출 여부				
	각 평가 자료의 내용 기재에 대한 충실도 여부				
합계					

- 클러스터 사업추진을 통해 생산된 제품일 경우 클러스터 사업단 명칭 사용('06.1 ~'06.12)

<세부 평가표>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등급별 점수		평가 결과
			존재	부존재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단 명칭 사용 여부					
합계					

- 해당사업 관련 기업유치 실적 ('06.1~'06.12)

<세부 평가표>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등급별 점수		평가 결과
			존재	부존재	
해당사업 관련 기업 유치 실적					
합계					

○ 농림사업시행지침, 지시사항 등 위반(건당 반영)

\* 감점항목

- 인건비 보조(4천만원) 한도 초과 집행 등 지침위반
- 외부기관의 지적사항
- 서면평가자료와 현지실사 점검자료 불일치

<세부 평가표>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등급별 점수		평가 결과
			존재	부존재	
지적 사항	인건비 보조(4천만원) 한도 초과 집행 등 지침				
	외부기관의 지적사항				
	서면평가자료와 현지실사 점검자료 불일치				
합계					

○ 평가관련 현지실사 또는 평가위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  
한 경우

\* 감점 항목

『예시 : 금품제공, 향응, 청탁(직·간접) 여부에 대하여 평가위원을 통해서 판단』

<세부 평가표>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등급별 점수		평가 결과
			존재	부존재	
부조리	평가관련 부조리가 3건 이상일 경우				
	평가관련 부조리가 2건 일 경우				
	평가관련 부조리가 1건 일 경우				
합계					

○ 서면평가자료와 프리젠테이션 자료와의 불일치

\* 감점 항목

<세부 평가표>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등급별 점수		평가 결과
			존재	부존재	
○서면평가자료와 프리젠테이션 자료와의 불일치					
합계					

## 시범사업단 최종평가 총평 결과 요약

### <안성마춤 클러스터>

<p>평가 내용 지표 항목</p>	<p>평가 결과 내용</p>														
<p>사업 총괄</p>	<table border="1"> <caption>사업총괄 평가 결과</caption> <thead> <tr> <th>항목</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사업추진역량</td> <td>53</td> </tr> <tr> <td>네트워킹 활성화</td> <td>56</td> </tr> <tr> <td>예산집행</td> <td>47</td> </tr> <tr> <td>성과달성도</td> <td>74</td> </tr> <tr> <td>기술사업화</td> <td>61</td> </tr> <tr> <td>브랜드</td> <td>90</td> </tr> </tbody> </table>	항목	점수	사업추진역량	53	네트워킹 활성화	56	예산집행	47	성과달성도	74	기술사업화	61	브랜드	90
항목	점수														
사업추진역량	53														
네트워킹 활성화	56														
예산집행	47														
성과달성도	74														
기술사업화	61														
브랜드	90														
<p>총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괄 책임자 교체와 실무자들의 인사이동으로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기본 목적 이해 부족 및 사업의 일관성에 한계</li> <li>○ 사업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클러스터 사업 목적에 부합성 여부를 재 점검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li> <li>○ 종합적으로 볼 때, 사업추진역량(53), 네트워킹 활성화(56), 예산집행관련(47), 성과 달성도(74), 기술(연구) 사업화(61), 공동 브랜드 관리(90)로 예산집행관련 및 사업추진역량에 대비한 현실적 고려가 필요함</li> </ul>														
<p>사업 추진 역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서에 대한 자체적 변경사항이 있으며,(자체변경-지자체 승인) 총괄책임자가 중간평가(2006년)전후로 바뀌었고, 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의 참여기관 변경</li> <li>○ 참여농가 조직화 정도를 보면 사업 설명회, 영농기술 등 교육, 작목반현황 등 법인 활동 상황, 참여농가DB구축-전산화-등 활용현황 등의 활동 사항은 많으나 대부분이 공공장소에서 ‘집회성’ 활동이 이루어짐</li> </ul>														



<p><b>네트워킹 활성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기관 네트워크 밀도 및 지원 체계 활용 실적을 볼 때 대학 교수 자문단 활용 실적은 있으나, 5개 사업영역 중 1개 영역임</li> <li>○ 워크샵, 포럼은 다수에 걸쳐 개최되었음</li> <li>○ 타 농림사업 연계정도를 볼 때 보조금/지원금 중심으로 5개 분야 연합 사업단이 추진하고 있으나, 농업이외의 산업적 측면의 네트워킹 및 농업 분야 이외의 타사업에 대한 연계정도는 미흡함</li> <li>○ 사업홍보 실적 (TV,일간지, 홍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큐멘터리 제작 및 TV방영 실적 있음, 일간지 홍보실적 있음</li> </ul> </li> </ul>
<p><b>예산 집행 관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장은 보조금 수령통장은 별도 관리, 지출 통장은 클러스터 사업 전용이 없음 (안성농협 연합 사업단 통장사용)</li> <li>○ 사업 예산 집행 실적이 부진한 편이고, 기반 조성 사업보다는 소모성 사업에 치중한 것으로 판단되며 행사성 경비 지출이 많음</li> </ul>
<p><b>성과 달성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표 대비 달성도는 미흡하다고 평가되며, 농가 소득(매출) 달성도 평가가 어려움</li> </ul>
<p><b>기술 (연구) 사업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농산물을 중심으로 배 같은 경우 배 비누 및 양갱 등 상품 개발을 하고 있으나, 나머지 농산물에 대한 기술 연구 사업화 및 고도화가 요구됨</li> </ul>
<p><b>공동 브랜드 관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창적인 사업단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음</li> <li>○ 이미지, 독창성 및 타사업과의 공동 활용 등을 볼 때 잘 되어 있으며 공동 브랜드를 통해 공동 유통 조직을 활용하고 있음</li> </ul>

## <포천전통한과마을 클러스터>

평가 내용  지표 항목	<h3 style="margin: 0;">평가 결과 내용</h3>												
<b>사업 총괄</b>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caption>사업총괄 지표 상세</caption> <thead> <tr> <th>지표항목</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사업추진역량</td> <td>89</td> </tr> <tr> <td>브랜드</td> <td>89</td> </tr> <tr> <td>기술사업화</td> <td>77</td> </tr> <tr> <td>성과달성도</td> <td>95</td> </tr> <tr> <td>예산집행</td> <td>76</td> </tr> </tbody> </table>	지표항목	점수	사업추진역량	89	브랜드	89	기술사업화	77	성과달성도	95	예산집행	76
지표항목	점수												
사업추진역량	89												
브랜드	89												
기술사업화	77												
성과달성도	95												
예산집행	76												
<b>총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과 박물관(체험 교육관)을 중심으로 명품 판매점 개설을 통해 유통-가공-관광의 연계산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보다 체계적인 1차,2차,3차 산업의 복합화 및 한과 중심의 클러스터 로드맵의 작성을 통하여 국제 시장 진입과 더불어 매출 증대를 기대 함</li> <li>○ 종합적으로 볼 때, 사업추진역량(89), 네트워킹 활성화(72), 예산집행관련(76), 성과 달성도(95), 기술(연구) 사업화(77), 공동 브랜드 관리(89)로 나왔으며 총괄 책임자를 비롯한 참여기업의 사업적 협력 체계가 잘 수립됨</li> </ul>												
<b>사업 추진 역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계획서, 총괄책임자, 사업 참여기관 등의 변경 사항이 없으며 사업목적에 맞는 설명회, 영농교육, 작목반 교육 등 사업 설명회가 활성화 되어 있음</li> <li>○ 계약재배를 통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 하여,계약재배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 하였고, 지속적인 계약재배 확대 예정</li> </ul>												
<b>네트워킹 활성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교수 및 연구소와의 기술력 향상과 다양한 제품 개발, 사업단의 취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통해 상호협력과 연계활동이 활발함</li> <li>○ 인근 허브단지, 식물원, 청정 호수, 인삼 재배 등과 연계한 '전략산업 육성'에 시너지 극대화 노력</li> <li>○ 일간지, tv 내고향 소식, 영자 신문( korea herald)등에 기사화 하여 '한과'를 알리려 노력함</li> </ul>												

<p><b>예산 집행 관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비 집행실적 및 관리적인 면에서 별도 회계장부, 통장, 법인카드, 세금계산서 등 규정대로 집행하고 있음</li> </ul>
<p><b>성과 달성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과 박물관 및 체험장, 명품 판매장, 교육장을 마련하여 생산-유통-관광 서비스를 잇는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li> </ul>
<p><b>기술 (연구) 사업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과의 품질 개선을 위하여, 원재료(참쌀, 꿀, 각종 두태)작목반에 대한 철저한 기술 지도가 이루어짐</li> <li>○ 특히, 대학과 연계한 기술 경쟁력 확보, 다양한 제품 개발(제품 포트폴리오)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li> <li>○ 기술 사업화면에서 국내 2대 명인 총괄책임자의 명인기술-장인정신을 사업단내 참여기업과 타 업체에 전수, 지도 함</li> </ul>
<p><b>공동 브랜드 관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랜드개발, 제품개발과 사업단 참여업체의 기 확보한 매출거래처의 연계를 통한 판매 구축을 통해 확고한 유통 조직망을 확보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브랜드 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li> </ul>

## <강원 한우 하이록 클러스터>

평가 내용 지표 항목	평가 결과 내용
사업 총괄	<p style="text-align: center;"> <b>사업추진역량 84</b>  <b>브랜드 90</b>  <b>기술사업화 79</b>  <b>성과달성도 88</b>  <b>네트워킹 활성화 72</b>  <b>예산집행 59</b> </p>
총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이록’ 강원한우 브랜드 가치가 점점 향상되고 있으며 시장성도 높다고 판단되지만 사업단의 자생능력 방안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이며 전략적 모색이 필요함</li> <li>○ 본 사업을 통해 지역축산 농가의 클러스터링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작목반을 통한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음</li> <li>○ 종합적으로 볼 때, 사업추진역량(84), 네트워킹 활성화(72), 예산집행관련(59), 성과 달성도(88), 기술(연구) 사업화(79), 공동 브랜드 관리(90)로 나타났음. 상대적으로 공동브랜드 개발이 높게 평가됨</li> </ul>
사업 추진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계획되었던 사업 항목 중 DNA체계 구축 사업이 축사환경을 통한 품질개선 사업항목에 통합되는 형식으로 지자체 및 농림부에 변경승인 요청 및 승인을 받아 변경 되었음</li> <li>○ 작목반 단위로 거세활동 및 초음파 등 한우의 생산기반 및 축사환경에 관계된 사업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우 종합관리 시스템이 농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각 농가를 중심으로 쇠고기 생산추적 이력제 및 PDA관리프로그램 등의 D/B 관리의 체계를 확립함</li> </ul>
네트워킹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학연관(참여기관)의 교류협력, 워크샵, 자문단(위원회) 활용 실적 등을 평가한 결과 대체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기술 연구 사업화활동 부분과 연관된 네트워킹이 다소 미약하다고 평가됨</li> </ul>

<p><b>예산 집행 관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비에 관한 집행확인은 주 단위로 단장의 직접적인 결재에 의해 이루어지며, 클러스터 별도 통장과 회계장부를 통해 관리·운영되고 있음</li> <li>○ 예산집행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조사료 관련부분에서 원인 행위 액 미집행 사업이 있음</li> </ul>
<p><b>성과 달성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표 성과 달성도는 ‘하이록의 날’과 ‘품질고급화 사업’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며, 특히 ‘품질고급화 사업’ 부분은 생산기반 위주의 사업과 연계하여 이루어 졌음</li> <li>○ 농가소득 면에서는 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계통 출하 두수, 경락 단가 등과 연관되어 소득향상이 이루어졌음</li> <li>○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기반 여건들은 많이 갖추어졌으나 자생능력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미흡한 실정이며, 보다 장기적인 방안이 필요함</li> </ul>
<p><b>기술 (연구) 사업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시모’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증, 강원도지사 농수산물 품질인증 및 푸른 강원 마크 등 본 사업과 관련한 기술력과 품질적인 면에서 기술인증이 우수함</li> <li>○ 김치 져산 발효를 이용한 쇠고기 육가공품(소시지) 개발과 관련해서 특허권을 획득하고 있음</li> </ul>
<p><b>공동 브랜드 관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벌마크가 사업과의 연계성이 높으며 판매처에 클러스터 사업단의 명칭을 사용함</li> <li>○ 브랜드 광고 활동이 잘 되고 있으며, 홍보물 제작 및 TV, 신문광고 등 실적이 우수함</li> <li>○ 강원한우만의 브랜드 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li> </ul>

## <백두대간 농업포럼 클러스터>

평가 내용  지표 항목	<h3 style="margin: 0;">평가 결과 내용</h3>														
<b>사업 총괄</b>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caption>사업총괄 평가 결과</caption> <thead> <tr> <th>항목</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사업추진역량</td> <td>58</td> </tr> <tr> <td>네트워킹 활성화</td> <td>75</td> </tr> <tr> <td>예산집행</td> <td>65</td> </tr> <tr> <td>성과달성도</td> <td>85</td> </tr> <tr> <td>기술사업화</td> <td>64</td> </tr> <tr> <td>브랜드</td> <td>72</td> </tr> </tbody> </table>	항목	점수	사업추진역량	58	네트워킹 활성화	75	예산집행	65	성과달성도	85	기술사업화	64	브랜드	72
항목	점수														
사업추진역량	58														
네트워킹 활성화	75														
예산집행	65														
성과달성도	85														
기술사업화	64														
브랜드	72														
<b>총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러스터 사업단의 주작물이 없이 너무 다양하므로 품목 특화가 필요하며, 다품종 소량 생산을 위한 클러스터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다만, 전두부 공장을 주축으로 백두대간 사업방향을 정하여 국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추진하면 자생력이 있을 것으로 보임</li> <li>○ 종합적으로 볼 때, 사업추진역량(58), 네트워킹 활성화(75), 예산집행관련(65), 성과 달성도(85), 기술(연구) 사업화(64), 공동 브랜드 관리(72)로 나타났음. 상대적으로 사업 추진 역량과 기술 사업화 부분의 체계적 보완이 요구됨. 즉, 사업추진 역량에서는 농업 관계자 이외의 전문가의 보강과 기술(연구)의 체계적 지원이 요구됨</li> </ul>														
<b>사업 추진 역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계획되었던 사업 항목 중 ‘품질관리센터 공조시설(다트)’ 부분을 자체, 농림부에 변경승인 요청 및 승인을 받아 변경하고 그 항목에 대해서는 자부담 처리하였음(기계투자비로 대체 : 감자탈피관련기계). 또한 총괄책임자(사업단장) 부분에서 백두대간농업포럼에서 백두대간클러스터 사업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 있음</li> <li>○ 사업설명회, 영농기술 등 농업인 교육과 농가 활동이 품목별로 작목반 단위로 활동·운영되고 있으며, 농협별로 전체적인 전산관리가 되어 있으며, 축산부분에서는 이력제를 실시하고 있음</li> </ul>														
<b>네트워킹 활성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학연관의 연관성과 협력성이 미흡한 실정이며, 사업단 자체적인 운영의 비율이 큰 실정임. 향후 사업단과 관련하여 마케팅 부분(교육, 마케팅 전략 수립 등)에 집중적으로 보완이 요구됨</li> </ul>														

<p><b>예산 집행 관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비에 관한 집행은 사업비 별도 계정 및 국고통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각 사업별로 공동사업법인 지출 규정에 의해 결제 후 집행되고 있음</li> <li>○ 예산 집행 부분에 있어서 한약가공공장 등이 이월사업으로 미집행 원인행위 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자부담 정도가 높은 편임</li> </ul>
<p><b>성과 달성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이 연초 백두대간농업포럼에서 백두대간 공동 사업 법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계획부분에 착오가 있어 전체적인 달성도 부분이 미약하며, 특히 ‘공동사업법인 연합마케팅 활성화’ 부분이 미약함</li> <li>○ 콩 원품을 대기업에 납품함으로써 콩재배 농가에 소득증대 하였으며, 그 밖에 오이, 감자 등이 신선편의 식품으로 납품되어 매출에 기여하고 있음</li> <li>○ 전두부 공장을 건설함으로써 매출증대로 자생방안을 계획하고 있지만, 경쟁력부분과 유통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산업화 방안이 요구됨</li> </ul>
<p><b>기술 (연구) 사업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두부 관련하여 제조 기술에 대해 특허권을 신청·진행 중이나 전체적인 기술부분에 대해 미흡하다고 평가됨</li> </ul>
<p><b>공동 브랜드 관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벌마크에 대한 독창성이 다소 떨어지나 홍보 등에 주력한다면 브랜드네임 가치는 있다고 판단됨</li> <li>○ 자체 유인물을 통해 브랜드를 홍보하고 있지만, 지역적인 홍보 위주임.</li> <li>○ 브랜드는 사용지침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li> </ul>

## <영동포도 클러스터>

평가 내용 지표 항목	평가 결과 내용
사업 총괄	<p style="text-align: center;">사업추진역량 91</p> <p style="text-align: center;">브랜드 83</p> <p style="text-align: center;">기술사업화 94</p> <p style="text-align: center;">성과달성도 94</p> <p style="text-align: center;">네트워킹 활성화 90</p> <p style="text-align: center;">예산집행 94</p>
총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동 포도의 경우 대학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포도의 고급화 및 가공 기반의 조성을 통하여, 포도 집산지에서 포도 산업 중심 메카로의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음</li> <li>○ 종합적으로 볼 때, 사업추진역량(91), 네트워킹 활성화(90), 예산집행관련(94), 성과달성도(94), 기술(연구) 사업화(94), 공동 브랜드 관리(83)로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음</li> <li>○ 특히, 지역 농업 클러스터의 선도 모델로써, 2차 가공 및 농기업 경영체의 체계적 육성 체계의 보완과 산업화 증장기 발전 전략 수립으로 종합적인 지원 모델이 될 수 있음</li> </ul>
사업 추진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과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 변동사항은 없음</li> <li>○ 참여농가 D/B 구축이 되어있고, 관리는 상시적으로 읍면에서 하고 총괄관리는 군청에서 함</li> </ul>
네트워킹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학연관(참여기관)의 교류협력, 워크샵, 자문단(위원회) 활용 등이 대체로 잘 운영되고 있음</li> <li>○ 핵심기반조성 및 포도가공, 벤처 plant 활용을 통하여 포도연구회, 농업기술센터, 포도시험장 및 포도특화사업단은 농가에서 고품질의 포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품종개량, 현장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음</li> </ul>
예산 집행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 회계 장부 관리를 통해 투명하고 적정하게 예산이 관리되고 있음</li> <li>○ 다만, 영동포도 클러스터 사업단은 사업성격상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영리/기타단체로 등록됨</li> </ul>



<p><b>성과 달성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 소득 증대 및 매출 기여도는 우수하다고 평가됨</li> <li>○ 국고 지원 중단 시 자생능력방안은 ‘영동포도유통(주)농업회사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을 개시하여 농가소득증대라는 목표를 할 것이며, 이 법인에 현재 클러스터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이 거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단의 업무의 지속성 확보 가능 함</li> </ul>
<p><b>기술 (연구) 사업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도가공품의 다양화를 위하여 영동대학교와 가공업체에서는 포도즙, 포도잼, 포도주 이외에 건강을 지향하는 지속적인 제품개발을 추진 중임.</li> <li>○ 클러스터 사업비로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것은 없음.</li> <li>○ 다만 연구관련 참여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연구 결과를 사용료 없이 이용하고 있음</li> <li>○ 특히, 영동 포도는 기술(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 지적 재산권의 권리 확보(영동 대학교 소유 등) 및 사업화 관리 지침이 없음</li> </ul>
<p><b>공동 브랜드 관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y vill 이라는 브랜드가 있으나 영동포도만을 위한 브랜드가 아니라 영동 농산물 공동 브랜드로 브랜드 확장 중임</li> <li>○ 브랜드 광고 홍보 활동 상황과 브랜드 유통조직 및 독립적 판매망 구축 상황은 비교적 잘되어 있다고 평가됨</li> </ul>

## <괴산친환경청정고추 클러스터>

평가 내용 지표 항목	평가 결과 내용
사업 총괄	<p style="text-align: center;"> <b>사업추진역량</b> 62  <b>브랜드</b> 71  <b>기술사업화</b> 79  <b>성과달성도</b> 71  <b>예산집행</b> 47  <b>네트워킹 활성화</b> 64         </p>
총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괴산 고추를 중심으로 기반 조성을 하고, 관광(3차 산업)과 연계된 사업 파급 효과를 기대하나 2차 가공 기반의 조성을 통한 균형 잡힌 지역 발전 전략을 구축한다면 산업적 복합화가 가능함</li> <li>○ 종합적으로 볼 때, 사업추진역량(62), 네트워킹 활성화(64), 예산집행관련(47), 성과달성도(71), 기술(연구) 사업화(79), 공동 브랜드 관리(71)로 평가되었으며, 사업 추진 역량, 예산 집행 및 네트워크 부분에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필요로함</li> </ul>
사업 추진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은 1회 변경되었고, 사업단장은 변경사항 없음</li> <li>○ 작목반 단위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D/B구축은 미흡</li> </ul>
네트워킹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학연관(참여기관)의 교류협력, 워크샵, 자문단(위원회) 활용 실적 등은 미흡하다고 평가됨 다만, 최근에 가공 업체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한 생산 기반을 조성중임</li> </ul>
예산 집행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건비 집행에 있어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별도 회계 관리를 통해 적절하고 투명하게 예산이 관리되고 있음</li> </ul>
성과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고지원 중단 시 자생능력방안은 2차 가공 기반 조성 및 발효단지 조성을 연계하고, 사업단의 운영 수익금(유통 마진 등)을 확보하여 사업단에 재 투자를 통해 클러스터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 수립 중</li> </ul>
기술 (연구) 사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기술의 사업 활용성은 높다고 평가되며, 임걱정 고추 등 괴산특화고추를 개발 및 사업화를 진행 중임</li> </ul>
공동 브랜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걱정이라는 지역 공동브랜드를 사업단이 사용하고 있으며, 괴산군 농특산물의 판매에 활용하고 있음</li> <li>○ 브랜드 광고 홍보 활동상황은 괴산청결고추축제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음</li> </ul>

# <아산 자원순환형친환경농업 클러스터>

평가 내용 지표 항목	평가 결과 내용
사업 총괄	<p>The radar chart displays the following scores for '사업총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추진역량: 73</li> <li>브랜드: 69</li> <li>기술사업화: 57</li> <li>성과달성도: 71</li> <li>네트워킹 활성화: 59</li> <li>예산집행: 65</li> </ul>
총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적으로 볼 때, 사업추진역량(73), 네트워킹 활성화(59), 예산집행관련(65), 성과달성도(71), 기술(연구) 사업화(57), 공동 브랜드 관리(69)로 분석되었으며 네트워킹 활성화, 예산집행관련, 기술(연구)사업화, 공동브랜드 관리에 대한 육성방안이 요구됨</li> <li>○ (사)아산친환경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단은 『한살림』과의 제휴 및 학교급식을 통한 안정적 수익 기반을 확보함 따라서, 국고 지원 중단 시 사업단 자생능력은 확보됨 한편, 올팜 이라는 심벌마크를 개발, 완료되었으며 관련 조례 제정중임</li> </ul>
사업 추진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은 1차는 교육 사업 위주로 변경 되었으며, 2차는 유기양계를 유기한우시설로 변경, 3차는 사업비 지출의 투명성 확보 및 불용방지위해 생산자관리 시스템으로 변경되었음</li> <li>○ 총괄책임자와 참여기관 변경사항 없음</li> <li>○ 농업인 교육 실적과 작목반 현황 및 법인구성 여부는 잘 되 있고 참여농가 D/B구축 완료 및 활용이 되고 있음</li> </ul>
네트워킹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학연관(참여기관)의 교류협력, 워크샵, 자문단(위원회) 활용 실적 등을 평가한 결과 보완 사항이 발견되었고, 사업홍보실적은 미흡하다고 평가됨</li> </ul>
예산 집행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과 관련하여 별도 통장이 구비되어 있으나 독립적인 회계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 있지는 않음. 회계 전문 인력은 푸른들영농조합법인회계팀이 도와주고 있어서 종합적 관리가 미흡하다고 평가됨</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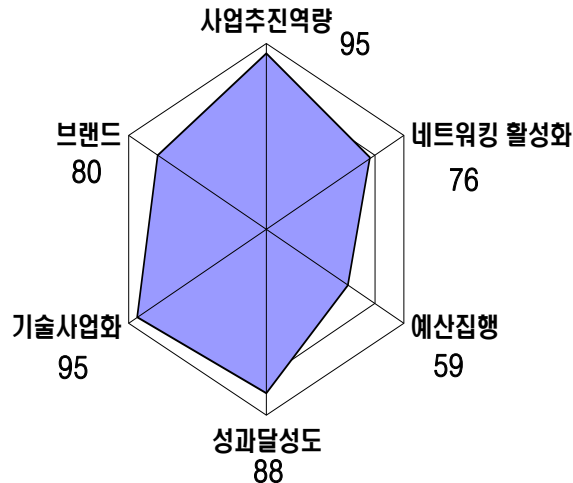
<p><b>성과 달성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성과지표 달성도와 농가소득 증대 및 매출 기여도는 비교적 우수하다고 평가됨</li> <li>○ 국고 지원 중단 시 사업단 자생능력방안은 (사)아산친환경지역농업클러스터 운영과 한살림, 학교급식을 통한 운영이 가능함</li> </ul>
<p><b>기술 (연구) 사업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기술에 대해 ISO, HACCAP 인증을 받았으나 사업관련 기반기술의 수준은 낮음</li> </ul>
<p><b>공동 브랜드 관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팜이라는 심벌마크는 완료되었으나 공동브랜드는 아직 조례과정중임</li> <li>○ 브랜드 광고 및 홍보 활동상황은 미흡하며 브랜드 유통은 학교급식으로 납품되고 있음</li> </ul>

## <서천 한산 모시 클러스터>

평가 내용 지표 항목	평가 결과 내용												
사업 총괄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caption>사업총괄 지표 상세</caption> <thead> <tr> <th>지표</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브랜드</td> <td>85</td> </tr> <tr> <td>사업추진역량</td> <td>76</td> </tr> <tr> <td>네트워킹 활성화</td> <td>70</td> </tr> <tr> <td>예산집행</td> <td>47</td> </tr> <tr> <td>성과달성도</td> <td>72</td> </tr> </tbody> </table>	지표	점수	브랜드	85	사업추진역량	76	네트워킹 활성화	70	예산집행	47	성과달성도	72
지표	점수												
브랜드	85												
사업추진역량	76												
네트워킹 활성화	70												
예산집행	47												
성과달성도	72												
총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적으로 볼 때, 사업추진역량(76), 네트워킹 활성화(70), 예산집행관련(47), 성과달성도(72), 기술(연구) 사업화(71), 공동 브랜드 관리(85)로 사업추진역량 및 네트워킹 활성화에 대한 혁신적 대안이 요구됨</li> <li>○ 국고지원 중단에 대비한 사업단 자생능력방안에 대한 현실적 자구책이 필요한 실정임</li> </ul>												
사업 추진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산모시는 서천군의 지역브랜드로 전통의류의 착용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건직물연구원에 방적기술 개발과 2004년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을 통한 방적사 개발 및 시제품을 생산을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시장 반응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기존의 방적사를 보완하여 시장경쟁력과 상품성이 있는 방적사를 개발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음</li> <li>○ 한산모시가 그동안 중국모시로 둔갑 판매되어 오는 것에 대응하여 한산모시임을 입증하기 위한 생산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리적 표시제와 연계하여 중국모시와는 품질면에서 차별화, 명품화 기반을 확보하였음</li> </ul>												
네트워킹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학연관(참여기관)의 교류협력, 워크샵, 자문단(위원회) 활용 실적 등을 평가한 결과 특별히 주목할 만한 우수점은 없다고 평가됨</li> </ul>												
예산 집행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건비 집행에 있어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별도 회계 관리를 통해 적절하고 투명하게 예산이 관리되고 있음</li> </ul>												

<p><b>성과 달성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표 대비 달성도는 비교적 우수하다고 평가되며, 자생적인 방안에서 확실한 계획이 되어있지 않는 면이 성과 달성도를 저하 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됨</li> <li>○ 실질적 자생능력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관광 및 서비스는 부가가치 수입이나 자생적 측면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됨</li> </ul>
<p><b>기술 (연구) 사업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기술 인증과 사업화 부분은 미미하며, 모시를 이용한 먹는 모시와 입는 모시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원광대학교와 연계하여 추진 중이지만 전반적으로 기술사업화 측면은 현저히 저조하다고 평가됨</li> </ul>
<p><b>공동 브랜드 관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농업클러스터와 연계된 “한산모시”라는 브랜드 네이밍을 유지하며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것’ 이라는 브랜드 컨셉을 세움. 서천군과 한산모시 조합간 브랜드 디자인에 대한 무상사용을 하고 있음</li> <li>○ 별도의 브랜드 사용 지침 및 시각화 매뉴얼에 따른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li> </ul>

## <장수 Mt. Apple Power 클러스터>

평가 내용 지표 항목	평가 결과 내용
사업 총괄	 <p>The radar chart displays six metrics with the following scores: 사업추진역량 (95), 네트워킹 활성화 (76), 예산집행 (59), 성과달성도 (88), 기술사업화 (95), and 브랜드 (80). The chart is a six-pointed star with a blue shaded area representing the current performance level.</p>
총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적으로 볼 때, 사업추진역량(95), 네트워킹 활성화(76), 예산집행관련(59), 성과달성도(88), 기술(연구) 사업화(95), 공동 브랜드 관리(80)로 사업추진역량 및 전반적으로 클러스터를 균형있게 이끌러 가는 시스템 이었으며, 체계적인 2차 산업 연계가 요구됨</li> <li>○ 국고지원 중단에 대비한 사업단 자생능력방안은 1차 생산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므로 중단 시 확실한 매출은 있지만, 가공공장 체계화를 보다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음</li> </ul>
사업 추진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역별 품질관리지도사제도 운영으로 품질관리 체계구축과 농업회사법인 유치로 유통 마케팅 체계구축을 하였으며, 체험관광산업 기반으로 전반적으로 클러스터를 효율적으로 적용한 사례임</li> <li>○ 사업계획,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변경 분야는 해당 사항은 없음.</li> <li>○ 시기별 맞춤교육과 컨설팅을 통하여 농가의 현장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지역농업과 장수군 농업정책에 대한 교육과 현장견학을 통하여 행정-생산자단체-농가 간의 협력 산업화를 위한 기반조성 하였음</li> </ul>
네트워킹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학연관(참여기관)의 교류협력, 워크샵, 자문단(위원회) 활용 실적 등을 평가 한 결과 S-APC, 가공 공장, 자문단(위원회), 지원체계 활용, 워크샵,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됨</li> </ul>
예산 집행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 회계 관리를 통해 적절하고 투명하게 예산이 관리되고 있음</li> <li>○ 다만, 집행을 부분에서 몇몇 집행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있음</li> </ul>

<p><b>성과 달성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표 대비 달성도는 비교적 우수하다고 평가되며, 직접적인 농가 소득 매출 기여도인 사과재배의 면적 및 생산기술을 체계화 하였으며, 매출 폭이 크게 상승 하였음</li> <li>○ 실질적 자생능력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관련하여 농가 품질관리 및 D/B시스템까지 구축된 상태임</li> </ul>
<p><b>기술 (연구) 사업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된 핵심 기술(특허 및 실용신안)이용수준이 높으며, 기술에 대한 인증 실태 및 인증 건수 역시 높은 수준이며 관련 사업기반기술(가공 상품이용 및 재배기술) 수준이 상당히 우위에 있음</li> </ul>
<p><b>공동 브랜드 관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드림이라는 사업단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포장마다 산드림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여 광역브랜드를 추구하고 있음</li> <li>○ S-APC(농업회사법인 CI) : 기존의 APC와의 차별화에 주안점을 두고(Special)의 이니셜을 강조한 로고타입으로 소비자들에게 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현함</li> </ul>



## <정읍 돌고도는 환원순환 농업 클러스터>

평가 내용  지표 항목	평가 결과 내용
사업 총괄	<p style="text-align: center;">사업추진역량 79</p> <p style="text-align: center;">브랜드 80</p> <p style="text-align: center;">기술사업화 87</p> <p style="text-align: center;">성과달성도 96</p> <p style="text-align: center;">예산집행 94</p> <p style="text-align: center;">네트워킹 활성화 94</p>
총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적으로 볼 때, 사업추진역량(79), 네트워킹 활성화(94), 예산집행관련(94), 성과 달성도(96), 기술(연구) 사업화(87), 공동 브랜드 관리(80)로 분석할 때 사업추진역량 및 브랜드에 관계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요구됨</li> <li>○ 또한 국고지원 중단에 대비한 사업단 자생능력방안에 대한 2차 가공분야의 모색이 필요함</li> </ul>
사업 추진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원순환농업클러스터 사업단에서는 2006, 2007년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안)을 의결하여 농림부에 승인 요청 실시</li> <li>○ 2007년 사업비 중 국비가 180백만원 감소됨에 따라 보조금을 일부 조정하여 최종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음</li> </ul>
네트워킹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학연관(참여기관)의 교류협력, 워크샵, 자문단(위원회) 활용 실적 등을 평가한 결과 아주 높은 자문위원 활용도를 보여주고 있음</li> </ul>
예산 집행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건비 집행에 있어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별도 회계 관리를 통해 적절하고 투명하게 예산이 관리되고 있음</li> <li>○ 수익금의 대부분이 쌀과 한우로써 높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음</li> </ul>
성과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표 대비 달성도는 비교적 우수하다고 평가되며, “단풍미인” 쌀과 한우를 이용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직접적 기여가 있다고 평가</li> <li>○ 실질적 자생능력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환원 순환 농업이라는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li> </ul>

<p><b>기술 (연구) 사업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AP 인증농가, 20개 작목반 713ha 430농가, 정읍시 농산물유통주식회사 서울 RPC, 통합RPC, 생지황의 활용도 증진 연구 복분자 관련 특허출원 인증에 대한 기술력 인증도 우수함</li> </ul>
<p><b>공동 브랜드 관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창적인 사업단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단풍미인" 이라는 브랜드를 이용하고 있으며, 높은 브랜드 홍보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임.</li> <li>○ 브랜드 광고·홍보 활동도 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시장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될 뿐만 아니라 별도의 브랜드 사용 지침 및 시각화 매뉴얼에 따른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li> </ul>

## <임실 낙농 (치즈) 클러스터>

평가 내용 지표 항목	<h3 style="margin: 0;">평가 결과 내용</h3>														
<b>사업 총괄</b>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caption>사업총괄 평가 결과</caption> <thead> <tr> <th>항목</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사업추진역량</td> <td>49</td> </tr> <tr> <td>브랜드</td> <td>64</td> </tr> <tr> <td>기술사업화</td> <td>57</td> </tr> <tr> <td>성과달성도</td> <td>66</td> </tr> <tr> <td>네트워킹 활성화</td> <td>61</td> </tr> <tr> <td>예산집행</td> <td>29</td> </tr> </tbody> </table>	항목	점수	사업추진역량	49	브랜드	64	기술사업화	57	성과달성도	66	네트워킹 활성화	61	예산집행	29
항목	점수														
사업추진역량	49														
브랜드	64														
기술사업화	57														
성과달성도	66														
네트워킹 활성화	61														
예산집행	29														
<b>총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적으로 볼 때, 사업추진역량(49), 네트워킹 활성화(61), 예산집행관련(29), 성과 달성도(66), 기술(연구) 사업화(57), 공동 브랜드 관리(64)로 전반적인 사업 활성화에 대한 혁신적 대안이 요구됨</li> <li>○ 국고지원 중단에 대비한 사업단 자생능력방안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모색 됐으나, 전반적인 기반 사업적인 면이 높아서 사업에 대한 활력이 떨어짐</li> </ul>														
<b>사업 추진 역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체계 구축 (사업단 및 자문위원 운영, 교육·토론·워크숍, 유가공 기술연수, 유가공 해외연수, 옥외광고탑,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및 첨단 유가공협동생산시설과 생산기반조성(첨단유가공협동생산시설)이 변경됨</li> <li>○ 축산농가의 생산 이력제 시스템을 구축 상품의 품질 및 농가 D/B 관리의 체계화를 계획 중이며, 작목반 단위의 교육이 실시되며, 국내 제일의 치즈가공 사업 실현화를 위해 노력중</li> </ul>														
<b>네트워킹 활성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학연관(참여기관)의 교류협력, 워크숍, 자문단(위원회) 활용 실적 등을 평가한 결과 형식적 네트워킹 활동에 그쳤다고 평가됨</li> </ul>														
<b>예산 집행 관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건비 집행에 있어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별도 회계 관리를 통해 적절하고 투명하게 예산이 관리되고 있음</li> <li>○ 다만, 사업자금의 대부분이 임실치즈의 기반조성에 쓰이고 있는 실정으로 관련사업의 네트워크 및 기술사업 연구의 자금이 보다 더 충족되어야함</li> </ul>														

<p>성과 달성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표 대비 달성도는 전반적인 사업 자금이 기반조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성과도 면에서는 매우 낮음</li> <li>○ 실질적 자생능력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만, 연계 수입이 타사업의 중복성으로 인한 것이며, 관광 및 서비스 창출 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매출 개선이 필요함</li> </ul>
<p>기술 (연구) 사업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반적인 기술연구 사업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진행이 보여지지 않고 있음</li> </ul>
<p>공동 브랜드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실치즈“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치즈마을”이라는 혁신적인 치즈관리 체계를 계획하고 있지만 아직 전반적인 구현 단계임</li> <li>○ 브랜드 광고·홍보 활동도 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반적인 사업이 타연계 사업의 결실이 많이 반영됨</li> </ul>

## <보성 녹차 클러스터>

평가 내용 지표 항목	평가 결과 내용
사업 총괄	<p style="text-align: center;">사업추진역량 88 브랜드 87 기술사업화 51 성과달성도 72 예산집행 53 네트워킹 활성화 85</p>
총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적으로 볼 때, 사업추진역량(88), 네트워킹 활성화(85), 예산집행관련(53), 성과 달성도(72), 기술(연구) 사업화(51), 공동 브랜드 관리(87)로 예산집행 관련의 집행 실적에 대한 재고와 기술(연구) 사업화에 대하여 목표시장을 확실히 두고 사업 방향의 집중화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li> </ul>
사업 추진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변경이 없어 사업추진의 일관성이 유지됨</li> <li>○ 사업 설명회와 농업인 교육이 6회 이루어 졌으며 작목반 활동은 생산자 협의회, 보성녹차연합회, 유기농보성녹차연합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참여농가 D/B 구축은 되어있으며 활용도는 보통임</li> </ul>
네트워킹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학연관(참여기관)의 교류협력, 워크숍, 자문단(위원회) 활용 실적이 존재하지만 특이사항은 없으며 타 농림 사업(지역특화사업, 신활력사업, 보성녹차특성화사업 등)과의 연계로 예산절감효과를 얻고 있음. TV,홍보물, 전시 박람회 등 사업 홍보 실적은 우수하게 나타남</li> </ul>
예산 집행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관리 프로그램운영으로 투명성, 효율성 제고</li> <li>○ 다만, 예산집행 실적율이 낮고 수익금의 관리부분에서 타사업과 중복하여 사용하여 적정성이 떨어짐</li> </ul>
성과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표 대비 달성도는 녹차 생엽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농가수가 늘어나고 재배 면적이 증가하여 전체적인 수익은 늘어남</li> <li>○ 현재 녹차관련 3개의 생산자 단체 내에 자조금을 형성하고 있지만 국고 지원 중단 시 생산자 조직이 통합되도록 유도는 등 구체적인 자생방안이 요구됨</li> </ul>

<p><b>기술 (연구) 사업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기술에 대한 인증과 사업관련 기술의 차별성 및 독창성이 부족하고, 관련사업과의 연구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여 기술연구 사업화의 방향설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형성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li> </ul>
<p><b>공동 브랜드 관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리적 표시 1호인 보성녹차만의 함축적 의미, 가치를 가지며 브랜드 광고·홍보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시장성이 우수</li> <li>○ 우전, 곡우, 세작으로 검인지를 부착하여 생산관리하고 있으나 차 생산업체마다 품질의 차이가 있으므로 객관적인 기준 및 브랜드 사용 지침 매뉴얼에 따른 관리가 요구됨.</li> </ul>

## <합평 과학농업클러스터>

평가 내용 지표 항목	<h3 style="margin: 0;">평가 결과 내용</h3>
<b>사업 총괄</b>	<p style="text-align: center;"> <b>사업추진역량</b> 55  <b>브랜드</b> 63  <b>기술사업화</b> 62  <b>성과달성도</b> 70  <b>예산집행</b> 65  <b>네트워킹 활성화</b> 56                 </p>
<b>총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적으로 볼 때, 사업추진역량(55), 네트워킹 활성화(56), 예산집행관련(65), 성과 달성도(70), 기술(연구) 사업화(62), 공동 브랜드 관리(63)를 측면을 볼 때, 참여업체의 변경에 따른 사업 방향성의 상실로 행정에서 사업단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한계를 보임.</li> <li>○ 사업 추진 역량과 네트워킹 부분의 보강이 체계적으로 요구됨</li> </ul>
<b>사업 추진 역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 총괄책임자의 변경은 없으나 4개 참여기관 중 2개 업체의 인수 및 합병으로 사업의 재 정립을 시도함</li> <li>○ 참여농가의 농업인 교육실적, 작목반 활동은 이루어 졌으나 실질적 실적은 미흡하며 참여농가 D/B 시스템 구축이 마련되지 않음</li> </ul>
<b>네트워킹 활성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학연관(참여기관)의 활용체계 미흡하며 실질적 교류 부존, 교육 및 세미나는도 주관하 1회의 실적만 이루어 졌으며, 자문위원단의 7월 이후 실적 없음</li> </ul>
<b>예산 집행 관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운영으로 투명성, 적정성 확보</li> <li>○ 예산의 대부분이 기업의 건축, 시설, 용역비(실질적 활용성 부존)에 쓰여 지고 있음</li> </ul>

<p><b>성과 달성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단 성과지표의 불투명으로 달성도 파악이 난해하며 복분자와 버섯 참여 업체의 매출은 늘었음</li> <li>○ 사업단 자체 수익사업이 없는 관계로 자생능력 부족</li> <li>○ 생산기반 시설구축과 연구용역이 많으나 연구용역에 대한 실질적 과급 및 기대 효과는 미흡</li> </ul>
<p><b>기술 (연구) 사업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에 대한 인 증은 부족하나 버섯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존재</li> <li>○ 연구 인프라가 기술개발에 필요한 용역을 통해 계약체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자체적 교류협력관계 요구됨</li> </ul>
<p><b>공동 브랜드 관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단 자체 브랜드 부존재</li> <li>○ 브랜드, 광고, 홍보활동은 각 기업 자체적 홍보에 그쳐 본사업과의 홍보 부족함</li> </ul>



## <전남 친환경쌀클러스터>

평가 내용 지표 항목	평가 결과 내용
사업 총괄	<p style="text-align: center;"> <b>사업추진역량</b> 83  <b>브랜드</b> 92  <b>기술사업화</b> 90  <b>성과달성도</b> 84  <b>예산집행</b> 82  <b>네트워킹 활성화</b> 84         </p>
총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적으로 볼 때, 사업추진역량(83), 네트워킹 활성화(84), 예산집행관련(82), 성과 달성도(84), 기술(연구) 사업화(90), 공동 브랜드 관리(92)로 평가되었고, 클러스터 사업모델의 완성 수준에 미치지지는 못하나 신규 시장 개척을 통해 발전 가능성이 보임</li> </ul>
사업 추진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변경이 없어 사업추진의 일관성이 유지됨</li> <li>○ 사업 설명회와 농업인 교육이 6회 이루어 졌으며 작목반, 농업법인 활동이 06년 하반기에 꾸준히 이루어 졌음. 참여농가 D/B 구축은 되어있으며 실제적 활용성은 떨어짐</li> </ul>
네트워킹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학연관(참여기관)의 인프라 연계가 이루어지며 워크숍, 세미나, 자문단의 활용 실적 존재, 자문단의 연구사업 결과물 활용(매뉴얼 제작)을 하고 있음</li> </ul>
예산 집행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의 장부 회계 관리로 집행 관리가 적정함</li> <li>○ 예산집행실적은 05년 후반기에 사업단이 활성화되고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06년에 이월되어 집행되어 예산집행율과 자부담 정도는 높지 않은 편임</li> </ul>
성과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수매가보다 만오천원 고가매입, 키팜농법의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li> <li>○ 국고 지원 중단 시 자생방안으로 백미 판매와 친환경자재 생산물 판매액의 일부를 자조금으로 조성하는 노력이 보이니 좀 더 적극적인 방안 요구됨</li> </ul>

<p>기술 (연구) 사업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렁이, 쌀겨, 키틴 농법으로 농법통일과 품종통일을 하여 농가 현장애로 기술개발 실적이 있으며 연구논문을 통한 기술을 사업에 활용하여 매출에 기여(우렁이 농법, 제초 방제)</li> </ul>
<p>공동 브랜드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브랜드인 자연이 숨쉬는 쌀은 자연을 담은 의미 내포, 심벌마크, 슬로건 의미 부여하여 독창성 존재함</li> <li>○ 브랜드의 광고, 홍보 활동에 노력(수도권지역 공략, 여성 소비자 공략 마케팅)</li> <li>○ 브랜드의 관리, 실패는 상품의 규격 차별화(소포장)하고 도정한 쌀만을 공동 브랜드 사용, 쌀의 2등급화하고 있음</li> <li>○ 생산제품 포장에 클러스터 사업의 정책방향 등을 표시하여 홍보에 활용하고 있음</li> </ul>

## <경북한우 클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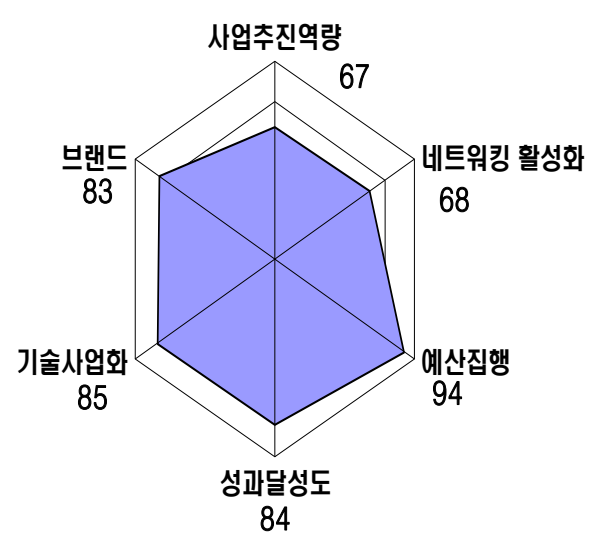
평가 내용 지표 항목	평가 결과 내용
사업 총괄	<p style="text-align: center;">사업추진역량 84 네트워킹 활성화 82 예산집행 88 성과달성도 76 브랜드 80 기술사업화 89</p>
총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적으로 볼 때, 사업추진역량(84), 네트워킹 활성화(82), 예산집행관련(88), 성과달성도(76), 기술(연구) 사업화(89), 공동 브랜드 관리(80)로 평가가 되었음</li> <li>○ 다만, 성과달성도 부분에서 촌품 한우가 07년 5월 출시로 인해 구체적인 매출 발생이 없음</li> </ul>
사업 추진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과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 변동사항은 없음</li> <li>○ 작목반 단위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참여농가의 전 두수에 대해 생산이력을 전산화 하고 D/B구축 완료</li> </ul>
네트워킹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학연관(참여기관)의 교류협력, 워크샵, 자문단(위원회) 활용 등이 대체로 잘 운영되고 있음</li> <li>○ 경북한우는 생산이력추적시스템을 경북지역 광역 네트워크(브랜드)로 구축할 예정임</li> </ul>
예산 집행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 회계 관리를 통해 적절하고 투명하게 예산이 관리되고 있음</li> </ul>
성과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단 성과 지표 달성도는 우수하다고 평가되나 촌품한우 매출은 07년 5월 출시로 발생 예정임</li> <li>○ 국고지원 중단 시 자생력 방안은 사업단 법인 설립하여 이윤추구 극대화과 수익사업 다각화 전략을 수립함</li> </ul>

<p>기술 (연구) 사업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에 대한 인증은 사업단 법인화후 특허 출원 예정이고 기술이전 및 연구기술을 활용한 매출 기여도는 07년5월 출시로 직접적인 기여도는 아직 없음</li> <li>○ 경북 한우의 경우 생산 이력제를 통한 유전자 DNA 분석을 바탕으로 한우를 출시(츄품 한우)할 예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북 한우 사업단은 DNA분석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츄품 한우 생산</li> </ul> </li> </ul>
<p>공동 브랜드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츄품이라는 브랜드가 있으며 브랜드는 경북한우만 사용할 수 있음</li> <li>○ 브랜드 광고·홍보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li> </ul>

## <풍기인삼 클러스터>

평가 내용 지표 항목	평가 결과 내용
사업 총괄	<p style="text-align: center;">사업추진역량 86 네트워크 활성화 94 예산집행 100 성과달성도 97 기술사업화 95 브랜드 85</p>
총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적으로 볼 때, 사업추진역량(86), 네트워크 활성화(94), 예산집행관련(100), 성과 달성도(97), 기술(연구) 사업화(95), 공동 브랜드 관리(85)로 평가되었음</li> <li>○ 공동브랜드 관리에서 클러스터 사업단 공동브랜드가 필요로 함</li> <li>○ 풍기 인삼의 경우 동양 대학교 중심의 인삼 전문 인력의 육성을 통해 경쟁력 확보를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도하고 있음</li> </ul>
사업 추진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은 05, 06사업 동시시행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의 중복계상 해소에 따른 세부사업간 물량조정이 있으며 총괄책임자와 참여기관의 변경은 없음</li> <li>○ 작목반 단위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참여농가 D/B구축이 되어있음</li> </ul>
네트워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학연관(참여기관)의 교류협력, 워크샵, 자문단(위원회) 활용 실적 등은 대체로 잘 운영되고 있으며 개방적 네트워크가 이루어짐</li> <li>○ 풍기인삼클러스터사업단의 핵심이 되는 곳은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사업단은 사업부문과 참여주체들을 유기적으로 엮는 네트워크 사업의 중추가 되며, 사업의 추진성과를 관리하고 비전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음</li> </ul>
예산 집행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 회계 장부 관리 및 증빙서류가 구비되어 있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음</li> </ul>
성과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단 성과 지표 달성도는 비교적 우수하다고 평가됨</li> <li>○ 국고지원 중단 시 자립화 방안은 사업단이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KT&amp;G와 연계해서 수익창출 할 예정임</li> </ul>
기술 (연구) 사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SO, HACCP 등 핵심기술에 대한 인증이 있으며 인증된 핵심기술을 활용됨</li> </ul>
공동 브랜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단 공동 브랜드는 아직 없고 영주시의 공동브랜드만 있음</li> <li>○ 풍기인삼은 현재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다양한 유통로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있음. 인삼재배와 가공에 필요한 시설들을 생산자 가까이 설치, 물류비용을 아끼는 등 유통구조의 혁신도 진행하고 있음</li> </ul>

## <경남 친환경 쌀 클러스터>

평가 내용 지표 항목	평가 결과 내용
사업 총괄	 <p>The radar chart displays six performance indicators for the business overview. The scores are: 사업추진역량 (67), 브랜드 (83), 기술사업화 (85), 성과달성도 (84), 예산집행 (94), and 네트워킹 활성화 (68). The chart is a six-axis radar with a blue shaded area representing the current performance levels.</p>
총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적으로 볼 때, 사업추진역량(67), 네트워킹 활성화(68), 예산집행관련(94), 성과달성도(84), 기술(연구) 사업화(85), 공동 브랜드 관리(83)로 사업추진역량 및 네트워킹 활성화에 대한 혁신적 대안이 요구됨</li> <li>○ 또한 국고지원 중단에 대비한 사업단 자생능력방안에 대한 현실적 고려 시급함</li> </ul>
사업 추진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목반 단위로 농번기를 피해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쌀에 대한 생산 이력제 시스템을 구축 상품의 품질 및 농가 D/B 관리의 체계를 확립함</li> </ul>
네트워킹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학연관(참여기관)의 교류협력, 워크숍, 자문단(위원회) 활용 실적 등을 평가한 결과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점은 없다고 평가됨</li> </ul>
예산 집행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건비 집행에 있어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별도 회계 관리를 통해 적절하고 투명하게 예산이 관리되고 있음</li> <li>○ 다만, 수익금의 대부분이 쌀 수매 대출 이자로 대부분 쓰이고 있는 실정임</li> </ul>
성과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표 대비 달성도는 비교적 우수하다고 평가되며, 시중보다 10% 정도 높은 가격으로 쌀 수매를 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직접적 기여가 있다고 평가됨</li> <li>○ 실질적 자생능력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관광 및 서비스 창출 효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li> </ul>

<p>기술 (연구) 사업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페터널을 이용한 저온창고 및 생산 이력제 시스템 등 사업관련 기반 기술 수준은 높다고 평가되며, 쿨 라이스 등 상품에 대한 기술력 인증도 우수함</li> </ul>
<p>공동 브랜드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창적인 사업단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각 포장마다 클러스터 사업단 명칭을 사용함</li> <li>○ 또한, 브랜드 광고·홍보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시장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될 뿐만 아니라 별도의 브랜드 사용 지침 및 시각화 매뉴얼에 따른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li> </ul>

## <하동 녹차 클러스터>

평가 내용 지표 항목	<h3 style="margin: 0;">평가 결과 내용</h3>												
<b>사업 총괄</b>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caption>사업총괄 평가 결과</caption> <thead> <tr> <th>항목</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사업추진역량</td> <td>74</td> </tr> <tr> <td>네트워킹 활성화</td> <td>94</td> </tr> <tr> <td>예산집행</td> <td>53</td> </tr> <tr> <td>성과달성도</td> <td>90</td> </tr> <tr> <td>브랜드</td> <td>94</td> </tr> </tbody> </table>	항목	점수	사업추진역량	74	네트워킹 활성화	94	예산집행	53	성과달성도	90	브랜드	94
항목	점수												
사업추진역량	74												
네트워킹 활성화	94												
예산집행	53												
성과달성도	90												
브랜드	94												
<b>총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적으로 볼 때, 사업추진역량(74), 네트워킹 활성화(94), 예산집행 관련(53), 성과 달성도(90), 기술(연구) 사업화(89), 공동 브랜드 관리(94)로 사업추진역량 및 예산집행에 대한 사항에 활성화 대안이 요구됨</li> <li>○ 또한 국고지원 중단에 대비한 사업단 자생능력방안에 대한 현실적 고려가 시급</li> </ul>												
<b>사업 추진 역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추진 역량은 총괄 책임자, 사업 참여 기관 변경은 없으나 사업계획 변경됨</li> <li>○ 특히, 참여 농가 D/B 구축(전산화) 및 활용은 잘 되어 있음</li> </ul>												
<b>네트워킹 활성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학연관(참여기관)의 교류협력, 워크숍, 자문단(위원회) 활용 실적 등을 평가한 결과 우수한 사업단에 속함. 특히, TV, CF를 통한 홍보는 주목할 만함</li> </ul>												
<b>예산 집행 관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건비 집행에 있어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별도 회계 관리를 통해 적절하고 투명하게 예산이 관리되고 있음</li> <li>○ 다만, 수익금의 관리는 지자체 사업으로 수익 발생이 없음</li> </ul>												
<b>성과 달성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표 대비 달성도는 비교적 우수하다고 평가되며, 1차,2차 및 3차의 복합 산업 연계가 잘 이루어 짐</li> <li>○ 실질적 자생능력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li> </ul>												



<p>기술 (연구) 사업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에 대한 사업화는 특허 3건 등 보통 수준이나 기반 기술에 대한 인프라는 잘 구축되어 있음</li> </ul>
<p>공동 브랜드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통한 공동브랜드 관리가 이루어 짐</li> <li>○ 브랜드 광고·홍보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시장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될 뿐만 아니라 별도의 브랜드 사용 지침 및 시각화 매뉴얼에 따른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li> </ul>

## <경남 양돈 산업 클러스터>

평가 내용 지표 항목	평가 결과 내용
사업 총괄	<p style="text-align: center;"> <b>사업추진역량</b> 75  <b>네트워킹 활성화</b> 65  <b>예산집행</b> 59  <b>성과달성도</b> 71  <b>기술사업화</b> 76  <b>브랜드</b> 69         </p>
총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적으로 볼 때, 사업추진역량(75), 네트워킹 활성화(65), 예산집행관련(59), 성과 달성도(71), 기술(연구) 사업화(76), 공동 브랜드 관리(69)로 공동브랜드 관리 및 예산 집행에 대한 대안이 요구됨</li> <li>○ 또한 국고지원 중단에 대비한 사업단 자생능력방안에 대한 현실적 대책이 요구됨</li> </ul>
사업 추진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사업 계획, 총괄 책임자, 사업 참여기관 변경 없음</li> <li>○ 457 농가의 D/B 관리 등 사업 추진 역량은 보통으로 분석됨</li> </ul>
네트워킹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학연관(참여기관)의 교류협력, 워크숍, 자문단(위원회) 활용 실적 등을 평가한 결과 세미나 등의 활발한 진행은 이루어 졌으나 사업화로의 실질적인 네트워크연계에는 한계가 있음</li> </ul>
예산 집행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건비 집행에 있어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별도 회계 관리를 통해 적절하고 투명하게 예산이 관리되고 있음</li> <li>○ 다만, 수익금의 발생 미비로 관리에 한계가 있음</li> </ul>
성과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표 대비 달성도는 보통으로 평가되며, 세부 사업 집행에 미진한 부분이 있음</li> <li>○ 실질적 자생능력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관광 및 서비스 창출 효과에 적극적 연계가 요구됨</li> </ul>
기술 (연구) 사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히 4건 등의 기술에 대한 인증 및 농가 현장 애로 기술 개발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술의 사업화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임</li> </ul>
공동 브랜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단 각 지부 독자 브랜드를 사용하며 이에 따른 통일화 작업이 요구됨</li> <li>○ 별도의 브랜드 사용 지침 및 시각화 매뉴얼에 따른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li> </ul>

## <제주 감귤 클러스터>

평가 내용 지표 항목	평가 결과 내용
사업 총괄	<p style="text-align: center;">사업추진역량 86 네트워킹 활성화 84 예산집행 94 성과달성도 91 기술사업화 84 브랜드 88</p>
총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적으로 볼 때, 사업추진역량(86), 네트워킹 활성화(84), 예산집행관련(94), 성과달성도(91), 기술(연구) 사업화(84), 공동 브랜드 관리(88)로 성과달성도와 예산 집행 부분이 우수하다고 판단됨</li> </ul>
사업 추진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사업 계획의 변경없이 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됨</li> <li>○ 교육이 다각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D/B구축은 미비함</li> </ul>
네트워킹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학연관(참여기관)의 교류협력, 워크샵, 자문단(위원회) 활용 등이 대체로 잘 운영되고 있으나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에는 한계가 있음</li> </ul>
예산 집행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 회계 관리를 통해 적절하고 투명하게 예산이 관리되고 있음</li> </ul>
성과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표 대비 달성도는 우수하다고 평가되며, 세부 사업 집행에 미진한 부분이 있음</li> <li>○ 실질적 자생능력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관광 및 서비스 창출 효과에 적극적 연계가 요구됨</li> </ul>
기술 (연구) 사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에 대한 인증 및 농가 현장 애로 기술 개발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술의 사업화 측면으로 고 부가가치 상품 개발에는 한계가 보임</li> </ul>
공동 브랜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며 적극적으로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하고 있음</li> <li>○ 브랜드 사용 지침 및 시각화 매뉴얼에 따른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li> </ul>

## 참 고 문 헌

김주환 외, 『바이오클러스터의 성공조건과 발전방안』, 산업연구원, 2003.12.

김정호 외, 『지역농업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12.

농림부,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 종합지원계획』 (협의회 자료), 2005.7.

박석두 외, 『고창군 복분자산업 육성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4.

마이클 포터, “On Competition”, 1997, 김경목·김연성 역, 『경쟁론』, 세종연구원, 2001.

신창호 외, 『서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체제 구축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